

시로 읽는 성보순례
내 마음의 화엄
국보 제12호 화엄사각황전앞석등
통일신라시대 ▶2면

현대불교

제 몸부터 바로 잡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바로 잡아라.
스스로 제 몸을 바로 잡아서
침노하지 않으면 참 지혜라 한다. 〈법집요송경〉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2월 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876호 2012년 2월 22일 수요일

2500년 만의 귀향

붓다 진신사리 룸비니에 봉안

108산사 순례기도회, 기념비 · 탄생불 제막식 대법회

서울 도선사 주지 선묵 혜자 스님과 108산사 순례기도회 회원들은 2월 13~17일 네팔 룸비니를 방문해 '네팔 룸비니 동산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 및 탄생불 제막식 대법회'를 봉행했다. 스님과 회원들은 2월 15일 룸비니 동산 내 '한국 네팔 불교도 우정의 평화공원'에 사리이운 평화기원 대법회 기념비를 조성했다. 대중들은 기념비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을 기원했다.

행사에는 도선사 주지 선묵혜자 스님, 前 직지사 주지 자광 스님, 前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동광 스님, 前 도선사 주지 광복 스님, 세심사

세계평화 · 인류행복 기원
108순례 회원 7천명 이름 새겨

주지 승인 스님, 안동 봉황사 주지 보인 스님,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이현수 직할교구 신도회장, 108산사 순례기도회 홍보대사인 가수 장미화, 코미디언 이정표, 네팔 고팔 기라티 문화공보부장관을 비롯한 네팔 정부 관계자 및 108산사 순례기도회 회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선묵혜자 스님은 2008년 인도 쿠시나가르 마하파리 니르바나 스투파에서 1910년 출토된 부처님 진신사리 8과를 인도 대열반사 주지 가네쉬와르 스님으로부터 봉양 받았다. 그 중 부처님 진신사리 3과를 이번 행사를 통해 봉안했다.

선묵혜자 스님은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한국에서 탄생불을 조성해 네팔까지 이운했다. 1.5m 크기의 탄생불은 4.5m 높이의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기념비' 위에 봉안됐다. 기념비는 세계평화와 불국정토를 기원하는 3333개의 연등으로 장엄됐다.

기념비를 중심으로는 사리이운 과정과 108산사 순례기도회의 7000명 회원 명단이 새겨진 비석이 조성돼 있다.

선묵혜자 스님과 108산사 순례기도회 회원들은 행사에 앞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평화공원에서 약 4km 떨어진 마야대비 사원을 참배했다. 이후 육법공양, 축하인사말, 축하공연에 이어 네팔 고팔 기라티 문화공보부 장관과 함께 부처님 사리 복장물 봉안하는 탄생불 제막식을 진행했다.

2012년은 룸비니 방문의 해로 네팔 정부는 유네스코와 조계종이 추진 예정인 룸비니 성역화 사업에 큰 관심을 드러냈다. 이미 네팔 정부는 2008년 선묵혜자 스님과 108산사 순례기도회 300여 회원들을 초청해 룸비니 동산에서 '평화로운 세상을 기원하는 대법회'를 봉행한 바 있다.

고팔 기라티 문화공보부장관 대독을 통해 네팔 바버람 버터라이 수상은 "선묵혜자 스님이 건립한 기념비는 룸비니를 더욱 빛내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네팔과 한국 간의 우정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라며 "기념비가 비록 네팔에 위치해 있지만 전 세계 인류 모두의 소유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묵혜자 스님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우리 모두 부처님의 제자라는 마음으로 불교문화를 교류해 나가고 두 나라의 친교가 두터워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 동산의 성역화를 위해 노력하는 네팔 정부 관계자와 선묵혜자 스님에게 감사하다. 큰 법력을 받아 정진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불제자가 되길 기원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네팔 정부와 유네스코에서 108산사 순례기도회의 불법홍포 공덕을 인정해 부처님 탄생지에 기념탑을 세우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기원하는 일은 대단히 보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선묵혜자 스님은 13일 네팔 정부로부터 평화문화훈장을 수여받았다. 관련기사 3면

룸비니=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세계평화 기원하는 3333개의 소망 선묵혜자 스님이 한국에서 제작해 이운한 1.5m 크기의 탄생불이 4.5m 높이의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기념비' 위에 봉안됐다. 그 주변을 3333개의 연등이 세계평화와 불국정토를 기원하며 환하게 빛나고 있다. 선묵혜자 스님은 2008년 인도 쿠시나가르 마하파리 니르바나 스투파에서 1910년 출토된 부처님 진신사리 8과를 인도 대열반사 주지 가네쉬와르 스님으로부터 봉양 받았다. 그 중 부처님 진신사리 3과를 이번 행사를 통해 봉안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종교평화선언 보완 필요"

조계종 결사추진본부 제2차 자문위원회 회의서

결사추진본부의 자문위원회가 종교평화선언에 공의 수렴이 좀 더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종정 추대법회서의 선포는 연기됐다.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 자문위원회는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제2차 자문원회 회의를 2월 15~16일 이틀간 개최했다. 자문위원회에는 고우 스님, 무비 스님, 종진 스님, 용타 스님 등 선 · 교 · 율 · 종무 · 수행 분야의 스님들과 결사추진본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날 스님들은 "종교평화선언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더 공의를 모으고 교리와 부합되도록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3월 28일 종정 추대 법회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시기도 새롭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거론됐다.

자문위원 스님들은 또 더 이상 선거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잡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선 · 교 · 율, 종무 부문 간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소통방안을 다음 자문위원회 때 토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자승 스님은 "자문위원회 스님들의 의견을 받아 집행부 및 결사본부와 상의해 내용 수정과 발표 시기 문제에 대한 계획과 방안을 마련해 종정예하, 원로의장께 다시 보고 드리겠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종교평화 선언을 놓고 마성 스님과 화쟁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마성 스님은 16일 〈불교닷컴〉에 '나는 왜 아쇼카 선언을 반대하는가'라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스님은 종교평화선언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 극소수이며 어설픈 종교다원주의와 정치적 목적으로 사부대중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화쟁위원회도 17일 반박문을 발표하고 마성 스님이 사실을 왜곡하고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박기범 기자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한일불교계, 동일본 지진 1주기 합동 추모

3월 9일 일본 광명사서

한일 불자들이 지난해 3월 동일본 대지진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한일협의회)와 일한불교교류협의회(회장 미야바야시 쇼겐)는 3월 9일 오후 2시 일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鎌倉)의 정토종 광명사(光明寺)에서 '동일본대지진 1주기 추모위령법회'를 봉행한다.

한일협의회는 2월 13일 협회 사무실에서 2012년 제1차 이사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행사에서는 한일협의회 소속 양국 스님들이 추모사 · 축원문 등을 희생자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특히 천태종 범패스님들의 집전으로 한국불교 전통의식에 따라 추모의식이 진행된다.

한일협의회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발생 이후인 5월에도 위령제 봉행과 함께 성금 1000만엔을 일한불교교류협의회에 전달했다.

한편, 한일협의회는 추모위령법회에 앞선 8일 일본 야마나시현 코후(甲府)에서 제7차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를 개최한다. '일본 전통음식'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한국 여성불자 대표단 20여 명이 참석한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불교생명윤리협회 창립한다

초대 회장에 진옥 스님

불교의 중요 가르침 중 하나인 생명존중 확산을 위해 불교생명윤리협회(회장 진옥)가 창립된다.

불교생명윤리협회는 3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오후 2시부터 창립식 및 '탈핵과 생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회장직을 맡고 있는 진옥 스님은 여수 석천사 주지이며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 이사장, 전남환경연합공동의장으로 활동 중이다.

세미나에서는 박경준 교수가 '불교철학과 생명의 존엄성'을, 진옥 스님이 '탈핵과 생명', 박란희 환경재단 기획위원이 '탈핵 독일의 에너지 경제 비전'을 주제로 발제한다.

진옥 스님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핵 발전이 삼라만상의 생명뿐 아니라 현재의 편리를 위해서 자본과 권력의 손으로 미래의 삶을 파괴하는 일임을 드러냈다"며 "생명존중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불교의 가르침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에 불교계가 책임의식을 갖고 대응하기 위해 창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876호 CONTENTS

종단 2
범어사 담선법회
실천승가회 정기총회

종합 3
인터뷰| 108산사기도회 혜자스님
법정 스님 입적 2주기 추모 법회

시방세계 5
미얀마 난민 돕기 현장



비구니 지도자를 만나다 15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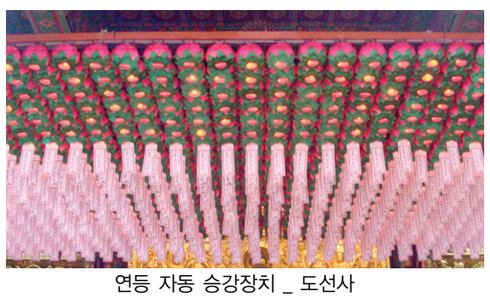
찬덕불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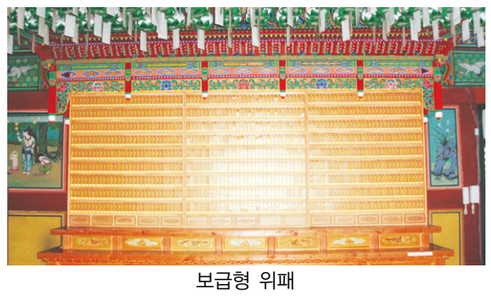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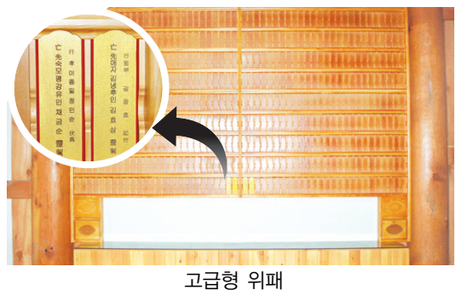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 등


팔각접등영가등


만월영가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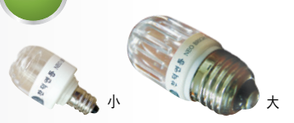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小 大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인등용 LED전구)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12호 화엄사각황전앞 석등



내 마음의 화엄

이 지 엽

내 마음에 늘 불 하나 켜 있습니다
낮아져라, 낮아져라 지리산 굽이굽이를 돌아
낮은 곳으로 내리는 물소리처럼
늘 무릎 낮추는 기도의 등불 하나 오롯합니다

거친 너와를 층층이 얹고
굴참나무 껍질로 지붕을 삼아도
수수백 년 비바람 견뎌온 너와집처럼
지지리도 못난 것들이 서로 등을 맞대 마침내
견고하게 어깨를 맞대 서 있는 집,
등잔집 하나 서 있습니다

마음의 흰소를 찾아 저잣거리 들락거려도
이 꽃 저 향내 피아골을 다 헤매어도
끝내 찾을 수 없던 길
길 끝에 화엄의 절벽
만행卍行의 무릎에도 보이지 않던 길
받침돌에는 금세 피어날 듯 연 봉오리,
기둥에선 둥기둥둥 장고소리 남은 사랑을 울리는데
연꽃무늬 날렵한 8각의 화사석火舍石 사이,
동서로 남북으로 은은히 번지는 불빛이여
그 지붕돌 꼭대기 하늘 위로 차오를 듯 사뿐한 귀꽃이며

그 불빛과 꽃의 울음들 내게 있어
나 이 저녁 평온합니다
그것이 있어 겨울처럼 깨끗한 물소리 흘러가고
명리와 자리와 구름 다 도닥거린 자리
묵상하는 그늘처럼 환합니다
들끓던 소리 다 물러가고
참 조용합니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이지엽 시인은… 1982년 〈한국문학〉 198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 시집 〈씨앗의 힘〉 및 시조집 〈해남에서 온 편지〉 등.

수좌들 법석서 세상을 논하다

수좌회, 범어사서 담선법회 성료

고려 때 성행했으나 지금은 사라진 담선법회(談禪法會)가 다시 열렸다.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무여 · 지환, 이하 수좌회)는 2월 12~15일 부산 범어사에서 담선법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교수사 고우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의 〈돈황본 육조단경〉 강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승납 5~20년의 신 · 구참 수좌스님 100여 명이 참석해 실참과 탁마의 시간을 가졌다.

12일 입재법회에서 수좌회 공동대표 지환 스님은 인사말에서 "선방 스님들이 해제기간에 선어록 강좌를 통해 자기 공부를 점검하고 정견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이번 법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범어사 선원 유나 인각 스님(前 수좌회 대표)은 축사에서 "〈육조단경〉은 망망대해를 가는 선장에게 지남과 같은 어록이다. 이번 행사가 훌륭한 한국불교의 지도자 · 선지식 배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은 환영사에서 "범어사가 선문종장 경허 스님을 모시고 선찰대본사로 명명한 이래 오늘 가장 큰 법석이 마련됐다. 법회가 여러 선원의 수좌들이 스스로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좌회 공동대표 무여 스님은 입재 법문에서 "담선법회는 발심법회라 해도 좋다. 고려 시대에는 매3일마다 담선법회가 열리고, 법회가 끝나면 용맹정진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스님은 화두 참구에는 발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우 스님의 〈돈황본 육조단경〉 강연이 시작됐다.

폐쇄적 지적 받던 수좌스님들 "역동적 수행 문화 만들겠다"

이날 법회에서 스님은 〈육조단경〉을 통해 '부처님 깨달음을 어떻게 사회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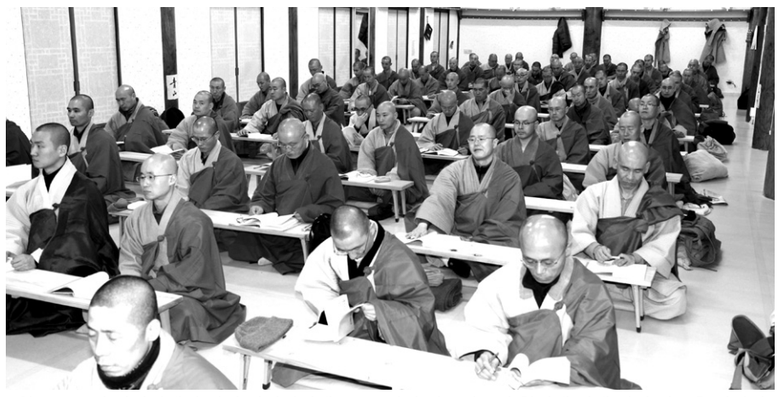
특히 스님은 법회 시작에서 "한글로 풀이된 경전을 법회에 처음 적용해 본다. 오늘 이 자리는 한글로 읽으면서도 뜻을 설명하는 가능성을 시험하는 자리도 된다"고 설명했다.

고우 스님은 〈육조단경〉이 말하는 불교의 핵심가치를 '중도'라고 말했다.

스님은 "불교정신은 중도이며, 화두를 타파하는 것은 곧 중도를 체험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선방에서는 경전을 등한시 한다. 화두일변도로 중도를 체험하면 다행이지만 깨닫지 못할 때는 인식도 못하고 체험도 못하게 된다"며 경전 공부와 인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고우 스님은 "일체가 공(空)하다고 한 것은 오온이 연기하기 때문에 공한 것"이라며 "우리 몸이 수억 개의 원자덩어리로 이뤄진 만큼 '나'라는 실체는 없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공을 이해 · 체득한 것을 바탕으로 시각을 바꿔 생활하고 이것을 사회화시키면 개인은 물론 세상까지도 변화한다"고 강조했다.



2월 12~15일 범어사에서 열린 담선법회에는 100여 수좌스님들이 참석해 선에 관한 담론을 나눴다.

수좌회 공동대표 지환 스님은 "이번 담선법회를 통해 사회와 대중과 소통하는 역동적인 수행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번 강좌가 수좌스님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환 스님은 "시대와 소통하지 않는다면 간화선은 물론 수좌들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법회 후 수좌스님들의 의견을 모아, 매년 한차례씩 담선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실승' 이 종단 변화 이끈다

퇴휴 스님 상임대표 재추대 총선 앞두고 제 역할 다짐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 이하 실천)가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을 확정하고 새로운 대표단을 확정했다. 퇴휴 스님은 상임대표에 재추대됐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제16차 정기총회를 조계사 안심당에서 2월 16일 개최했다. '실천'은 올해 사업 기조를 ▷창립 20주년 기념과 중 · 장기 비전 마련 ▷종책기능 강화(개혁성 강화) 및 종단 자성과 쇄신 운동 활성화 ▷빈민지역개발 등 국제구호사업 영역 확대 ▷불교미래사회연구소 법인화 사업 추진 ▷진성회원 확보로 설정했다.

종단 주요 혁신 과제 제안 및 개선을 위해서는 주요선거법 개정, 기명표결 및 불징계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중앙종회법 개정, 비구니 참종권 확대, 계파 문화 청산, 총무원장 정치적 중립 및 탈계파 선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 비전 제시를 위한 (가칭) 비전위원회도 운영된다. 비전위원회는 임원 및 일반회원 중 5~7명과 외부 전문인으로 구성되며 '실천'의 20년 역사 평가와 시민사회 및 종교운동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20주년 기념 법회가 예정된 10월 경 중장기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실천'은 또 올해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불교계 여론을 결집하고 생명평화사상에 입각한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제안 활동을 펼친다. 후보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진보적 인사를 가려낸다는 구상이다. '실천'은 또 부적격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또 설립 20주년을 맡는 2012년 대표단을 선출했다. 상임대표에는 퇴휴 스님이 재추대됐으며 공동대표에는 법경 지관 혜조 재범 정휴 스님이 선출됐다. 대표단 6인 중 절반인 3인이 비구니 스님으로 구성돼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상임대표 퇴휴 스님은 "올해는 국가적으로도 총선과 대선이 있고, 종단에서도 내년에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다. 이런 시기에 '실천'의 정신에 맞는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개신교, 연등회 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태클'

불교 편향적 지원이라며 '불만' 문광부 즉각 해명자료 발표

개신교계가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에 대해 '종교편향'이라고 지적하고 나서자 문광부가 전통문화 지원책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이기창)과 공공정책포럼(대표 박명수 서울신학대 교수)을 중심으로 개신교계에는 정부의 불교편향 지원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2월 10일 보도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백종구 공공정책 포럼 문화정책 전문위원은 정부가 불교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전문위원은 "한국사회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 기존 종교행정 관행을 무시하고 유독 불교만 선택해 특혜를 줬다. 정부가 불교문화유산을 지원할 때 사회 전체를 위한 공공성과 특정 종교의 포교라는 종교성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같은 날 즉각 보도해명 자료를 발표하고 불교에 대한 편향된 정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기범 기자

불교수목원 설립 토론회 열린다

조계종 사회부(부장 혜경)는 '불교수목원 설립을 위한 2차 토론회'를 2월 27일 오후 2시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 개최한다.

토론회는 이병인 부산대 바이오 환경에너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고, '수목원 현장답사와 주요 사찰 현황'(박희준 사찰생태연구소 팀장), '불교수목원 계획 원칙 및 지침'(이영경 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불교수목원 설립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김동필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등이 발표된다. 박기범 기자



한국-네팔 불교도 '불국정토 구현' 동행

도선사 주지 선묵혜자 스님

"108산사 순례라는 대장정의 원력을 세우고 처음 통도사에 첫 발을 내딛을 얻을 때, 무지개가 뜬 걸 보고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번 룸비니 동산에 부처님 진신 사리를 모실 수 있게 돼 정말 기쁩니다."

2008년 우연히 인도 쿠사나가르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8과를 봉양받게 된 도선사 주지 선묵혜자 스님은 부처님 사리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 대해 고민했다. 스님은 결국 봉양받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부처님 고향땅인 룸비니에 모시고 갈 것을 서원했다.

"2008년 네팔은 내전의 상흔으로 나라가 상당히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108순례기도회 회원 300여 명과 함께 네팔을 방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국정원에서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도 부처님 사리를 룸비니에 모시고자 당시 총무원장이셨던 지관 스님을 설득해 어렵게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네팔은 선묵혜자 스님과 108순례기도회 방문에 크게 감동했다. 모든 나라에서 네팔 방문을 꺼려하던 시기에 네팔 정부의 초청을 스님은 흔쾌히 들어준 것이다.

"이상하게도 회원들과 제가 네팔을 방문하자 네팔 정세가 점차 안정을 찾아 갔습니다. 당시 코이랄라 수상이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와서 네팔에 평화의 불씨를 심어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려는데 코이랄라 수상이 급하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룸비니의 성역화 활성화를 위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룸비니 동산에 모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네팔 정부는 현 기념탑 자리에 네팔 왕조의 기념탑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이랄라 수상은 선묵 혜자 스님에게 흔쾌히 그 자리를 넘겨줬다.

스님은 "현재 기념비가 건립된 땅은 룸비니 동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장소이다. 태국 일본 중국 등이 룸비니성역화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기념비 앞으로 정문이 새롭게 들어설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룸비니 공원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기념비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당시 코이랄라 수상이 기념비가 완성된 모습을 꼭 보고 싶다고 말했다. 아쉽게도 이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 아쉽다. 지금도 코이엘라 수상이 많이 생각난다"고 전했다.

본래 기념비 안에 모셔질 부처님 진신 사리는 1과였다. 하지만 스님은 네팔 입국 전, 수도사에서 무지개가 뜬 것을 보고 3과를 모시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비록 자연의 현상이긴 하지만 뜻 깊은 일을 앞두고 남다른 징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선묵혜자 스님은 "올해가 룸비니 방문의 해이다. 마침 룸비니 동산에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탄생불 제막식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현재 '한국 네팔 불교도 우정의 평화공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많이 남아있다"며 "앞으로 '평화의 종' 건립과 평화공원 조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룸비니=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평화의 씨앗 심는 불사"
룸비니 동산에 기념비
평화의 종 건립과
평화공원 조경 추진



선묵혜자 스님(사진 가운데)이 탄생불 봉안에 앞서 진신사리를 복장 속에 넣고 있다.



룸비니 동산에 조성된 기념비와 탄생불



108산사 순례기도회 회원들이 부처님 진신사리 3과를 이운하고 있다.



2월 17일 룸비니 동산 인근 마듀버니 마을에 건립한 108선혜학교에서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원들이 현판식을 봉행하고 있다.

108선혜학교 현판식 · 3월 완공

108산사순례기도회, 룸비니에서 자비나눔실천

선묵혜자 스님과 108산사순례기도회는 자비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2월 17일 룸비니 동산에서 1㎞ 떨어진 마듀버니 마을에 108선혜학교를 건립하고 현판식을 거행했다.

이번 학교 건립은 청담 스님의 '산중에서 거리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한국에서 세계로' 라는 원력을 실천하기 위해 거행됐다.

108산사순례기도회는 108산사 순례를 시작한 이래 농촌, 군장병,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자비나눔사랑을 실천에 주력해 왔다. 학교는 120평 규모로 최대 180명의 학생들의 수용할 수 있는 공립학교이며, 교육과정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학업이 진행된다. 현재 학교는 3월에 완공 돼 4월 초부터 입학생을 모집한다.

이현수 직할교구 신도회장(도선사 신도회장)은 "부처님 탄생지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학교 건립도 추진될 것을 보니 가슴이 벅차다"며 "'세계일화' 정신으로 앞으로 네팔과 한국이 많은 교류를 통해 부처님의 고향인 룸비니가 더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룸비니=이은정 기자

"실천 가장 중시했던 스님"

17일 법정 스님 추모 법회
생전 가르침 따라 간소히 진행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이 헌향하고 있다.

무소유 정신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지혜를 주고 떠난 법정 스님의 2주기 추모 법회가 2월 17일 성북구 길상사 설법전에서 봉행됐다. 법회는 법정 스님의 생전 가르침에 따라 간소하게 진행됐다.

삼귀의와 〈반야심경〉 독송으로 시작한 법회는 헌향, 헌다, 헌화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추모영상이 상영된 뒤 법정 스님의 출가 본사인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과 주지 영조 스님이 각각 추모 법문과 추모사를 전했다.

생전의 법문을 담은 추모영상에서 법정 스님은 "〈법구경〉에 있듯이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을 너그럽게 흐르게 하면 자신의 삶이 달라진다. 마음을 자기가 알아야 내 인생의 새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했다.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은 추모사에서 "무엇보다 실천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분이 법정 스님이다. 법정 스님의 정신 이어 받아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불자가 되길 바라고, 이 인연 오랫동안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이 시대를 밝힌 등불이었던 스님을 영결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나 세월의 빠름을 실감한다"고 밝히고 "비록 영겁의 나라에 있지만 스님이 남긴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다"고 말했다.

추모 법회에는 송광사 동당 법흥 스님(원로의원). 前 송광사주지 현고 스님, 조계종 법규위원장 무상 스님, 조계종 어장 동주 스님, 원택 스님(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통광 스님(쌍계사 승가대학장), 명성 스님(운문사 강주, 前 비구니회장), 원행 스님(월정사 부주지), 덕운 스님(길상사 주지), 덕조 스님(문도대표) 등 각계 스님들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조윤선 새누리당 의원, 이계진(前 맑고향기롭게 이사 · 전 한나라당 의원), 손안식(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시민단체 '맑고 향기롭게' 관계자 및 일반 불자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주성원 기자 jsw@hyunbul.com



천태차문화대학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천태차문화대학 제1기

천태차문화대학

수강기간	2년
수강대상	차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
수강인원	00명
특 전	1. 수업료 전액 무료 2. (사)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 다도대학 수료증 3. 천태종단내 차문화연구원으로 각종 행사에 활동
교 과 목	한국차문화사, 중국차문화사, 일본차문화사, 동다송, 다신전, 불교학개론, 초발심자경문, 예절, 제다, 천태다법

천태차문화대학원

수강기간	2년
수강인원	00명
교 과 목	다경, 일본다도실습, 중국다예실습, 도자기 감상 및 실습, 제다, 천태다법, 다화, 품평, 다시 감상, 특강

천태차문화대학원 심화과정

수강기간	1년
수강인원	00명
교 과 목	차와 명상, 다부, 교육학 개론 및 실기 방법론, 향도, 제다, 홍차 및 테이블 세팅, 다식 및 천연염색, 특강

교육목적
한국불교차문화의 대중화에 노력해온 (사)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가 한국불교천태차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불교차문화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 다도교육을 실시한다. 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는 천태차문화대학에서 진행하는 다도교육을 통해 심신을 청정하게 하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목표
차(다도)에 대한 예술 · 인문 · 과학 · 사회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배운다. 한국불교의 전통다예, 헌다의식, 끽다 예법을 익히게 하여 우리나라의 불교차문화 대중화에 기여한다.
천태다법을 연구 계승 발전시킬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다도를 통하여 심신수련과 자아실현을 추구한다.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교부기간 : 2012년 3월 1일 18:00
- 원서 교부처 : 1.천태종 홈페이지→참여마당→자료실
  2.총무원 교육부(구인사)
- 접수 : 2012년 2월 1일~3월 2일 18:00
- 접수방법 : 우편 · 방문 · 이메일 접수(7315kyo@hanmail.net)
- 접수처 : 충북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천태종 총무원 교육부
- 원서 접수비 : 5,000원

■ 면접 일시 · 장소
- 면접 : 2012년 3월 3일(토) 19:00
- 장소 : 관문사 2층 금강불교대학 강의실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

- 개강일(입학식) : 3월 7일 17:30
- 문의전화 : 043)420-7315(총무원 교육부)
- 담당자 : 김동상, 김영은

■ 차문화대학 위치 및 오시는 길
-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운현궁SKHUB
- 서울역 :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시내버스 151번, 704번, 8000번
- 고속버스터미널 :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시내버스 401번

※ 상기 사항은 사정상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일 주 문



도문 스님, 우리문화재찾기에 500만원 쾌척

조계종 원로의원 도문 스님은 2월 14일 경북도청에서 박영석 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 대표에게 해외 밀반출문화재 환수를 위한 500만원을 전달했다.



쌍계사 정기보살계 대법회

하동 쌍계사 주지 성조 스님은 3월 26일 오후 2시 쌍계사 금강계단에서 보살계 대법회를 입재하고 28일 오전 8시 장경정대불사를 봉행한다.



월정사 한암대종사 61주기 추모다례재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3월 6일 월정사 적광전에서 한암 스님 61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한다. (033)339-6600



해인사 제5차 화엄21 천도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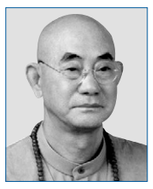
합천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4월 26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제5차 화엄21 천도법회를 봉행한다.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 신년하례법회

지승동 대명건설 회장(조계사 신도회장)은 2월 10일 송광사 서울포교당 법련사에서 열린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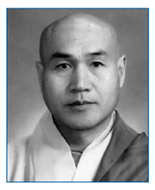
〈원적〉 태고종 원로 보봉 스님 원적



태고종 원로의원이자 승정원 부원장인 보봉 스님이 2월 13일 세수 86세, 법랍 50세를 일기로 원적했다.

스님은 1972년 송정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으며 범혜사 홍법원 주지, 제2대원로회의 의원 등을 역임했다. 스님의 영결식은 2월 17일 서울대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조계종 율원대표 각일 스님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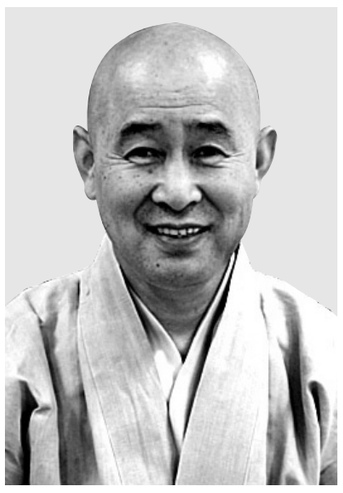


조계종 중앙종회 율원 분야 직능대표에 각일 스님(수리사 주지)이 선출됐다.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4차 회의를 열고 제15대 중앙종회 의원 직능대표(율원 분야)로 단독 입후보한 각일 스님을 선출했다.

각일 스님은 도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재적본사는 화엄사. 스님은 1979년 화엄사에서 명선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5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흥륜사 주지와 화엄사 기획국장 · 재무국장, 보살사 · 태안사 주지를 역임했다.

"왕따 문제 불교계가 앞장 서야"

파라미타 제6대 회장 정여 스님



"청소년 포교는 사람의 허리 혹은 주춧돌과 비유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청소년 포교가 활성화되면 한국불교뿐 아니라 세상도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조계종 청소년 포교의 핵심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총재 지원)를 이끌 새 수장에 부산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사진)이 2월 10일 추대됐다. 정여 스님은 제5대 회장 도후 스님의 사임으로 선임됐으며 임기는 도후 스님의 잔여 임기인 2015년 2월까지다.

파라미타 6대 회장으로 추대된 정여 스님은 그동안 부산지역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 왔다. 어린이포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한불교사대학을 설립했고 2008년 부산 파라미타 총재로 선출됨과 동시에 1인 1문화재 지킴이 사업을 펼치는 등 청소년 운동을 전개해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정여 스님은 이날 "파라미타는 조계종 청소년 포교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회장으로서 많이 부족하지만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배우고 공부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말했다.

정여 스님은 문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파라미타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일진회를 비롯한 학원 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 청소년 문화 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가치관 형성 등 인성교육에 불교계가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입시 경쟁에 내몰려 정서를 함양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현실이 주원인"이라며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청소년의 시야를 넓히고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 외국인과 함께하는 영어 템플스테이, 불교연극 및 영화 제작, 문화재 지킴이 활동 등을 계획중이다.

스님은 "입시경쟁이 치열한 지금 청소년들이 불교를 접하기 위해서는 학업과 연관된 활동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공부가 아닌 이 시대의 참인재를 만들어 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여 스님은 "부처님은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전하는 것이 출가자의 사명이라고 강조하셨다"며 "파라미타가 가는 길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총재 지원 스님을 비롯해 상임이사 상인 스님, 이사 송묵 · 주경 · 법경 스님, 감사 법상 · 정범 스님, 사무총장 남전 스님 등이 참석했다.

파라미타 이사회는 이날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다뤘으며 회장 선출에 앞서 임기가 만료된 정우 스님 대신 정여 스님을 신임 이사로 선임하고, 역시 임기 만료된 법경 스님과 수불 스님의 연임을 결의했다. 이와 함께 전임 회장인 도후 스님의 공로를 인정해 총무원장 표창패를 수여했다.

또 올해 '환희와 감동의 청소년 포교'를 목표로 사업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밖에 영유아시설을 수탁 운영함에 따라 정관을 일부 개정했으며 3월 18~19일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2012년도 정기총회 및 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외국인 불자…묘각사에서 붓다를 만나다

국내 최초 외국인들 육법공양
에콰도르 등 8개국 22명 참가

낙산 묘각사 외국인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심층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낙산 묘각사(주지 홍파)는 국내 최초로 외국인들이 부처님께 육법 공양을 올리고 수계를 받는 심층 템플스테이를 2월 12일 진행했다.

지난 2011년 11월 6일부터 네 달간 진행된 심층템플스테이 'Living in the Moment'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미국 · 영국 · 캐나다 · 프랑스 · 에콰도르 등 총 8개국 외국인 22명과 한국인 4명이 참가했다.

이번 심층템플스테이에서는 여여스님의 영어토론과 참선, 요가 그리고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으며 회향프로그램으로 육법공양과 수계식이 진행됐다.

수계사 홍파 스님은 수계식 심지 법문에서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체험해 제2의 고향으로 알고 일생동안 삼귀의례와 신도5계를 잘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고운사, 각성 스님 '금강경' 특강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는 2월 13~17일 고운사 선체험관에서 각성 스님 초청 〈금강경〉 특강을 개최했다.

각성 스님 특강에는 100여 스님들과 대중들이 참석해 스님의 열강을 경청했다. 각성 스님은 "사구계 한 귀절을 듣거나 다른 이에게 전해준다면 항하사 모래의 수 보다 많은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 그 공덕이 더 수승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운사는 해제마다 특강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각성 스님 특강은 조계종 '승려연수교육에관한령'에 의거해 승려연수교육과정으로 인증을 받아 30점의 점수가 부가된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전국 사설사암단체 하나로 모은다

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3월 2일 국회서 워크숍



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회장 지암, 임제불교조계종 종정 · 사진)는 3월 2일 오후 1시 서울 국회 대회의실에서 법인회원 연대 결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2010년 4월 30일 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법인 설립인가 이후 첫 행사로 160여 종단 단체장을 비롯해 종단종무행정업무 종사자 등을 비롯한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사단, 재단 그리고 복지법인 설립과 운영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되며 한국불교 미래를 위한 토론회도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법사대학 제20회 졸업식



한국불교법사대학(학장 지일)은 2월 12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제20회 졸업식 및 법사법위 품수법회를 봉행했다. 품수식에는 법사과정(1년), 대법사과정(2년), 불학연구원과정(5년) 수료생 120여 명 등 200여 대중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육해공 불자 사관생도 졸업축하법회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자광)와 양산 통도사(주지 원산)는 2월 15일 진해 해군사관학교와 서울 육군사관학교 내 법당에서 각각 '불자 사관생도 졸업과 임관을 축하는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어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2월 17일 영천 3사관학교 내 법당에서, 공주 영평사(주지 환성)는 2월 21일 대전 국군간호사관학교 내 법당에서 각각 졸업기념법회를 열었다.

각 졸업 축하법회에는 스님과 불자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생도들에게는 조계종 포상 및 교구장상 등 표창장과 부상이 수여됐다.

노덕현 기자

금강선원 제34기 선하불교대학 개강

서울 금강선원(선원장 혜거)은 2월 27일 제34기 선하불교대학을 개강한다.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19주에 걸쳐 진행되며 혜거 스님이 직접 불교교리와 의전 등 불교입문과정을 지도한다.

(02)445-8484

노덕현 기자

세계 침구 한의대학, 중국1위 중의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중국 남경

중·고생 조기유학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입학신청서 1통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1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신문, 영어학 등

2. 학교 소개

·세계 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군입대 연기가능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3.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접수마감 : 2012년 2월 25일

5. 문의처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팩스 :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한국 총장 **혜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02)511-1080, 2026

1. 입학대상

·초등학교 5학년 ~ 고등학교 2학년

2. 제출서류

·가족등본, 여권, 여권용 사진 7매, 최종재학증명서

3. 제출기한

·2월 25일까지

4. 유학생특전

·호텔기숙사, 한식제공, 3월 어학후 9월 입학, 고교졸업 후 대학입학 보장, 1년내 신HSK(중국어 수평고사:4,5급 보장)

5. 출발일자

·3월 8일

6. 한국상담처

·02-511-2026, 2027, 010-452-5281

인터넷홈페이지: **www.njsdfx.co.kr**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그림의 떡’ 이던 컴퓨터 만지다니, 꿈 아니죠?

누포캠프 불교무료학교에 컴퓨터 생기던 날


조계종 복지재단 봉사단체 무량회가 미얀마 난민 불교무료학교에 기증한 4대의 컴퓨터 앞에서 학생들이 밝은 표정으로 자판 연습을 하고 있다.

“와~ 컴퓨터다!”

태국의 북서부 미얀마 국경 밀림 지역에 위치한 누포(Nu Pho) 캠프. 2월 1일 오후 4시 누포 캠프의 서쪽 끝에 자리한 절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노트북 컴퓨터 4대가 놓인 교실에 들어 선 학생들은 꽃보다 밝은 표정으로 컴퓨터를 둘러싸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려 본다.

사찰의 이름은 ‘붓다 사사나 예이따 모네 스 테 리 (Buddha Sasana Yeiktha Monastery)’. 이 사찰은 미얀마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던 스님들이 세웠으며 ‘불교무 료 학 교 (Buddha Free Education School)’를 운영하고 있다. 불교무료학교는 네팔 카트만두의 ‘세종 한국문화와 언어교육원’ 등을 운영하는 국제청소년교육지원단체 ‘히말라야의 꿈’이 지원해 설립한 학교다. 금년 1월 초에 개교한 불교무료학교에는 이미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청소년들이 대거 몰렸다. 수업료 부담이 없고 컴퓨터와 한글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개원과 동시에 60여 명의 학생이 등록했고, 5명의 교사들이 하루 2~3 파트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한다.

이 날 전달된 4대의 컴퓨터는 조계종 복지재단 산하 봉사단체 ‘무량회(회장 박윤희)’가 기증한 것. 무량회는 지난해 5월에도 이 학교 설립기금의 일부를 기증했었다.

“어때요? 좋습니까?” “좋고말고요. 학교를 개교하고 한 달 만에 4대의 컴퓨터가 생겼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컴퓨터 교사인 텟(Thet) 씨는 “지난 한 달 동안 이론만으로 수업을 해야 했던 우리에게 컴퓨터는 그림의 떡이었는데 이제 컴퓨터가 생겼으니 더 정확히 기능과 이론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뻐했다. 컴퓨터의 각 기능들을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컴퓨터 실물을 놓고 진행 된 첫 수업시간. 3명의 학생이 한 대의 컴퓨터 앞에 앉아야 하지만 얼굴에서는 웃음이 지워질 틈이 없다. 타이핑 연습을 위해 따로 준비해 간 키보드에 손가락을 얹고 자판 연습을 하는 학생도, 마우스를 잡고 이것저것 아이콘들을 열어 보는 학생도 오늘처럼 신나는 날은 없었다는 표정이다.

가장 나이가 들어 보이는 학생 레키(Lucky, 30)씨는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진지하다. 국경을 넘어 오기 전, 그는 영업사원으로 일을 했었다. “미얀마에서 직장 다닐 때는 컴퓨터를 배우지 못했다”며 “고국으로 돌아가면 비즈니스를 해야 하니까 여기서 영어와 컴퓨터 그리고 한국어를 완벽하게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해 이 캠프에서 결혼을 한 모젯(Moese, 20) 씨는 “인터넷을 통해 바깥세상의 흐름을 알고 싶다”면서 “이곳에서의 제한된 생활에 인터넷은 세상을 읽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난민촌 청소년들에게 컴퓨터가 어떤 의미인지 스마트 폰이 일상화된 한국의 청소년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누포 캠프에서 컴퓨터는 세상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다. 컴퓨터가 지배하는 바깥세상과는 달리 누포 캠프에서 컴퓨터 활용이 가능해진 것은 2년 전부터다. 전기 시설이 없는 곳이지만 주민들은 2010년부터 경운기를 돌려서 발전을 하고 충전식 배터리를 이용해 가정에서 전기를 쓰기 시작한 것. 물론 배터리 용량이 제한적이어서 작은 전구를 밝히고 노트북 컴퓨터를 두어 시간 사용하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지대 정글 속의 난민촌에서 위성인터넷을 하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무엇이 그런 기적을 만들어 냈을까?


불교무료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우 오바다 스님

> **한국불교 ‘히말라야의 꿈’이 후원 설립한 불교무료학교 올 1월 개교 60여 청소년 한글 컴퓨터 배우기 구슬땀**
> **“난민촌에서 컴퓨터는 세상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희망, 반드시 민주화를 이룰 것이라는 희망, 반드시 더 좋은 삶이 전개될 것이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전기를 만들고 집을 짓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학교가 필요한 것도 바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절의 주지 우 오바다(U Aw Bar Tha, 58) 스님의 말이다. 1980년대에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스님은 3년 간 옥고를 치렀고 혹독한 고문으로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그러나 스님은 “요새는 컨디션이 아주 좋다”며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불교무료학교가 문을 열고 날마다 청소년들이 드나들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는 곳에서 힘이 솟는다”는 것. 그래서 매일 손수 톱과 망치를 들고 새로운 교실을 짓느라 분주하다.

“한국의 불자들이 ‘히말라야의 꿈’을 통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입니다. 더 넓은 교실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한글과 컴퓨터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더욱 충실하고 풍요롭게 살고 한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바다 스님은 붓다 사사나 예이따 모네스테리에 200여 명이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을 마련하고 더 많은 컴퓨터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한국의 불자들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태국=임연태 논설위원

“한글과 컴퓨터 공부해서 서울에 살고 싶어요”

불교무료학교학생 체리 양

“저는 서울에 가는 것이 소원이에요.”

불교무료학교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있는 체리(Cherry, 17) 양은 묻지도 않았는데 서울에 가고 싶다는 말을 먼저 했다. 이유를 묻자 “한국의 노래(대중가요)가 좋고 서울의 풍경을 사진으로 보고 반했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 일하면서 살 수 있길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과 김연아 선수도 안다고 하더니 몇몇의 걸 그룹과 한류 스타들의 이름을 늘여 놓는다. 난민촌이 아니라 랭군의 어느 거리에서 만난 미얀마 소년 같다.

“한글을 배우는 것도 컴퓨터를 배우는 것도 제 꿈을 이루는데 중요합니다. 이 사원에 한글과 컴퓨터를 가르치는 학교가 생긴 것이 제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했고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누포 캠프 안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체리양은 집에서 컴퓨터 자판연습을 하고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외우는 요즘이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말했다.



누포캠프는 어떤 곳?

1997년 설립 2만 여 명 사는 난민촌

누포 캠프는 태국 북서부지역 국경에 인접한 밀림 속의 난민촌이다. 지난 60여 년의 장기 독재 체제가 이어져 온 미얀마의 군부는 많은 망명자와 월경자(越境者)를 발생 시켰다. 특히 국경 지역 밀림 속의 수많은 소수민족에 대한 무관심과 탄압이 태국 국경을 넘는 난민을 속출시켜 왔다.

태국의 매솟(Mae Sot)이 미얀마 난민이 몰리는 대표적인 도시이며 이 인근에 약 300만 명의 난민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누포 캠프는 국경에 인접한 반 누포(Ban Nu Pho)에 1997년부터 형성된 난민촌. 사방 4Km 이내의 구역에 2만 여명이 살고 있으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17개의 학교가 있다. 메솟에서 차량으로 약 6시간을 달려가야 닿을 수 있는 거리(약 240Km)다.

난민이란 말 그대로 국가로부터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생활을 위한 경제적 기반도 없는 사람들이다. 유엔 난민기구가 제공하는 제한 된 땅에서 살아야 하는 그들의 생활은 하루 두 끼를 기준으로 나오는 식량 배급과 옷가지들, 대나무로 지은 집 등이 전부다.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한국 최초 다문화 합창단, 첫 해외 공연

23~28일 호주서 한국다문화센터 레인보우합창단 15명
현지서 다문화 교육 현장 탐방도 진행

불교계가 주축이 돼 결성한 한국다문화센터의 '레인보우합창단'이 첫 해외 공연에 나서 눈길을 끈다.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보선, 김의정) '레인보우합창단'은 2월 23~28일 호주 시드니 캠시 스쿨 등 첫 해외공연을 진행한다. 이번 해외 공연은 KT와 사랑의열매, ING뱅크 코리아 후원으로 추진됐으며 40명의 레인보우합창단 중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5명의 단원이 참가한다.

'레인보우합창단'의 첫 해외공연이 호주에서 진행되는 것은 한때 백인 우월주의가 팽배했던 호주가 다문화 국가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현재 호주는 일선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레인보우합창단'이 방문해 공연하는 공립초등학교 캠시 스쿨 또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해 이중언어로 교육이 진행된다.

레인보우합창단은 캠시 스쿨 합창단과 합동공연을 펼치고 시드니 한인사찰인 정법사에서도 특별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린필드 한글학교 방문, 시드니 켄터베리시티 다문화센터를 방문해 호주 현지의 다문화센터 프로그램 및 운영 방법도 견학할 예정이다.

한편, 레인보우합창단은 한국다문화센터 소속으로 일본, 중국, 이라크, 몽골, 러시아, 나이지리아 등 10개국 40여 명의 다문화가정 자녀들로 이루어진 합창단이다. 2009년 7월 창단 이후, 'G20 정상회담 특별공연, 청와대 대통령 만찬 초청공연, 평창올림픽기원 전국민합창제 및 제66주년 8·15 광복기념공연' 등 각종 국가차원의 대형 행사에 참여해 다문화 사회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이현정 레인보우합창단 단장은 "처음으로 진행되는 해외공연으로 모범적인 다문화 국가로 거듭나고 있는 호주를 살펴볼 좋은 기회"라며 "해외교류를 통해 단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한국이 다문화의 열린사회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레인보우 합창단이 첫 해외 공연을 2월 23~28일 호주에서 갖는다. 2010년 12월 서울여성 플라자서 진행된 정기공연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포교원, 어린이 청소년 상근인력 모집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어린이청소년 포교분야를 전담할 상근인력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자는 어린이청소년분야 전공자, 불교관련학과를 우대하며, 주요업무는 서울 수도권 일대 조계종 사찰에서 어린이청소년 법회진행 및 관리와 사찰 전반적인 어린이청소년 포교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3월 15일까지며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청소년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02)2011-1009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포교원, 불교대학 6곳 추가 인가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불교대학 6곳을 추가로 인가, 이로써 전국 불교대학은 110곳으로 확대됐다.

포교원은 1월 31일 포교원회의를 열고 ▷청계사 불교대학 ▷길상사 불교대학 ▷자재암 불교대학 ▷대덕사 불교대학 ▷충주불교문화대학 ▷월인 불교대학의 인가를 승인했다.

청계사불교대학은 의왕시 청계사의 불교대학이며 길상사 불교대학은 고양시내 사찰 중 유일하게 인가를 받았다. 대덕사 불교대학도 용인시에서 유일한 전문교육기관이다.

박기범 기자

조계사 대학생회 캄보디아로 봉사 떠난다

조계사(주지 토진)가 대학생회 해외봉사단 '가피'를 발족한다. '가피'는 교육조직국장 지견 스님을 단장으로 22~28일 5박 6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로터스월드 아동센터를 방문한다. 발대식은 2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진행된다. 발대식에서는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의 격려사와 봉사단원들의 '가피' 선언문 낭독이 이어진다.

이들은 캄보디아 로터스월드 아동센터의 공사 및 구조 변경으로 인한 주변 정리와 아이들 빨래, 식당 및 공동시설 대청소, 음식 조리 등의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기범 기자

논산 군법당 건립기금 잇따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법당 건립에 동참이 잇따르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과 학림사 회주 도원 스님은 2월 13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논산군법당 건립기금 및 자비나눔기금으로 각각 2000만원을 지정 기탁했다.

이어 14일에는 옥천암 주지 정범 스님과 신도회 불자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논산군법당 건립기금 및 승가교육진흥기금 3000만 원을 지정 기탁했다.

주성원 기자


"장기기증에 동참하세요~"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2월 17일 2012년 첫 거리캠페인을 진행했다. 서울 인사동 북인사마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생명나눔 홍보대사이자 장기기증 희망등록 회원인 방송인 김병조, 가수 주병선, 한혜진, 前 양궁 국가대표 이은경, 안국역 직원들이 함께 거리에서 서울시민에게 떡과 차를 나누어 주며 장기기증을 홍보했다. 글=이나은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대불련, 2012 템플스테이 성료

입시와 학업의 경쟁에 지친 20대 청춘들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젊음의 열기를 마음껏 발산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최경환)는 2월 9~13일 충주 석종사에서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를 주제로 겨울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대불련은 대학 신입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겨울 석종사에서 수련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20대 대학생·예비 대학생 7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템플스테이에서는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전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대표)이 지도법사로 나섰다.

참가 대학생들은 '행복 알아차리기', '생명에 대해 감사하기', '서원하기' 등 3가지 소주제에 맞춘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젊음의 열정을 불태웠다.

템플스테이에서는 예불, 발우공양, 참선 등 불교행사와 함께 도반믿기 놀이, 찬탄염불 등 대학생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마지막 순서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가자들에게 혜국 스님이 재가오계를 내렸다.

혜국 스님은 수계식에서 "내 마음 길들이지 못하는 것도 살생으로 이는 자신의 맑은 기운과 잠재 능력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행복에 대해 법문했다.


대불련 템플스테이의 찬탄염불시간

스님은 이어 "여러분은 부처님의 귀한 아들딸"이라며 "행복 하고 싶다고 행복만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고통이나 자신의 단점을 소중히 여기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경환 대불련 회장은 "이번 수련을 통해 마음을 키우는 시간을 보냈다"며 "20대 대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나아가 우리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02)732-0239

노덕현 기자

인드라망, 올해 마을공동체 형성 주력한다

2012 정기총회 개최, 특별사업으로 '한반도 탈핵화' 결의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가 2012년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마을공동체 운동과 교육 활동 등에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드라망은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11일 신정동 교육도량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총회에는 이학생 前 YMCA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인드라망이 이날 총회를 통해 확정한 5대 사업은 ▷인드라망 주제 형성 ▷체계적 교육 시스템 강화 ▷인드라망 사업 대중화 모색 ▷마을을 잇는 그물망 구성 ▷특별사업으로 한반도 탈핵화운동 동참 등이다.

인드라망 주체 형성을 위해서는 '생명평화단'을 3년에 걸쳐 모집한다. 이를 통해 인드라망의 생명평화 사상을 전파하고, 마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일꾼을 길러낸다는 목표다.

또한 체계적 교육 시스템을 통해 생명평화단을 교육할 계획이다. 생명평화단 교육은 인드라망 회원과 활동가가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수행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가안거 제도를 만들어 인드라망 안거를 진행한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또 사회 중장년층을 인드라망 활동으로 연결하는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화엄학림, 남원 귀농귀촌학교, 인드라망 학림이 각각 교육프로그램에 동참한다. 또한 사업의 대중화를 위해 평화적 일자리 창출, 마을은행, 생명살림 가게, 농부회 창립, 마을카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드라망은 올해 마을공동체 운동에 집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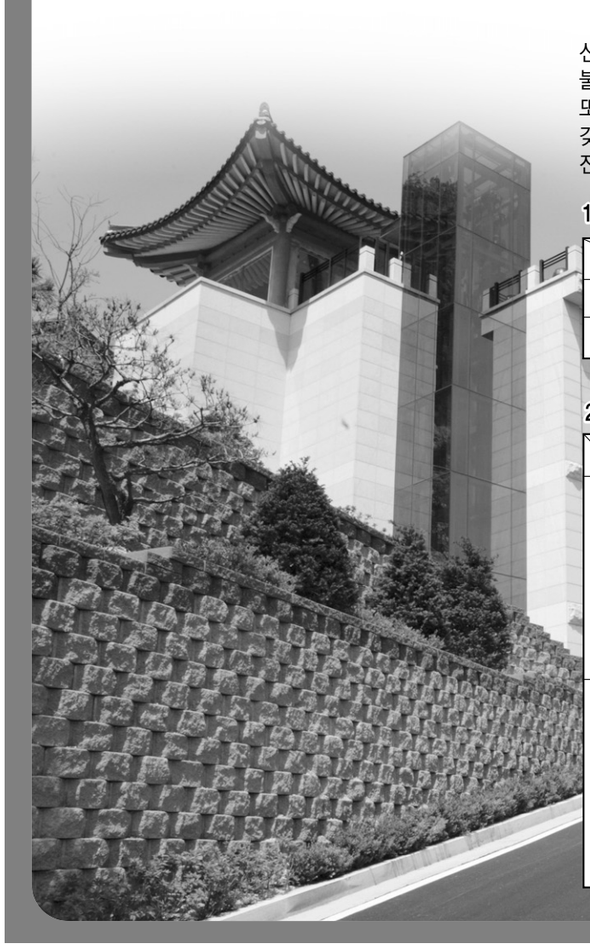
우선 실상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부대중 공동체 운동 확산을 위한 사부대중(공동체)포럼을 운영한다. 또한, 마을공동체간 교류와 연대를 고민하는 '마을 공동체 포럼' 운영을 추진한다. 마을 공동체 포럼은 마을 주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사업, 사람, 재정, 정책에 대한 협의와 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올해 특별사업으로 '한반도 탈핵화 운동 동참'이 결의됐다. 생명평화 세상을 위한 '탈핵화'는 필수적이라고 보고 핵에 대한 이해 증진, 실천방안 모색, 연대 사업 참여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신 · 편입생 모집 안내

2012학년도 안정불교대학 (전통강원 · 범패학과)



신라 천년고찰 청련사(안정사) 내의 안정불교대학에서는 출가자와 재가자를 막론하고 불교의 심오한 진리를 체득하고 한국의 전통 종교음악인 범패의 계승을 통해 올바른 승가상을 구현할 불교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2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대학의 설립목표는 부처님의 사상을 기본으로 원만광대한 원력으로 보살도를 실천하여 불조의 혜명을 잇는데 있습니다. 또한 학문과 수행을 겸비하여 지혜와 자비를 갖춘 자아완성이 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본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신라 천년고찰인 청련사(안정사) 대가람에 현대적인 감각이 잘 어우러진 교육시설을 갖추고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진을 초빙하여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실한 법음을 받아 지니고 한국불교의 전통을 이어 수행코자 하는 참된 불제자를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통강원의 체계적인 교육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과 부처님 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올리는 음성공양인 범음과 작법무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1. 교육과정 : 전통강원

학년 \ 학기	1학기	2학기
1학년	(초심반) 사미율의, 초발심자경문	(치문반) 치문
2학년	(사집반I) 서장, 도서	(사집반II) 절요, 선요

2. 교육과정 : 범패학과(범음 · 범패)

	1학기	2학기
1학년	◈ 기초 과정 ◈ 기 초 : 목탁잡고 치는 법, 요령흔드는 법, 삼귀의례 사홍서원, 천수경, 도량석, 종송(전통범음) 예 불 : 향수해례, 사성례(육성례), 오분향례, 칠정례, 각단 조석예불 불 공 : 삼보통청 외 각단 불공의식 시 식 : 상용영반, 관음시식, 화음시식, 구병시식 송경의식 : 입관, 발인, 화장의식, 매장의식, 반혼재 의식 등	◈ 상주권공 과정 ◈ 상주권공 : 초할향, 등게, 정례, 합장게, 고향게, 개계, 쇄수게, 복청게, 사방찬, 도량게, 참회게 작 법 : 천수바라, 도량게(나비춤), 요잡바라(막바라), 태징 치는 법, 북 치는 법
2학년	◈ 천도의식 본 과정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옹호게, 봉청, 39위), 지장청(상단), 신중퇴공, 관음시식, 공덕게, 봉송, 회향 ▶ 현좌게소리, 다게작법, 인성이소리, 관욕태징(관욕바라), 화의재바라, 거불, 욕건이(소리춤), 특사가지, 사다라니바라, 운심게(소리춤), 가지게(태징), 화청, 축원화청	◈ 시현회 준비 ◈ 〈재채비, 사물다루는 과정 및 법주, 바라지〉 1. 실전행사에 대비한 유기적인 의식진행 (법주, 바라지, 목탁, 요령, 태징, 북) 2. 작법 고급과정 (사방유신, 귀경이, 향화게, 법고무, 옴남 등 작법실습) 3. 특 강 : 점안의식, 생전예수생칠일재, 기타 의식 등에 관한 실기 및 설명

3. 전통강원과 범패학과는 각 학년 공통과목이며 전통강원과정이나 범패학과의 별도(단독) 수강도 가능함.

4. 입학 안내
-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가능함 (단, 전통강원 사집반 편입생은 치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나 본교에서 인정하는 교과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며, 범패학과 전문반 편입생은 시험 결과에 따라 입학 자격이 주어짐)
- 개강일시 : 2012년 3월 6일
- 입 학 식 : 2012년 3월 6일
- 강 주 : 전통강원 강주 – 운범스님
  범패학과 강주 – 상진스님 / 범패학과 강사 – 일원스님
- 수업시간
  ✪ 전통강원 ① 초심반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② 사집반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 범패학과 ① 기초과정 :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 8시까지
  ② 전문과정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 상기 수업시간은 본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강의장소 : 본 대학 강의실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1부, 반명함판 사진3매, 입학원서(본교 교학처에서 교부 및 작성), 태고종 승려는 승적증명서 1부.
- 강의과정 : 2년 과정(4학기) (전통강원 · 범패학과)
  ※ 학생들의 특별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4년 과정으로 변경 가능함.
- 접수기간 : 수시접수
- 접 수 처 : 안정불교대학 교학처《천년고찰 청련사(안정사)》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393-2 번지
- 문 의 처 : ☎ 031)836-0827

안정불교대학 학장 백우

전통사찰 세계문화유산 등재 전망 밝다

사찰조경硏 학술회의 가능성 진단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세계유산은 900여 점이다. 한국은 불국사 석굴암을 포함한 10점의 세계유산이 등재돼 우리 문화와 자연유산에 대한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문화의 대부분이 불교문화라고 하면서도 정작 한국의 세계유산 가운데 불교문화재는 2점 밖에 등재돼 있지 않다. 한국 전통사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주제로 한 학술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동국대 사찰조경연구소(소장 홍광표)는 2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사찰의 세계문화유산등재,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이상해 교수(성균관대 · 前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이 '세계문화유산 등재요건과 한국의 불교사찰'을, 문동규 순천대 연구교수가 '지리산의 불교유산'을, 허준 우석대 교수가 '지리산 사찰의 세계문화유산적 가치'를 주제발표했다.

또, 종합토론에는 허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초빙교수를 좌장으로 주제발표자 외에 현고 스님(전남문화재연구원 이사장), 조동주 문화재청 국제교류과 사무관, 정기호 성균관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상해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기준과 준비요건 등을 소개했다.

세계유산의 등재요건은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 가운데 속하는 것으로 ▷진정성 ▷완전성 ▷국내외 유사유산에 대한 비교연구 · 분석을 통한 대표성 ▷보존 관리 계획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상해 교수는 "이 같은 요건이 충족해야 해당 문화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 불교사찰을 연속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경우, 수도권 · 태백산 권역 · 계룡산 권역 · 지리산 권역 · 남도 권역 등 지역별로 분류해서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삼보사찰군, 폐사지 등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상해 교수는 "분류한 권역이 역사-



이상해 성균관대 교수는 전통사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려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재 추진 앞서 사찰 연구 필요
범불교계 추진위 결성도 방법

문화적 집단이고 동일 유형의 유산인지 합당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걸작품 ▷가치의 교류 ▷유형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 ▷연계성 등을 충족시킬 경우에 인정된다.

문화유산의 진정성은 해당 유산의 유형과 맥락에 따른 학술 · 심미 · 문화 · 예술 등과 연관한 진실성과 신뢰성을 뜻한다.

이 교수는 "세계유산은 한 국가의 이미지와 품격을 제고하는데 한 몫을 한다. 세계유산 등재 기준의 지표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유산에 따라 차별화되는 고유한 특성을 평가하는 바탕이다"라고 말했다.

이상해 교수는 "한 국가의 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면 국민들에게 자국의 역사 · 문화 · 자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한게 된다. 또, 해당 유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게 만들며, 해당 유산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도록 유발해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문동규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지리산의 불교문화유산 내지는 사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사찰의 건축문화, 사상, 가람배치 등이 함께 연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리산 사찰 관련 제반 문화 등을 신행 등 다방면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준 교수는 화엄사 쌍계사 등 지리산 사찰의 진정성 등을 고찰했다.

허 교수는 "한국사찰의 전통성은 역사를 통해 입증된다. 사찰의 입지특성 등을 파악해 볼 때 한국사찰의 세계문화유산등재는 난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고 스님은 토론에서 "지리산권 사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되 화엄사 등의 우수한 석조문화의 특성을 부각시키자"며 "'지리산권 12~14세기 불교석조 문화'라고 명명하자"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수불자연합회 최용춘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불교 문화재를 보존 · 계승 · 발전시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킴은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범불교계 차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조동섭 기자

가산불교대사림 제13권 발간

2022년까지 全22권 목표, 육필 원고 토대 작업 계속

1월 2일 입적한 지관 스님의 숙원했던 불교대백과사전 〈가산불교대사림(伽山佛教大辭林)〉 제13권이 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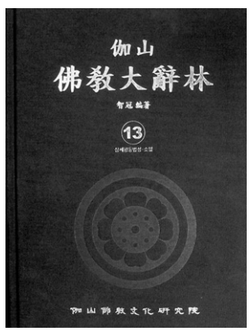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현원)은 "〈가산불교대사림〉 제13권(삼세평등법성~소밀)이 출간됐다. 가산지관 대종사 영전에, 사부대중에게 이 모든 공덕을 회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발간한 제13권은 지관 스님 입적 직전 제본이 마무리된 상태였다. 출간을 앞둔 스님의 입적에 연구원 측은 발간일을 미뤄 스님의 49재인 2월 19일에 맞춰 내놓았다.

〈가산불교대사림〉은 지관 스님이 17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불교에 독자적인 불교사전이 없음을 안타까워해 1983년 편찬을 시작했다.

지관 스님은 한국 불교 고유의 사상 · 문화 관련 항목을 최대한 발굴해 자주적 · 종합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집필을 시작했다. 지관 스님은 본책 20권, 색인 · 연표부 1권, 보유편 1권 등 全 22권에 15만여 표제어를 담을 계획이다. 15만 항목(표제어)은 국내외 사전 중 최다항목이다.

〈가산불교대사림〉에는 불교사상 및 문화 일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불교사전의 범주를 근본불교술어는 물론, 범불교권 국가에서 특수하게 토착화되거나 새로 창출된 술어 등도 포함했다.

편찬사업은 1982년 제1차사업기에 기초작업을 한 이래, 2012년 현재 제5차사업기에 있다. 현재까지 200억원이 투입됐고, 앞으로 15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연구원은





지관 스님의 49인 2월 19일에 맞춰 출간한 〈가산불교대사림〉 13권과 스님의 육필원고

제5차사업기 종료년인 2019년까지 본책 후반부를 완간하고, 제6차사업기(2020~2022년)에는 색인 및 연표부 · 보유편을 출간할 예정이다.

지관 스님은 본책 마지막 권인 제20권('ㅎ' 종료 항목)까지 주요핵심술어를 집필을 완료해 놓았다. 스님의 원고에 연인원 1100여 명의 전문인력이 동원돼 사전 편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지관 대종사는 본책 마지막까지의 주요핵심술어 집필을 마무리하시고 육필원고로 남겨 놓았다. 여타 전공별 · 주제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할 추가원고에 대한 윤문 · 감수 작업만을 남겨놓고 열반에 드셨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가산 대종사가 남긴 제5 · 6차 사업기에 해당하는 추가집필 · 교정 · 윤문 · 제작 · 출간 등 마무리 작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성보 공유하는 기쁨 나눠요"

불교중앙博, 불교문화재 기증운동 표어 공모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흥선)은 2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불교문화재 기증운동 관련 표어를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유물기증운동은 근현대 고승대덕스님의 소장유물을 수집하는 사업이다. 유물기증 대상은 종정스님을 비롯해 現 종회의장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스님과 원로 · 중진스님들이다.

수집대상 유물은 스님들이 평소 사용하던 염주 가사 발우 주장자 장삼 불자 죽비 도자기와 평소 모시던 원불 등이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유물기증운동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증운동 관련 표어를 공모해 슬로건을 확정하고, 유불기증이 기부 · 나눔 운동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증자에게는 총무원장스님 명의로 기증증서 및 감사패를 전하고, 기증자 및 기증내역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은 "문화재는 개인이 갖고 있으면 개인의 향유에서 그치지만 많은 이들과 공유하는 것"이라며 "종단 유물을 확보해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하고 종단역사 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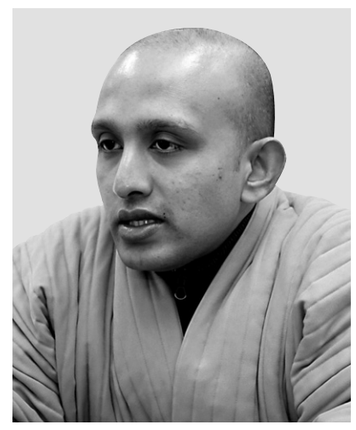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 불교중앙박물관은 불교문화재 기증운동 관련 표어를 3월 10일까지 공모한다.

표어는 ▷불교문화재의 기증을 알리는 내용 ▷불교문화재의 기증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내용 ▷불교문화재의 기증을 통해 민족문화를 수호하는 내용 등이면 된다. 1인당 2개씩 응모가 가능하며, 박물관 트위터: cbmuseum2001, 페이스북: www. facebook.com/cbmuseum, 팩스(02-732-4474) 등으로 접수 가능하다. 우수 표어 당선자 1인에게는 상금 50만원이 수여된다.

조동섭 기자

금강대 대학원 첫 외국인 졸업생 배출

석사학위 받는 스리랑카 국적 야나로카 스님



스리랑카의 한 스님이 외국인으로는 금강대를 첫 졸업한다. 뿐만아니라 스님은 금강대 대학원의 첫 졸업생이다.

금강대는 "2월 24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있을 학위수여식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야나로카 스님이 '〈유가사지론〉 성문지 입출식념의 기원과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는다. 스님은 대학원 첫 졸업생이다"라고 밝혔다.

야나로카 스님은 2003년 2월 한국에 왔다. 평소 대승불교에 관심이 많았던 스님은 2002년 스리랑카에서 대학입학시험을 치르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던 중에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그것은 명년에 개교하는 한국의 금강대학교에서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스리랑카의 스님 2분을 초청한다는 소식이었다.

"다시없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저 없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스님은 한국에 온 첫 해에는 금강대 어학원에서 한국어 공부를, 이듬해인 2004년 바로 불교공부를 시작했다. 야나로카 스님은 2008년 2월 제2회 졸업생으로 금강대 학부를 졸업했다. 스님은 졸업과 동시에 그해 설립된 금강대 대학원에 진학해 이번에 금강대 대학원 석사 1호가 되는 영예를 안았다.

야나로카 스님의 석사학위 논문은 〈유가사지론〉 '성문지'에 관련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드문 연구주제이다.

스님은 "학위보다도 학위수여가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고, 또 앞으로 무엇을 공부해야하는지 알게 된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야나로카 스님은 금강대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을 앞두고 있다.

스님은 "불교 텍스트를 여러 시각으로 보고 읽고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티베트어, 산스크리트어, 팔리어와 같은 불교 고전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공부를 마치고 스리랑카로 돌아가면 한국 불교와 스리랑카 불교의 학술적 교류를 이끌어 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동섭 기자

2012학년도 불교전통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안내

종교의 3대 요소는 첫째는 종주, 둘째는 교리, 셋째는 장엄하고 여법한 의식이며 이 세 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종교는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불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처님과 심심미묘한 법과 장엄하고 여법한 의식이 있습니다. 불교의식은 불교학문과 더불어 수행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법한 불교의식이 곧 수행의 연속이라는 걸 불제자는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불자라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의식은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본 불교전통의식교육원의 설립목표는 부처님 사상을 기본으로 원만광대한 원력으로 보살도를 실천하여 불조의 혜명을 잇는데 있으며 본 연구원은 한국불교의 얼이 담겨져 있는 불교전통의식을 기초부터 상주권공(범음 · 범패) 과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전문교육기관입니다.
본 교육원의 신입생 모집은 각종 불교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배우실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승, 속, 종단, 종파에 관계없이 불교전통의식에 관심이 있고 또 불 · 보살님 전에 지극한 정성으로 올리는 음성공양인 범음 · 범패와 작법무, 각종 불공, 천도의식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입 학 안 내 §

1. 모집학과 : 범음 · 범패 과정(상주권공)
2. 입학대상 : 승려, 전법사, 포교사, 재가불자 등 종단에 관계없이 가능함.
3. 교육기간 : 2년 과정(방학 없이 특별휴강 있음)
4. 접 수 처 : 학림사 불교전통의식 교육원
5. 연 락 처 : 총무 010-2073-5070 / 062-365-5000
6.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662-33번지(학림사 內)
7. 제출서류 : 입학원서, 수강신청서(본교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8. 접수기간 : 불기 2556년(2012) 2월 1일(음 1. 10) 수요일부터
~ 3월 3일(음 2. 11) 토요일까지
(청강생, 편입생 수시접수 가능. 단, 시험에 통과해야 함)
9. 입학식 및 개강일시 : 2012년 3월 6일(음 2. 14) 화요일 오후 12시
※강 주 : 상진스님 (前 보우승가대학,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불교의식반 강주, 現 안정불교대학 범패학과 강주)
※강 사 : 혜광스님

§강 의 내 용 §

	1학기	2학기
1학년	◈ 기초 과정 ◈ 기 초 : 목탁잡고 치는 법, 요령흔드는 법, 삼귀의례, 사홍서원, 천수경, 도량석, 종송(전통범음) 예 불 : 향수해례, 사성례(육성례) 불 공 : 삼보통청의식 축원 시 식 :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시다림 상주권공 : 초할향, 등게, 합장게, 개계, 쇄수게, 복청게 ※ 막바라(요잡바라 기본과정)	상주권공 : 사방찬, 도량게, 참회게, 헌좌게 작 법 : 천수바라, 착복(나비춤), 요잡바라 등 ◈ 천도의식 본 과정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상단), 신중퇴공, 관음시식, 구병시식, 시다림
2학년	◈ 천도의식 본 과정 ◈ 봉송, 회향, 공덕게 ▶ 관욕태징, 관욕바라, 화의재바라, 다게작법, 천수바라 사다리니바라, 욕건이(소리춤), 운심게(소리춤), 가지게(소리), 화청, 축원화청	◈ 시현회 준비 ◈ 〈재채비, 사물다루는 과정〉 1. 실전행사에 대비한 유기적인 의식진행 (법주, 바라지, 목탁, 요령, 태징, 북) 2. 작법 고급과정 (사방유신, 귀경이, 향화게, 법고무, 옴남 등 작법실습) 3. 특 강 : 재학생들의 요구 사항 및 점안의식, 생전예수생칠일재등에 관한 의식실기 및 설명

학림사 불교전통의식교육원 원장 원명 강주 상진

부산 불교계 연등축제 준비 시작

2월 13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결성법회
창작등 경연대회, 용두산 연등문화제 계획 발표

부산 불교계가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위한 봉축위원회 결성법회를 가졌다.

부산연등축제 봉축위원회는 2월 13일 부산 영주동 코모도 호텔에서 '부산연등축제결성법회'를 갖고 봉축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날 법회에는 봉축위원회 대회장 정여 스님, 봉축위 상임부대회장 법민 스님, 이윤희 봉축위원회 봉행위원장, 봉축위 수석부대회장 화산 스님, 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자인 스님 등 부산 지역 스님과 불자, 지역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봉축위원회는 법회에서 '2012 부산연등축제 봉행 계획'을 발표했다. 봉축위는 양정 청소년수련원에서 제1회 '창작등 제작 강습회'를 10일, 11일, 17~18일 4일에 걸쳐 진행했다. 또한 25일까지는 봉축슬로건을 공모할 계획이다. 창작등 제작 강습에는 30여 명의 스님과 불자들이 동참했으며 백창호 한국전통등 연구원 원장이 직접 지도에 나섰다.

또한 4월 30일까지는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창작연등을 선발하는 '제3회 창작등 경연대회'의 참가 접수가 진행된다. 5월 4일 저녁 6시 30분부터는 부산역 광장에서 봉축탑과 연등을 밝히는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식이 봉행될 계획이다. '용두산 연등문화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산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용두산 공원에서 진행된다.

5월 12~20일에는 대형 장엄등과 각종 연등이 불을 밝힌 가운데 연꽃 만들기, 전래놀이한마당, 단주 만들기, 솜사탕나누기, 소원지 붙이기, 경전탁본체험 등 다양한 시민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연등축제의 메인 행사인 '2012 부산연등축제 봉축연합대법회와 제등행진'은 5월 20일 구덕종합운동장에서 봉행된다. 제등행진 구간은 구덕운동장에서 용두산 공원까지 3.8㎞이며 제등행진 회향 장소인 용두산 공원에 회향무대가 마련된다. 회향무대에서는 레이져와 불꽃쇼, 특수조명 등으로 구성된 멀티미디어쇼가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7월 중에는 '2012 부산연등축제' 평가회와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봉축위원회 대회장 정여 스님 "때 묻지 않은 밝은 마음으로 봉축법회에 임하도록 아름답게 승화되도록 하자"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 이재진 부산지사장



부산 봉축위원회 대회장 정여 스님이 연등축제의 성공적 추진을 기원하고 있다.

불교의 과거 · 현재 · 미래가 한 눈에

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
호남지역 6개본사 등 참여


지난해 개최된 불교박람회

한국불교의 문화산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엑스퍼트는 3월 16~18일까지 3일간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2012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

2010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불교문화를 소개하고, 불교관련 상품을 전시 · 판매하는 문화산업전시박람회다. 이곳에서는 한국불교의 역사, 특히 호남지역 대표 고찰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범불교위원회와 고불총림 백양사, 조계총림 송광사, 태고총림 선암사를 비롯해 금산사, 화엄사, 대흥사, 선운사 등 호남지역 6대 본사와 광주지역 사찰과 신행단체 등이 참여해 호남지역 문화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직위원회는 전시장내 호남지역 6대 본사의 전시장을 설치한다. 전시장에는 각 사찰 체험관을 설치해, 사찰 및 템플스테이 홍보와 불교의 과거와 미래의 모습을 소개한다. 여기에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세계불교도대회를 홍보하는 공간도 마련된다.

또한 행사기간에는 참가자를 위해 불화소품전시회(벽월산방), 천연염색 의상전, 4대 본사(백양사, 송광사, 화엄사, 대흥사)의 법고 시연, 파라미타의 찬불가 공연, 골굴사의 선무도 시범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17~18일에는 순천 선암사(주지 설운)의 영산재 시연이 펼쳐져 전통불교문화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를 준비하는 박찬희 담당자는 "한국불교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갖는 최대의 종교이지만, 그에 따른 관련 산업을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상태이다"라며, "이번 박람회는 불교산업과 문화를 육성하고, 불교를 한 눈에 일반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라고 말했다. (062)383-6322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거창군 삶의 쉼터, 정월대보름맞이 축제

거창군 삶의 쉼터(관장 도영)에서는 복지관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 532명을 대상으로 정월대보름맞이 기념행사를 9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식전공연으로 거창군 문화관광과의 협조로 거창국제연극제의 모태가 된 '소원성취 발원이요'라는 액풀이 퓨전국악공연이 펼쳐졌다. 본행사에서는 윷놀이 대회가 노인과 장애인 이용자 16개 팀이 토너먼트방식으로 펼쳐졌다.

이 밖에도 가훈쓰기, 투호던지기, 제기차기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다. 한마음회에서는 무료급식을 후원해 행사장을 찾은 이용자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했다.

삶의 쉼터 관장 도영 스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복지관 이용자들이 즐거움을 공유하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경남남부지사장 청운 스님

"부처님과 함께 배우는 환경 교육"

광주불교환경聯, 문화체험 행사

광주 불교계가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체험 행사를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2012년 4회에 걸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연따라 마음따라(자따마따) 1박2일'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초등학교 2학년~6학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자연따라 마음따라'는 3월 24~25일 강진 백련사를 시작으로 4월 28~29 합천 해인사, 6월 23~24 대구 유가사, 9월 8~9일 고창 선운사, 10월 27~28 완도 신흥사에서 진행된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지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각 사찰의 유적 둘러보기, 다도, 차 만들기, 환경교육, 건기명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9월과 10월에는 어린이 생태학교가 영광 불갑사와 광주 증심사에서, 8월 3일~5일에는 지리산 일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1회 지리산마음캠프가 개최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임진년 고창 선운사 순례 줄 잇는 까닭은

대웅보전 천장 흑룡 불화 인기


선운사 대웅보전의 삼존불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아 전북 고창의 선운사(주지 법만)에 불자들의 성지순례가 줄을 잇고 있다. 바로 선운사에 흑룡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선운사 대웅보전 천장을 장엄하고 있는 불화에 흑룡, 청룡, 황룡, 백룡이 승천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 흑룡의 해를 맞아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선운사는 갑자기 늘어난 순례객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또한 흑룡의 해 윤달에 성지순례를 하겠다는 문의가 쇄도해 선운사에서는 순례객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도 세우고 있다.

보물 제290호로 지정된 대웅보전(大雄寶殿)은 선운사의 중심 전각으로 정면 5칸, 측면 3칸이며, 구조는 다포(多包) 형식이지만 맞배 지붕을 얹은 조선 중기의 건물이다. 대웅보전은 측면에는 공포가 없는 대신 기둥 두 개를 높이 세워 대들보를 받치도록 했으며,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넓고 건물의 앞 뒤 폭은 오히려 좁아서 옆으로 길면서도 안정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조선 중기의 건축물답게 섬세하고 다포의 짜임새가 장식적이다.

선운사 관계자는 "임진년 흑룡의 해, 윤달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천년의 신비가 살아 숨 쉬는 선운사에서 흑룡을 보고 위풍당당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 혁신도시에 전법도량 개원 예정

김제 금산사 교구종회서 결의

300만 평 규모의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전주 혁신도시 내에 전법도량이 개원된다.

조계종 17교구 금산사(주지 원행)는 2월 11일 전주 전북불교회관에서 2012년 1차 교구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안을 상정했다. 이미 2000여㎡의 계약을 마친 전주혁신도시 전법도량은 개발이 완료되는 오는 2014년이후에 개원할 계획이다. 전법도량이 들어서게 될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300만평 가량의 택지에 9700세대 3만명이 거주하게 된다.

한편 이 날 교구종회에서는 불기 2055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이어 올 연등축제 봉축위원회 구성 일정 등의 사업계획을 협의했다

또 올해 봉축기간동안에는 지난해 처음 무대에 올려진 후 많은 호응을 얻은 전북도립국악원과 전북지역의 불교연합합창단이 참여하는 '천년의 보물, 팔만대장경' 공연이 다시 선보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저소득 독거노인 사랑의 이불 지원

지구촌 공생회 전북지부

국제개발구호NGO 지구촌공생회(대표이사 송월주) 전북지부(지부장 강만곤)는 홀몸 어르신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차렵이불 전달식을 2월 10일 전주시청에서 가졌다.

전주시는 지구촌공생회 전북지역 후원회원들이 마련한 6만원 상당의 차렵이불 300채 (시가 1200만원 상당)를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해 도시락배달로 중식을 지원받는 저소득 어르신 150명과 전주시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에서 일상생활을 지원 받고 있는 어르신 150 명 등 300명이다.

지구촌 공생회 관계자는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추운 겨울나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지구촌공생회는 2003년 금산사 회주 송월주 스님이 창립한 국제개발구호NGO 단체로서 국내에서는 노인복지사업에 힘쓰고 있으며, 해외 6개국의 지역개발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암환자를 위한 특별 메시지

천 의 선 도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만천하에 공개 하면서



저는 천의선도 창도자며 대체의학 연구가 삼봉 김영생 스님 입니다. 저는 13세부터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육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82세가 된 오늘까지도 인간은 나면서 가는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듯이 가는길은 없을까하는 상염중에 1977년 음력 1월 15일 육경신 정신수련중에 천신의 계시를 받고 너무나 황당무계한것 같지만 천신의 메세지이니 믿고 내 주변에 말기암 환자 몇분에게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복용시켰더니 3,4개월이 지나 몸이 편안하다 하기에 병원진찰을 받아보니 암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소문에 따라 저를 찾아온 암환자가 180여명이 넘는데 한사람도 죽지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전립선,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일주일에 1번씩 4,5차례 기를 넣어 드렸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3000여명이 넘는데 재발된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나는 한국의 민중의술을 검증받기 위해 미국 오하이오주 주지사님의 초청을 받고 1998년 7월초에 미국에가서 오하이오주 주립대학 병원에가서 담당의사들의 병증세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환자들에게 의료봉사 활동을 5일간 했는데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나온 환자가 오후에 공원 산책을 혼자서 하고 돌아왔다고 담당의사가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함성을 지르며 천의선도 치료법을 전수받았습니다.

7월 14일에는 오하요주 주지사님이 한국의 민중의술이 세계에 으뜸이라고 찬사를 하시며 감사패를 주셨고, 17일에는 콜럼버스 시장님이 명예시민장도 주셨습니다. 2011년 월드코리아에서 세계속의 한국인 자랑스런 민중의술 대체의학 부문 대상도 받았습니다 만은 제 나이가 82세, 나의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이세상에 전무후무한 천하제일의 천의(天醫) 하늘이 준 의술을 묻어두고 갈순없어 이 세상에 공개해서 한가정에 한사람씩 천하제일의 명의가 있다면 건강한 가정에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되어 일반에 공개하면서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을 분 기다립니다. 나의 안내문에 의심이 나거든 강동구 천호2동 333-45 전화 02-568-4955 대가연 통증의원 원장 의학박사 심요택 박사님을 만나 보십시오. 심박사님은 암 환자를 대체의학의 자연요법을 체험해 보시고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감탄하시며 시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일반인이 자기 가정을 돌보기 위해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는 분에게는 일체 전수비를 받지 않습니다.

책값 50만원에 필요하면 은용해기 35만원, 매선침 100개 내지 150개 구입하면 준비완료.

천하제일의 명의가 되는데 소요시간은 천의선도를 전수 받고 실습시간 육각수를 만드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환신 받는데 10분, 5시간이면 넉넉하고 암환자를 치료 하려면 육경신수련 60일에 하루씩 6회 참석 수련하시면 됩니다. (오방신장의 관습을 벗어나기 위해서 입니다.)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의선도를 전수받으십시요.

천의선도 태종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배래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연락전화 : 010 - 4933 - 4528

번뇌의 본질 깨달아도 다생 습기 닦아야

인경 스님의 〈수심결〉 특강 ⑥

'수심결'이 말하는 돈오점수

현대 한국불교에서 일반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논쟁은 '돈점(頓漸)' 논쟁이다. 중국 불교사에서는 초창기에 경전이 소개되면서 경전의 가르침 내용을 판별할 때 사용된 술어가 돈점이란 용어이다. 어떤 경전은 돈오를 중시한다면, 다른 경전은 점수를 중시한다. 이때 특정한 경전의 가르침이 돈오인지 아니면 점수인지를 판별하는데 있어, 돈점의 논쟁이 일어났다. 하지만 경전의 가르침을 관정한 관점에서 판별하는 문제는 매우 어렵고, 보는 이에 따라서 돈오나 점수의 양 모습이 나타난다. 이것은 종파불교가 성행한 당나라 불교에서 중요한 과제였다.

하지만 돈점의 문제는 단순하게 경전의 내용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강조하는 실천불교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됐다. 송 대 이후 교외별전과 간화선 사상이 대두하면서, 깨달음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됐고, 마찬가지로 깨달음은 돈오인지 아니면 점수인지에 대한 부분과 깨달은 이후에는 어떤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런 문제가 현대 한국불교에서 이루어진 돈점논쟁이다. 돈오점수는 보조국사의 〈수심결〉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보조국사의 경우는 돈오돈수의 경우라도 결국은 돈오점수의 체계라는 입장을 취한다. 깨달음과 더불어서 번뇌가 일시에 단박 소멸되는 경우에도 사실은 오랜 세월을 걸쳐서 깨달음에 의지해 수행하여온 결과인 까닭에, 역시 돈오점수라고 본다.

〈능엄경〉의 가르침

〈이치는 단박 깨닫게 되고 이 깨달음에 의지해 번뇌를 녹인다. 하지만 일상의 행위는 단박에 제거되지 않는다. 점차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한다.[理則頓悟 乘悟併銷 事非頓除 因次第盡]〉

간화선을 주창한 대혜를 비롯한 돈오점수를 주장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위 〈능엄경(楞嚴經)〉의 구절을 인용한다. 이 구절은 왜 돈오점수인지를 설명하는 언구이다. 이것은 첫째로 깨달음은 돈오이며 번뇌는 돈오에 의해서 소멸된다는 점을 말한다. 돈오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번뇌는 제거되지 않음을 말한다. 둘째로 번뇌는 일시에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이루어짐을 말한다. 때문에 단박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도 번뇌는 여전히 남겨진 부분이 있고, 수행자는 '부끄러움'을 알아 계속해 공부하기를 권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대혜는 화두수행에서 돈오점수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일상에서 절대로 〈능엄경〉의 이 언구를 놓치지 말고, 그 동안 공부해온 대로 계속하여 정진해 가면 저절로 본래의 마음에 계합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대혜의 지적은 간화선과 관련한 돈점의 논쟁에 매우 중요한 전거를 제시한다.

깨닫는 이후의 점수에 대해서 대혜는 〈능엄경〉의 세 가지 점차[三種漸次]를 다시 인용하여 세 가지 목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하나는 번뇌의 성품을 바로 끊음[斷其正性]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번뇌의 성품이 그 자체가 본래 없음을 요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점은 이치와 관련되며 깨달음으로서 즉각적으로 발생되는 측면이 강하다. 때문에 이것을 진정한 닦음[眞修]이라고 했다. 두 번째는 번뇌의 발생을 돕는 원인과 조건을 제거하는 일[除其助因]이다. 이점은 번뇌란 그 본질이 텅 빈 관계로 인연을 따라서 발생됨을 알아서, 발생되는 물리적 심리적인 환경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깨달음을 얻었다고는 하나 즉각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해서 이것을 경에서는 닦고 익힘[修習]이라고 했다. 세 번째 마지막은 현재의 업을 바꾸는 일[違其現業]이다. 이것은 깨닫는 다음에 더욱 정진함으로써 얻어진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익어진 행위는 새로운 행위로 대처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경에서는 이것을 더욱 정진함[增進]이라고 했다.

'돈점' 문제는 경전 뿐 아니라
실천불교에도 중요한 과제
이치는 단박에 깨닫지만
번뇌는 금방 소멸되지 않아

〈수심결〉의 이해

〈수심결〉에서도 돈오점수의 의미를 설하면서, 역시 〈능엄경〉을 인용한다. 이치는 단박에 깨닫지만, 현실에서는 번뇌가 금방 소멸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심리적인 이유로서 보조국사는 다생습기(多生習氣)라는 용어로서 설명한다. 다생이란 윤회하는 오랜 세월을 말하고, 습기는 유식불교에서 말하는 알라야식 종자(種子)를 말한다. 습기로 말미암아서 번뇌를 일으킨다.

불성은 공적하고 신령한 앎이다. 이것은 마치 거울처럼 텅 비어 있으면서 비추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여기에 먼지가 있다면 텅 빈 고요함도 아니요, 대상을 존재하는 그대로 비추지 못한다. 이것이 습기이고 종자이다. 〈섭대승론〉에 의하면 종자는 언어적인 분별, 선악의 행위, 자기집착 등을 말한다. 언어적인 분별은 실재하지 않는 대상을 마치 실재인양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선악의 행위는 윤회의 원인으로서 옳고 그름의 판단이고, 자기집착은 나라는 생각을 만들어낸다. 이것들이 바로 습기이다.

문화적인 분별이 습기이다. 이것은 하나의 생이 아니라, 세대를 지나면서 전승되고 학습된다. 습기에 휩싸이면, 공적(空寂)하고 신령한 앎[靈知]이 우리의 자성과 본성, 영성을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 선지식을 만나서 자성을 깨닫고, 번뇌의 본질이 공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자아도 존재하지 않는 줄 알지만, 오랜 문화적인 습성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번뇌에 휩싸인다. 그래서 깨닫는 이후에도 점차적인 닦음이 요청된다. 하지만 전혀 자성을 모르던 시절과는 다르다. 습기가 있지만, 그때마다 곧 알아차려서 본래의 공적한 영지에로 돌아올 수가 있다. 이것이 돈오점수의 의미이다.

인연을 따라서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러나 반조하여 보면, 곧 그것은 없다. 알아차림을 하는 순간에 곧 연기처럼 그것은 사라진다. 뜨거운 물에 얼음이 녹아버리듯이 깨달음에 의해서 번뇌는 사라진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곧 그것을 깨달아서 본래의 자성으로 돌아오는 일이 중요하다. 번뇌를 무서워하고, 번뇌를 끊어버리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곧 그것을 알아차리면 된다. 이것을 보조국사는 목우행(牧牛行)이라 한다.

몽산덕이의 보설

간화선의 깨달음을 돈오점수로 설명한 임제종의 대표적인 선승은 남송과 원나라 시대를 살았던 몽산덕이이다. 특히 몽산은 크게 의심하면 크게 깨닫는다고 말한다. 곧 간화선에서 깨달음이란 의심의 덩어리를 타파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보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도(道)로서 심의식(心意識)을 제거하고, 성인과 범부의 길과 배움의 토대를 끊어내던져 버림은 배워서 이해하는 무리와는 전혀 다르다. 하지만 이치는 단박에 돈오(頓悟)하지만 일은 점차 닦는다[漸修]. 여러 생의 습기를 어찌 단박에 다할 수가 있겠는가? 깨닫는 이후에 비범한 숙세의 습기는 자연히 차례로 소멸된다. 이로서 이 도인은 옛날의 바로 그 사람이지만, 과거의 행동거지를 바꾸어 버린다. 만약에 옛날의 행동을 제거하지 못하면 깨달아 밝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몽산 선사 역시 돈오점수를 말하고 깨달은 이후의 닦음의 요청으로 다생습기를 언급한다. 오랜 세월의 습기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계속적인 명상수행을 이행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깨달음에 의지하여, 과거의 행동을 정화시키고 자신을 바꾸어 나간다. 이것은 동시에 사회적인 참여이고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대중교화의 길이다. 돈오점수는 수행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 수 있는 위험을 보완하는 수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또한 몽상화상은 깨닫는 이후에 대종사를 친견하여 인가를 받는 일을 강조한다. 그런 다음에 깨닫는 이후의 닦음에 들어간다. 깨닫는 이후의 수행에서 해야 할 일을 세 가지를 열거한다.

첫째는 부처님의 경전과 유교나 도교의 장서를 열람하는 일이다. 이것은 교외별전을 강조하는 간화선에서 사회적인 중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대중교화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둘째는 다생의 습기를 제거하는 문제로 이것은 깨달음을 얻는 이후에도 여전히 습기가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한 바로, 간화선이 돈오점수의 수행체계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셋째는 행리처를 바꾸는 것인데, 이점 역시 중요하다. 깨달음이란 '안목만을 중시하고 그 행리처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과는 다른 관점이다. 돈수의 입장을 견지하는 이들이 깨달은 이후에도 이를테면 화를 잘 낸다든가 아니면 괴팍한 성격은 그대로 가진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돈오점수의 입장에서 이점은 실로 잘못된 견해가 된다. 도인의 삶이란 가장 일반적인 원리로서 해행일치, 곧 깨달음과 그의 행위는 서로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깨달음에 의지하여
행동정화 · 자기 바꾸는 것은
개인적 돈오점수 차원 아닌
사회참여 · 대중교화의 길



명상상담연구원장



보조국사는 〈수심결〉에서 돈오돈수의 경우라도 결국 돈오점수의 체계라는 입장을 취한다. 사진은 동화사 보조국사 진영

빙의(귀신병) · 신병 · 퇴마 천도재 전문도량

매월 지장재일은 무보시 천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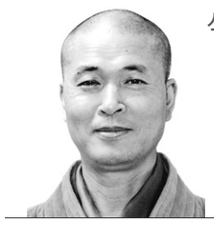


우울증,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증가,
약물게임중독, 전생체험

- 교육생수시모집 -
최면술, 퇴마술, 기공술, 자극요법술

한국빙의 · 퇴마 · 최면연합회본부
한국근본불교조계종총무원 / 송림사 주지 현오 합장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9-13번지 상담전화 02)357-4554 / 010-5656-3915
NAVER DAUM 에서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소재
◆ 화명지하철역 1분거리 ◆ 3층 50평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9229-3801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는가

비구니가 물었다.
"비밀한 뜻이란 어떤 것입니까?"
조주 스님은 비구니의 손을 잡았다.
비구니가 말했다.
"노스님께서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너야말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인가?"

尼問 如何是密密意 師以手掐之 云和尚猶有者箇在 師云 是你有者箇

하루는 부처님이 설법하는데 일진광풍이 몰아치더니 하늘에서 꽃비가 휘날렸다. 그 중에 꽃 한 송이가 부처님의 법상 앞에 툭 떨어졌다. 부처님은 꽃을 집어 들고 대중에게 보였는데 모두 어리둥절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가섭존자만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부처님은 나의 "정법안장 열반묘심(正法眼藏 涅槃妙心)을 마하가섭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즉, '나의 법을 마하가섭에게 전하노라' 라는 선언이다. 그 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자, 가섭이 교단을 통솔하고 설법하게 됐다. 제2대 붓다가 된 것이다. 부처님이 꽃을 들었을 때 마하가섭은 무엇을 본 것일까, 또 부처님이 마하가섭에게 비밀히 전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 또한 선문(禪門)의 화두이다.

어떤 비구니가 그 '비밀한 뜻' 을 알기 위해 조주 선사에게 질문했다. 그러자 조주 선사는 비구니의 손을 잡아 쥐었다. 조주 스님은 행동으로 직접 답을 내려준 것이다.

조주 스님이 비구니의 손을 잡은 뜻은 알기 어렵다. 노승이 비구니에게 연정을 품은 것은 더군다나 아니다. 그럼, 조주 스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게 묻는다면 "아동이 옥피리를 불고 산야(山野)는 붉은 색이다"라고 말하겠다.

조주 스님이 문하대중에게 가르쳐 말했다.
"나는 30년 전 남쪽에 있었는데 승당의 화롯가에서 무빈주화(無賓主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것에 대하여 들먹이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師示衆云 老僧三十年前 在南方火爐頭 有箇無賓主話直至如今無人擧著

30년 전 남쪽에 있을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조주록〉을 110세부터 120세 열반 직전까지의 문답으로 본다면, 30년 전은 대략 행각말기 80세경일 것이다. 빈은 손님이고 주는 주인이다. 임제 스님의 주는 선지식이고 빈은 방문자이다. 일반적으로 주인이라 함은 자기의 주체이고, 마음을 말하며, 본래 성품을 말한다. 손님은 몸을 말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말하고, 망상을 말한다.

임제 스님은 4가지 빈주(賓主)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조주 스님은 기본적으로 주인도 없고 손님도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주인이 곧 손님이고 손님이 곧 주인이므로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망상에 대한 것도 파도가 물이고 물이 파도이지 파도와 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처와 중생에 대한 것도 중생이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주 스님의 빈주에 대한 대화는 본 〈조주록〉 20문에도 등장한다.

학승이 물었다.
"화상께서 대왕으로부터 이러한 공양을 받으시고 무엇으로써 보답하시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염불이다."
학승이 말했다.
"가난한 자라도 염불은 할 수 있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시자야! 그 사람에게 동전 한 푼 줘서 보내라."

問 和尚受大王如是供養 將什麽報答 師云念佛 云貧子也解念佛 師云 喚侍者將一錢與伊

스님들이 공양을 받으면 공양자를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은 염불 · 축원 외에 달리 할 것이 없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염불하는 자는 곧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이다. 중생은 이미 부처이다. 공연히 공양자를 깨닫게 하겠다고 법석을 차려놓고 상승 법문을 한다고 떠들어댈 것 없다. 그것 알고 보면 모든 부처가 웃을 일이다. 큰스님이나 작은스님이나 공양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염불이 제일 좋다. "이 공덕으로 만복을 받으소서. 나무아미타불!"하고 말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 기자의
기초 교리 〈2〉

귀의하는 마음 '일심' 이 곧 삼보

원효의 '귀명삼보'

불교의 시작은 삼보에 귀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시대에 따라 불자들의 귀의 대상인 불(佛) · 법(法) · 승(僧) 삼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이것을 독창적인 시각으로 명쾌하게 답변한 고승(高僧)이 있다. 바로 원효 대사이다. 동북아시아 불교사상사에 큰 영향을 준 신라 원효 대사는 불 · 법 · 승 삼보에 의미 있는 해석을 담아냈다. 원효는 삼보를 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 갖춰져 있는 존재로 풀이함으로서, 중생 개개인의 자력적인 수행을 강조했다.

원효는 자신의 주석서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疎)〉에서 독창적인 '귀명삼보(歸命三寶)' 를 주창했다. 귀(歸)는 '경외하고 따른다', '방향을 그쪽으로 돌린다' 는 의미이고, 명(命)은 '생명의 근원' 을 뜻하며 인간의 마음과 감각 기능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여기서 생명은 목숨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 원효는 살아있는 중생에게 가장 귀중한 목숨을 들고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야말로 신심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귀의의 마음을 일심(一心)으로 보고, 돌아가야 할 대상인 일심이 바로 삼보라고 해석했다. 귀명삼보는 귀명일심(歸命一心), 귀일심원(歸一心源)이라고도 한다.

원효는 이 일심이 불 · 법 · 승 삼보로 표출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중생은 단지 번뇌가 마음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본래의 원천인 일심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원효의 시각으로 삼보는 일심이 된다. 이 말은 삼보가 따르고 신봉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일심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중생 자신이 삼보가 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중생이 일심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이유는 '여섯 개의 감각을 일으키는 기관[六根]' 인 안근(眼根; 시각작용) · 이근(耳根; 청각을 일으키는 기관) · 비근(鼻根; 후각을 일으키는 기관) · 설근(舌根; 미각을 일으키는 기관) · 신근(身根; 촉각을 일으키는 기관) · 의근(意根; 생각을 일으키는 기관)이 번뇌에 의에 마음을 어지럽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육근(六根)또한 일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했다.

대승불교에서는 중생 누구나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원효가 〈대승기신론소〉를 통해 일심이 곧 삼보이고, 중생 모두가 일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 주장과 일맥상통 하는 부분이다.

원효의 귀명삼보에서 불보(佛寶)는 지혜로운 마음에 의지해 마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고, 큰 자비심으로 세상을 구하는 자라고 봤다. 법보(法寶)는 부처의 몸 그 자체인 동시에 법의 본성을 바다와 같은 것이라고 정의했다. 깊고 넓으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승보(僧寶)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깨달음을 향해 수행 정진하는 구도자라고 봤다. 특히 원효는 승을 대승의 보살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풀이했다.

일심이 곧 삼보라고 정의한 원효의 사상은 바꿔 말하면 마음이 곧 삼보라는 뜻이 된다. 즉, 삼보는 우리의 마음이다. 따라서 불법승을 나누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원효의 주장처럼 자신의 마음을 삼보로 여길 필요가 있다. 삼보에 귀의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되기 위함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 순간 중생이 곧 불법승 삼보가 되기 때문이다.

주성원 기자 jsw@hyunbul.com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⑦

여인이라는 점이 무슨 장애가 될까? 〈장로니게〉

지난 일요일, 청운동에 있는 '윤동주 시인의 언덕' 을 다녀왔다. 큰 바위 앞면에는 '서시' 가, 뒷면에는 '슬픈 족속' 이 새겨져 있었다. 너무나 익숙한 '서시' 보다도, '슬픈 족속' 이 내 발걸음을 오래도록 붙들었다.

"힌 수건이 검은 머리를 두르고/ 힌 고무신이 거츤 발에 걸리우다/ 힌 저고리 치마가 슬픈 몸집을 가리고/ 힌 띠가 가는 허리를 질끈 동이다"

자기 땅에서 다른 족속의 지배를 받고 있는 '슬픈 족속' 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부각시키고 있다. 흰 수건, 흰 고무신, 흰 저고리 치마, 그리고 흰 띠는 모두 백의민족을 상징하고 있다.

이 시에서 말하는 '슬픈 족속' 은 그야말로 우리 민족 전체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지, 굳이 '흰 저고리 치마' 를 입고 있는 여인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터이다. 그렇지만, 그런 줄 알면서도 이 시를 다시 읽어보면, '슬픈 몸집' 을 한 족속이 곧 슬픈 여인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아니 백의민족 전체의 슬픈 현실을 드러내는 데 남자들을 노래해도 될 것이지만, 굳이 여인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럴 때 더욱더 시적 효과가 잘 살아난다는 점은 여인들의 슬픈 역사를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비구 스님들의 고백(〈장로게〉)을 먼저 읽고 나서, 비구니 스님들의 고백(〈장로니게〉)을 읽게 된 나는, 이 두 텍스트가 갖는 차이를 쉽게 느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비구니스님들의 고백에는 "마음에 평안을 얻지 못하고 욕정에 사로잡혀 있던 저는, 양팔을 벌린 채 울부짖으면서 정사(精舍)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비구의 고백, 비구니의 고백〉 민족사, 238쪽)와 같은 시들이 드물지 않다. 물론, 정사 안에서 한 비구니스님의 설법을 듣고서는 욕망의 불을 끄게 됐고, 마침내 열반에 이르게 됐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말이다.

여기서 '욕정' 이 실제로 성적 욕망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여인들에 대해서 남자들이 느꼈던 두려움의 크기가 실감난다. 여자들은 성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 그래서 매우 위험한 동물이라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영화 '워터' 에서 볼 수 있듯이, 힌두교 풍습에서는 남편을 잃은 미망인은 남편을 따라서 같이 불에 타 죽든가 머리를 깎든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했을까. 여성에게 머리카락의 존재는 성적 매력의 상징이었다. 그 상징을 제거함으로써, 마치 출가한 구도자처럼 남자를 유혹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가라 했던 것이다.

실제로 여자는 남자들보다 성적인 욕정에 더욱더 충일(充溢)한 존재일까? 답이 나오지 않았는가. 여인들은 성적 욕망이 남자들보다 더욱 치성(熾盛)하고, 그래서 더욱 위험한 존재이다. 통제해야 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퍼뜨린 사람들



이 누구인지 말이다. 바로 남자들!이다.

권력을 쥐고 있었던 남자들은 종교를 활용해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해 간다. 여인들은 그 종교가 내세우는 궁극적 경지에는 결코 이를 수 없다고 말이다. "헤아리기가 어려워 선인(仙人)들만이 체득할 수 있는 경지를,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지혜 밖에 없는 여인이 깨달을 수는 없다"(238쪽)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비구니스님들의 고백에서는, 이러한 말은 '악마' 의 말이라 규정되어 있다. 부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뒤에 그 악마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 소마라는 비구니스님이 떨쳐 일어나서 말씀하신다. "마음이 잘 안정되고 지혜가 솟아날 때, 바르게 진리를 관찰하는 데 있어 여인이라는 점이 무슨 장애가 될까?"(238쪽)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는다.

설마, 아직도 '악마' 의 말을 되뇌고 있는 남자(혹은 여자)는 없겠지?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부처님 여래후 2500년 방편불교시대는 비구니 보살들은 성불득도는 없는 것을 임진년 천년이 시작 본문 불교로 영육이 하나되는 오로체를 넘어 견성득도 하는 불안 법안 심안 령안 도안을 얻는 천안통 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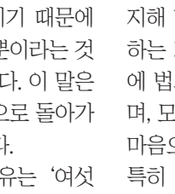
지구촌 천지개벽으로 동방의 빛이 지구촌을 비추니 대한민국 운이 전세계를 비추어 만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하늘이 내리신 대자연의 이소식은 도를 통한자만이 아는 시대가 오는 것이며 즉, 피라미트인 생명인 것이다.

◆만약 득도를 원하는 비구니나 보살들이 있다면 그 핵심인 오로체인 근본을 벗어야 성불 득도하며 일심 성불하는 법이 진광을 보는 경신 수행 법인 것이다.
경신이란 태양계 안의 핵심인고로 오직 오로체를 넘는 법은 고집 멸도 공을 넘어야 생명의 주인공이 자성을 보고 자성이 자기집에 들어 다니는 현관을 보아야 자기손안의 15진주를 알고 내가 누구인 것을 아는 것이 견성 성불 즉 일심 성불인 것이다.

◆고는 중생을 괴롭히는자는 누구인가 집은 그것은 귀신의 집단인 것이다. 멸은 모든 법이 멸 했기에 모든법이 전도 되어야 하는데 멸도인고로 도는 귀신을 타이르고 다스리는 혈단법을 살려 모든 법이 방편을 넘어 멸한 도를 다시 일으켜 앞으로 살아갈수 있도록 진도해야 한다. 공은 무엇인가? 태양계 지구촌 모든 생명을 담은 몸은 형상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진성을 찾아 육도 윤회를 벗어야만이 오로체인 핵심을 넘어 문자나 화두 정진으로 찾지 못하는 궁궁을을(궁)에 감추어진 말과 글을 넘어 태양계 내주인인 심나찰려가 전생업 금생업 내생업을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태양의 빛으로 유아 독존을 본자만이 삼세가 일체불이니라.

묘법 새로운 본문 불교시대에 지계수복자에의하여 광덕유포하는 팔만사천 경의 귀납경이 반야 심경이고 반야 심경의 핵심이 옴마니 반메훔인고로 옴마로서 자신을 찾아 영육이 합하여주는 심나찰려와 하나되는 주문에 만법이 들어있는 마음심 心자에 근본 소식인 이법은 태양계 안에 있는 생명의 근본 자리는 하늘 땅에 감추어진 법은 비복자 따라오지 않는자에게는 전해도 안도고 주워도 안되는 비밀법인 즉 벽지 불인 것이다. 천지공사의 비밀은 살아서 견성득도 성불하여 천하 제일의 도인으로 수명 장수 부귀 영화를 누리며살수있는 천지공사 팔시공 도천명 천포 태혈의 진법이요.

명부공사의 비밀은 집안이나 문중이 명이 짧아 득도하고 나서 사용도 못하고 가난을 면하여 살만하면 저승사자가 데려가는 생명을 연장하는 비법인 것이다. 지부공사의 비밀은 과거 조상님들의 묘나 생사를 모르고 효도하고 싶은 분 족보도 없이 지내는 분들은 금년 윤달든해에 효도하고 자손된 도리를 다할수 있는 것이다.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무입처 : 태일 02)821-6622/010-3239-3110

◆대용맹정진 수행하는 곳에서 생명의 빛이 혜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생명문을 열고 정신과 신심의 문, 현관의 문을 열어 운수 대통 팔자와 운명이 바뀌어 천하를 다스리는 천지공사 죽음의 뿌리를 끊고 시공을 넘어 견성도통으로 병없이 사는 이 수행법은 한번만 하여도 수십년에 수행 능력을 얻는 도통법인 것이고 120세에 도전하는 것이다.

▶종단소식◀

2012년 1월 31일까지 본종단 신분증 갱신이 없는 자는 모두 제명 체탈 되었기에 각 사암 사찰에서는 신분에 유념할지어다.

제명자 명단 : 태현, 정수, 명제, 일우, 일지, 일진, 일중, 장찬호, 수경, 현성, 일선, 정순복, 전영순, 배성호, 김명수, 명진 등 상기자들은 제명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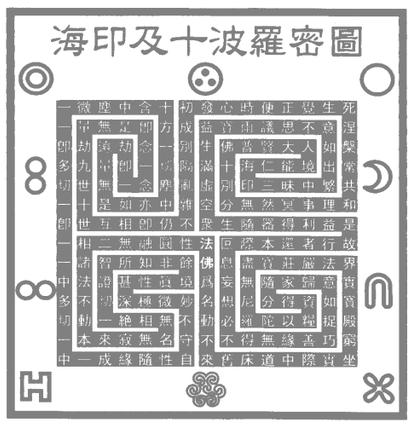
● 입제 : 양력 2012년 2월 28일(음 2월 7일 화요일)(해시)
● 해제 : 양력 2012년 2월 29일(음 2월 8일 수요일)(해시)
● 상담전화 : 02)821-6622, 02)821-7767, 010-3239-3110 FAX 821-7768

전철7호선 신대방삼거리역하차 농협지나 300M 두번째 건널목건너 약사회 골목 우측

서울과부산동시법회 : 부산직할시 금정구 장전 3동 경문사 도량
상담전화 : 051)635-3110 / 010-8533-1601 보현 합장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교육원
천지공사웅조미륵달마 경신 도통회
사단법인 세계불교 달마종 총 본산 환성 태일 합장

義湘大師法性偈十波羅密圖
의상대사십바라밀도



法性圖所持者
成就一切萬法
법성도 소지자는
일체만법이 성취하고

消滅一切障碍
神鬼一切不侵
일체마장이 소멸하며
일체잡귀가 침범 못한다.

특허등록(30-0607637)

우주삼라만사 진리와 부처님 대승법이 모두가 법성도에 있습니다
수공한지에 희희나무 열매로 염색한 괴황지에 특수 제작함.
옛날부터 불경을 사경할 때 희희나무 열매로 염색
특히 염험한 부적 사경시 종이는 꼭 괴황지에 경면주사로만 사용
어떠한 부적보다 천만배 수승한 염험과 공덕이 있다.

액자용 부처님 점안 복작용 괴황지 판매합니다.

大方光佛華嚴經
법성도십바라밀도 지극한 기도정성으로 제작
법 성 원

전 화 : 1688-7671 / 010-8258-9963
홈페이지 : www.bswon.com
은행계좌 : 837026-56-062884 (농협 이상경)

대중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조성 도량 장엄

연지(하)


부여 정림사지 연지


부안 내소사 연지


서울 봉원사 연꽃축제


인도 엘도라석굴의 연지

우리나라 사찰에 조성된 못 가운데에서는 불국사 구품연지(九品蓮池)가 가장 대표적이다. 구품연지의 존재는 불국사 창건 이후 중창과 중수의 역사를 연대기식으로 서술한 〈불국사고금역대제현계창기(佛國寺古今歷代諸賢繼創記)〉를 통해서 전해진다. 물론 구품연지가 불국사를 창건하면서 만든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불국사고금역대제현계창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 정도면 사중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구품연지는 정토신앙에서 말하는 구품연대에서 비롯된 명칭이다. 정토에 왕생하는 이가 앉는 9종의 연화대가 구품연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품연지라는 명칭을 보면 이 못은 〈관무량수경〉에서 볼 수 있는 극락정토의 연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불국사고금창기〉에 "가경(嘉慶)삼년(정조 3년) 무오년에 연못의 연잎을 뒤집다"라는 기록이 있어 단지 명칭만 붙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을 심어 연꽃이 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연지였다.

구품연지와 더불어 불교전래 초기에 백제 땅에 창건된 부여의 정림사지와 익산의 미륵사지

불교 전래 초기, 남문·중문 앞 조성
경주 불국사 구품연지 대표적
대부분 방형 형태로 조성
봉원사 함지에 연꽃 심어 매년 축제


부여의 정림사지와 익산의 미륵사지 연지는 통로를 사이에 두고 동서양 측에 조성됐다.

에서도 연지를 볼 수 있다. 이 두 사찰의 연지는 통로를 사이에 두고 동서양측에 조성됐다.

발굴조사과정에서 연줄기와 연꽃이 탄화된 흔적들이 발견되어, 불교의 전래와 더불어 연이 전해져 식재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몇 년 전인가 고려시대의 연꽃 씨를 처리하여 꽃을 피운 것을 보면서 연꽃이야말로 불법처럼 영원히 멸하지 않는 진리의 상징이라는 것을 새삼 다시 느끼고 환희심을 가졌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한다.

고려 ·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연지는 지속적으로 조성됐다. 우리나라 사찰에 만들어진 지당 가운데에서 연지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는 백련사 연지, 선암사 연지, 송광사 연지, 내소사 연지, 개심사 연지, 통도사 구룡지, 건봉사 쌍지 등이 대표적이다. 심지어는 평양의 광법사에도 일주문 좌측에 연지가 조성돼 있어 부처님의 향기가 온 세계에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교전래 초기에 조성된 연지는 절에 들어가는 남문이나 중문 앞에 조성된다. 정림사지나 미륵사지 혹은 불국사 구품연지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연지가 성속을 구분하는 기능을 가졌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연지는 사찰을 장엄하는 기능이 주가 된다.

그러니까 사부대중으로부터 가장 쉽게 인식될 수 있는 곳에 연지를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고려시대 이후에 조성된 사찰의 연지가 위치적으로 공통성을 갖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연지의 형태는 대부분 방형이다. 정림사지와 미륵사지의 연지가 방형이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방형지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불국사 구품연지는 타원형에 가까운 곡지(曲池)이다. 통일신라시대 경주에서 조성된 안압지, 구황동원지(九皇洞園池), 용강동원지(龍江洞園池) 역시 곡지인 것을 보면, 아마도 그 당시 경주 땅에서는 곡지가 유행했던 모양이다.

그렇지만 통일신라시대 이후에는 우리 땅에서 곡지형 연지의 모습을 찾기 어려워진다. 곡지의 소멸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연구성과가 없다. 흥미로운 것은 통일신라시대 경주에서 볼 수 있었던 곡지가 일본정원에서는 전통적인 양식으로 정착하여 지금도 꾸준히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진 백련사 연지


순천 선암사 연지

최근 여러 사찰에서 플라스틱 함지에 연꽃을 심어 사찰을 장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보면 연꽃은 꼭 연지에 심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마당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도심사찰의 경우에는 연지를 만들 수가 없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권장할만하다.

신촌 봉원사의 경우 매년 함지에 연꽃을 심어 연꽃축제를 연다. 서울 한복판에서 연꽃축제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운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도량을 아름답게 장엄하는 것은 꼭 형식을 제대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찰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선어사전

옛 선사들의 깨달음의 향기를
온전히 전해주는 선어 해설!

禪語事典



누구나 쉽게 읽으면서 선의 근본 뜻을 이해하고
선문화가 가지는 교결皎潔한 정취를 맛볼 수 있는
선 입문서!

적정寂靜하면서도 활발발한 선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선자禪者들의 필독서!

선어 940여 개, 등사 및 선어록 80여 개 수록!

혜원 편저 | 사륙판 양장 | 512쪽 |
값 23,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중생들을 고난으로부터 구제해주시는
33분 관세음보살님과의 만남!

우리 곁에 계신
33관세음보살 이야기

33관세음보살은 어떻게 탄생했으며, 어떤 모습으로 중생들에게 나투셨는가? 항상 중생들 곁에 계시면서 중생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33분 관세음보살님의 유래와 영험담!



전통과 현대적 기법이 조화를
이루어 그려 모신 33관세음보살도!
중생들의 어려움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고난으로
부터 구해주는 33분 관세음보살님의
성스럽고 친근한 모습!

방경일 글 • 남종진 그림 | 국판 변형 |
컬러 | 256쪽 | 값 13,000원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저 산 너머엔 분명 부처님이 계신다


법흥사 적멸보궁

㬎 ㉕ 영월 법흥사(法興寺)

단청도 현판도 없는 당우 하나가 여백 끝에 찍힌 낙관처럼 산기슭 한 편에 서있다. 극락전이다. 곧 사라질 당우다. 떨어질 때가 된 마른잎처럼 시간 끝에 매달린 당우는 대웅전으로 고쳐 지어질 예정이다. 겨울새가 날아간 하늘 끝은 차갑기만 하고, 이름마저 놓은 당우의 그림자는 무념에 들었다. 부처님 진신을 모신 법흥사다.

법흥사는 643년(신라 선덕여왕 12) 당나라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돌아온 자장(慈藏; 590~658) 스님이 창건했다. 그 때는 흥녕사였다. 헌강왕 때 절중 스님이 중창하여 구산선문 중 사자선문의 중심 도량으로 삼았고, 이후 조선시대까지 소실과 중창을 반복하며 명맥을 이어왔다. 폐사 직전 까기 갔던 흥녕사를 1902년 비구니 대원각 스님이 법흥사로 개창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내 차라리 계(戒)를 지키며 하루를 살지언정 계를 깨뜨리고 백년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 율사 자장. 당나라에서 돌아온 스님은 모시고 온 부처님 진신을 오대산 상원사, 태백산 정암사, 영축산 통도사, 설악산 봉정암에 다시 모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 사자산에 모셨다. 하지만 부처님 진신을 정확히 어디에 모셨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의 적멸보궁에서 바라다 보이는 산봉우리 넘어 어딘가에 모셨다고만 전해온다. 자장 스님만이 알고 있을 뿐이다.

스님 두 분이 산길을 걷는다. 적멸보궁 가는 길이다. 그러고 보니 모든 길에는 정해진 곳이 있었다. 집에 가는 길, 절에 가는 길. 너에게로 가는 길. 부처님께 가는 길. 우리는 늘 길 위에 있다. 집을 나서 절에 가고 절을 나서 집으로 가고, 너를 만나러 가고, 부처님을 만나러 간다. 보궁 지붕 너머로 사자산이 보인다.

찾아야 할 것을 찾지 못할 땐 법흥사에 가볼 일이다. 한 선지식의 깊은 뜻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분명 사자산 어딘가에 있을 부처님의 진신을 생각하면 찾고 있는 것은 분명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사자산 기슭 어딘가에 분명 부처님이 있듯, 우리 마음 속 어딘가에도 부처님이 분명히 있음을 설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자산 어딘가에 모신 부처님을 자장 스님만이 알고 있듯이 각자가 가진 부처가 어디 있는지는 본인만이 알 수 있음 또한 설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햇살 사이로 싸리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특별판매
현불샵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100질 한정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질 | 금장 | 최고급양장케이스 | 라이온코트지 미색 80그램 | 올케이스 | 전질2도 인쇄
현대불교
현 불 샵 02)2004-8215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숙식비 낼테니 시주 하시려오?

경허 스님 수행 일화

⑩ 속인들의 탐심에 일갈

경허 스님이 만공 스님과 여러 날 째 멀리 여행을 하고 있었다. 두 스님이 길을 가는데 그만 여비가 똑 떨어졌다. 날이 저물어 여관에 행장을 풀고 하룻밤을 쉬게 됐다. 다음날 여관주인이 경허 · 만공 스님에게 숙박비와 식대를 내라고 했다.

그러자 경허 스님이 "우리가 법당을 중수하려고 화주를 나왔습니다. 주인께서도 시주를 하시지요?"라고 말했다.

여관주인이 잠자코 있다가 답했다.

"그러면 그 화주 책을 한번 봅시다."

만공 스님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경허 스님에게 화주 책이 없었다. 화주 책도 없는데 시주하라고 말을 꺼냈으니 큰일이었다. 만공 스님이 말했다.

"실은 이 주인댁에 우리가 화주를 하려고 왔으나 지난 밤 너무 극진한 대접을 받아 고맙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니 이 댁에서는 시주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화주 책을 내놓지 않고 둘러대는 만공 스님의 말에 얼떨떨해진 여관주인은 대꾸를 하지 못했다. 이때 만공 스님이 덧붙인 한마디가 가관이었다.

"그렇게 까지 괘념하시어 우리에게 시주까지 고맙게 해 주신다면 책을 꺼내 보여드리지요."

만공 스님은 걸망 속에 손을 쑥 집어넣었다. 정작 있지도 않은 화주 책을 꺼낼 기세였다.

그러자 여관주인이 "네,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스님들" 하며 책 꺼내는 것을 만류하는 것이 아닌가. 주인으로서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관비를 받기는커녕 법당 중수 화주까지 하게 생겼다는 생각에 책 꺼내는 것을 극구 만류할 수 밖에 없었다.

여관 주인은 "스님들, 그렇다면 제가 시주를 특별히 할 수는 없고 어젯밤 두 분의 숙식비는 받지 않을 테니 그냥 가시지요"하고 정중히 말했다.

여관에서 나오자 경허 스님이 만공 스님에게 말했다.

"자네 수단이 나보다 훨씬 낫네 그려"

만공 스님이 경허 스님과 만행하며 겪은 고비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 고비 마다 만공 스님은 기지를 발했다.

어느 날 만공 스님이 경허 스님을 모시고 전주 인근을 지날 때의 일이었다. 어느 식당에서 점심공양을 마친 두 스님은 구한말 시대에 쓰던 은백전을 내주었다. 그러자 식당 주인이 "이 돈은 전라도 도지사가 사용치 말라는 명령을 내려 받을 수 없으니 여기서 쓰는 돈을 주시오"라고 말했다.

당시는 일제가 침략 정책에 의해 화폐개혁을 하고 새 화폐 사용을 강요하던 시기였다.

식당주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경허 스님이 큰 눈을 부릅뜨고 일갈했다.

"그 도지사란 놈은 당장 잡아 목을 벨 놈이로구나. 우리나라에서 내놓는 돈을 우리나라 사람이 사용 못하다니, 그런 죽일 놈이 있단 말이냐? 이 돈을 썩 받아라!"

"그 도지사란 놈 당장 목을 벨…"
서슬퍼런 호통에 일본 관원도 머뭇

바위 내려앉을 리 없단 말에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한 곳"

스님의 호통에 주인은 얼떨결에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마침 식당 주변에는 일제 관원이 나와 있었다. 관원이 이 광경을 보고 개입하려 했지만 서슬 퍼런 스님의 야단에 관원조차 무어라 말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

경허 스님은 이 틈을 타 식당을 나와 뛰기 시작했다. 만공 스님은 태연한 척 마을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 하고는 부리나케 경허 스님을 쫓아 식당을 빠져 나왔다. 얼마를 갔을까, 산모퉁이를 돌고나니 경허 스님이 쉬며 있었다.

"내가 어지간하지. 그 바람에 길을 많이 걸어왔다. 어떠냐. 내 재주가?"

경허 스님의 너털웃음에 두 스님은 만행의 피로를 잊고 다시 길을 떠났다.



⑪ 동굴에서 비를 피하며

경허 스님을 모시고 만공 스님이 어느 산중 깊은 길을 가다 갑자기 비를 만났다. 두 스님은 큰 바위 동굴에 몸을 피했다.

조용한 가운데 경허 스님이 단단한 바위로 된 동굴 천장을 자꾸 올려다 보는 것이 아닌가. 만공 스님이 이런 경허 스님에게 의아해 말했다.

"스님은 왜 그렇게 천장을 올려다 보십니까?"

경허 스님이 조용히 말했다.

"이 바위가 내려 앉을까 염려되서 그러네."

만공 스님이 "스님 이 끄덕없는 바위가 내려 앉을 리가 있겠습니까?"하고 다시 묻자 경허 스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 사람아,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네."

구성=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그림 · 박구원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으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구입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창사 19주년 기념
(주)에스컷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미 얀 마

▣ 3월 출발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 1,290,000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 요금문의

* 특급(세도나 또는 동급)호텔, 업그레이드 식사, 비자 포함
* 전 일정 특급호텔, 가이드 기사 팁, 호스카 포함 / 유류할증료 불포함

■ 인 도 완벽 8대성지 9일 / 10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전통불교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장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 ~ 6일 (요금문의)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원터치 고리용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불제재왕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건전지용 초(정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노랑·빨강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관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대학생, 스님처럼 사는 법 배운다

美 펜실베니아대 종교수업 수백명 수강 신청
'관찰' '인식' '절제' 통해 내면의 자아발견 기대


명상 수업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 5월 중순까지 채식, 뉴스청취 · 인터넷 사용금지, 묵언 등의 수행을 한다.

美 펜실베니아대의 종교수업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AP통신은 2월 12일 '학생들 스님처럼 사는 법을 배우다(STUDENTS LEARN TO LIVE LIKE MONKS)'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서는 "종교학자 저스틴 맥다니엘(Justin McDaniel)이 재학생 17명만을 선발 · 진행하는 종교수업에 수백여 명의 재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했다"며 "모든 욕구를 절제하는 수업과정에도 불구하고, 한 종교학자의 실험적 종교수업이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연애의 즐거움 · 최첨단 전자기기의 안락함도 멀리해야 하고, 커피 · 술 · 담배와 같이 감각적인 먹을거리도 포기해야 하는, 마치 수행자와 같은 생활을 실천해야 하는 이 수업을 학생들은 왜 듣고자 했을까?

맥다니엘 교수는 "(학생들이) 과거 속에서 최고의 가치를 찾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수업을 계획하게 됐다"며 "수업의 내용은 '관찰' '인식' '절제'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불교와 천주교 수행자들이 실천하는 덕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수업 강의실에 앉아 있는 학생들의 모습은 여느 학생들과는 사뭇 다르다. 남학생들은 흰색 셔츠를, 여학생들은 화장 안한 얼굴에 장신구도 하지 않은 채 검은색 스커트를 입고 있다. 책상에는 노트북이 아닌 오직 노트와 필기구만 놓여 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학기가 종료되는 5월 중순까지 수업 외 시간에도 채식은 물론 해가 지고 나면 금식과 묵언(默言)을 실천해야 하고, 뉴스 청취도 하지 않아야 한다. 과제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책만을 참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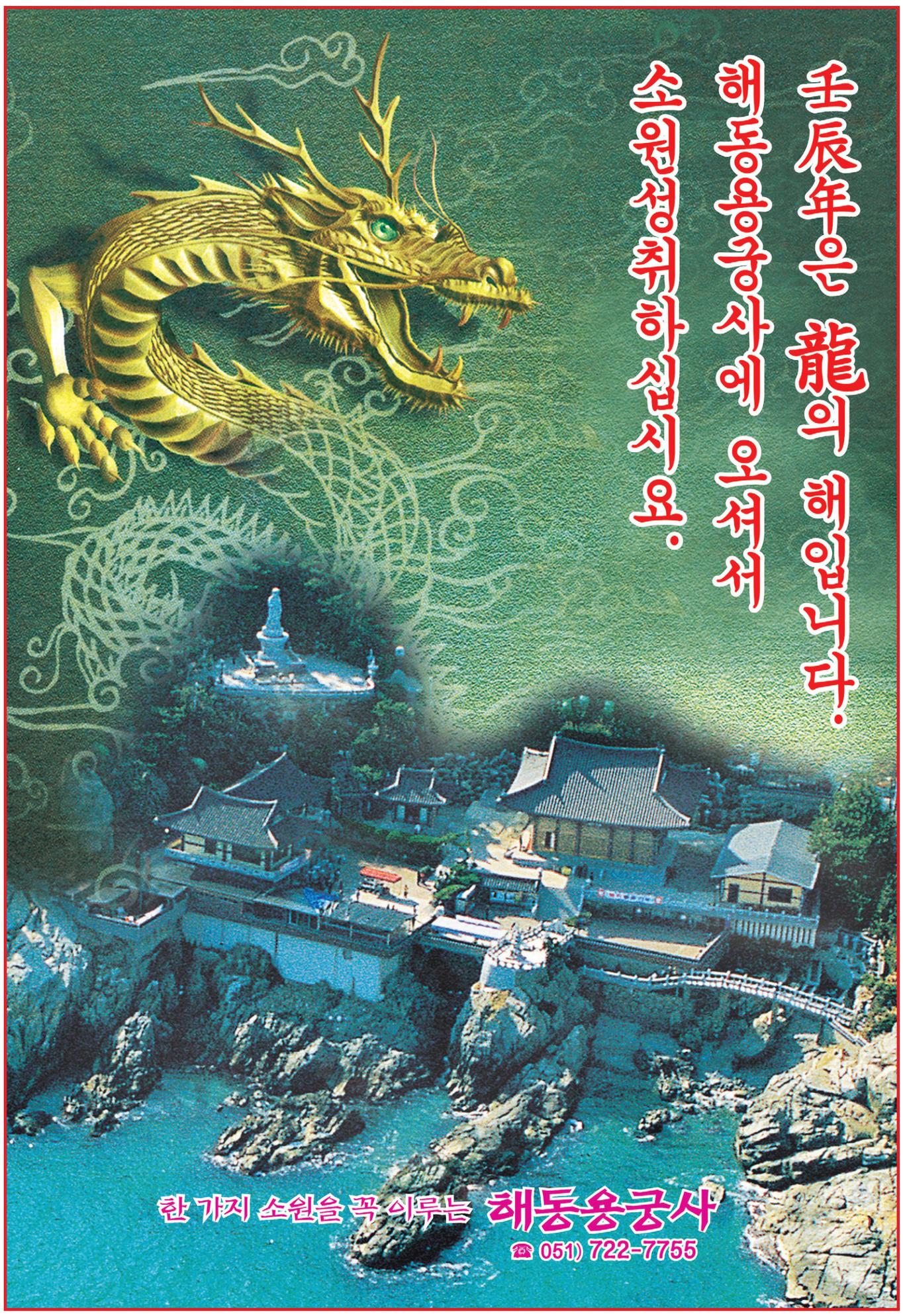
이처럼 학기가 끝날 때까지 금욕과 고행의 길만을 가야하는 수업을 학생들은 왜 스스로 선택했을까?

수강생 매데른 키서(Madelyn Keyser, 2학년 · 20세)는 "무척 힘든 과정이지만, 내면에 있을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내 자신을 알게 되면, 환자들을 더욱 잘 보살필 수 있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그녀는 펜실베니아대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다.

수강생 레이첼 아이센버그(Rachel Eisenberg, 1학년, 17세)은 "한 학기 동안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느끼고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자신을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을 될 것이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맥다니엘 교수는 "수강을 신청한 학생들과 면담을 진행해 선발한 학생들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수강생들은 이 수업이 단순한 금욕과 고행만을 강요한 수업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 높은 깨달음을 향한 길을 스스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꿰이위엔스, 중국 최초 'SNS 축원 서비스'

대기오염 산불 예방…불교미래 모습


춘절에 향공양을 올리는 중국인들

중국의 유명 사찰이 이동통신사와 제휴해 춘절 기간 동안 중국 최초로 'SNS 축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차이나데일리(www.c0hinadaily.com)가 2월 9일 보도했다.

춘절이 되면 대부분의 중국인은 가족 모두 사찰을 방문해 부처님께 향공양을 올리는 전통을 지킨다. 꿰이위엔스(Guiyuan Temple, 귀원사)와 차이나 모바일(China Mobile)이 함께 내놓은 이 서비스는 휴대폰 단말기를 통해 축원 문자를 이동통신사에 보내면, 이동통신사는 이를 사찰 경내에 설치된 LED 게시판에 반영하고, 경내 스님들은 의식을 올리며 축원을 읽어 내려가는 과정을 밟는다.

후베이(Hubei) 우한(Wuhan)시의 꿰이위엔스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향을 태우면 대기가 오염되고 산불이 날 수도 있는데, 이 서비스가 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꿰이위엔스는 "이는 'SNS 축원 서비스'를 권유하고 있는 까닭이자, 이 서비스가 친환경적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청나라 시대에 세워진 꿰이위엔스는 우한의 4대 명찰 중 하나이다. 1월 27일에는 60만여 명이 향공양을 올리기 위해 사찰을 다녀갔다. 이에 따라 우한시 경찰 4000명이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경내 안팎에 투입되기도 했다.

'SNS 축원 서비스'는 0.15위안(약 27원)의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3만여 명이 이용했다. 축원 내용은 사찰 남서쪽 코너에 설치된 LED게시판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게재됐다.

서비스 이용자 양 메이뀐(Yang Meiqin · 49)은 "사찰을 방문하지 않고, 축원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 서비스는 불교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상트페테르부르크博 '불교의 보물' 전 성황

10년 전 시작, 40개 도시 순회 6만5000여 명 관람


'불교의 보물'전 관람 풍경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 박물관의 '불교의 보물(Treasures of Buddhism)' 전(展)이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고 상트페테르부르크타임즈(www.times.spb.ru)가 2월 15일 보도했다.

이 전시회는 10년 전 러시아 연방과 접경국의 중요 불교미술을 소개하고자 마련한 상트페테르부르크 박물관의 기획전이다. 이후 10년간 러시아 연방 40개 도시를 순회하며 6만5천여 명에게 불교미술을 선보였다.

이 전시회에는 러시아는 물론 네팔, 인도, 티베트, 몽골의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대표적인 불교미술이 소개되는 한편 러시아 연방 마리엘 공화국(Republic of Mari El)의 불교계가 준비한 '탑 그리고 소원성취(Stupa, Wish Fulfilling)' 주제 사진전도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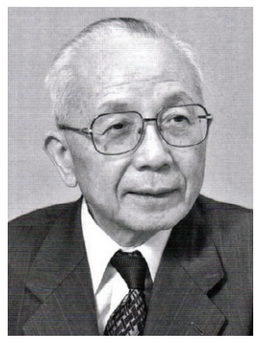
상트페테르부르크 박물관은 "2003년 '도시(상트페테르부르크) 탄생 3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불교의 보물'전이 10년이 지난 지금, 처음 열린 곳에서 마지막 전시를 하게됐다"며 "제정 러시아 시대에 찬란했던 불교를 이해하고, 현대 불교미술의 동향을 가늠하는 전시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여래장 사상 연구의 세계적인 선구자

세계의 불교학자(7)

다카사키 지키도 도쿄대 명예교수



뛰어난 학술 논문 및 연구업적을 남긴 학자에게 주는 상으로,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상이다.

그 후 다카사키 교수는 오사카 대학 조교수를 거쳐 1977년 도쿄대학 교수가 됐다. 교수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꾸준한 저술활동으로 대승불교 · 유식사상(唯識思想) · 여래장사상 등을 망라한 60여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서를 남겼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인도사상론(インド思想論)〉 〈대승불교사상론(大乘佛教思想論)〉 〈대승기신론을 읽는다(大乘起信論を讀む)〉 〈불성이란 무엇인가(佛性とは何か)〉 〈유식입문(唯識入門)〉 등이 있다.

'불성론(佛性論)' 최고 권위자
보성론 연구로 국제 학계 등장
대승불교 관련 60여권 저술 남겨
87세 나이에도 왕성한 연구 활동

'일체 중생, 살아 있는 모든 것엔 불성이 있다.[一切衆生悉有佛性]' 대승 경전 중 하나인 〈열반경(涅槃經)〉에 여러 번 반복돼 나오는 내용이다. 불성은 부처의 본성을 뜻하고, 부처의 본성은 '부처가 될 가능성을 지닌 본바탕'을 말한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말은 누구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불교계에서는 이러한 '불성론(佛性論)'을 '여래장(如來藏)사상'이라고 말한다. 여래장은 불성과 같은 뜻이다. 여래(如來), 즉 부처가 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성론은 곧 여래장사상과 직결된다.

이 여래장사상 연구에 평생을 바친 학자가 있다. 87세 고령의 나이에도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다카사키 지키도(高崎直道) 도쿄대 명예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1926년 동경에서 태어난 다카사키 교수는 어려서부터 종교와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동경대 인도철학과에 들어간 그는 인도불교와 고대 인도 바라문 사상 '우파니샤드의 아트만관'을 연구했다.

다카사키 교수가 여래장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는 1950년 일본에서 〈보성론(寶性論)〉의 산스크리트 원전 텍스트가 출판됐기 때문이었다. 〈보성론〉은 인도 대승불교의 여래장사상을 설명한 논서 중 유일하게 산스크리트 원전이 남아있는 문헌이다.

하지만 연구에 한계를 느낀 다카사키 교수는 도쿄대 졸업 후, 1954년 인도 뿌나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곳에서 만난 산스크리트어 대가 고칼레(V. V. Gokhale)교수의 지도 아래 여래장 사상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뿌나 대학에서 〈보성론〉의 영어 번역을 위주로 한 박사 논문 '보성론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Ratnagotravibhāga)'로 1958년 학위를 취득했다. 귀국한 뒤에는 다시 도쿄대 박사과정으로 들어가 '여래장사상의 형성(如來藏思想の形成)'으로 1972년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훗날 인도 뿌나 대학에서 쓴 '보성론에 관한 연구'는 당시 논문 심사원 중 한명이었던 이탈리아 출신 투찌(G. Tucci) 교수의 호의로 1966년 로마 동양학연구소(IsMEO)에서 출판돼 다카사키 교수의 이름을 국제 불교학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또 도쿄대에서 쓴 '여래장사상의 형성'으로 1975년 일본학사원은사상(日本學士院恩賜賞)을 수상했다. 일본학사원은사상은 뛰어난 학술 논문 및 연구업적을 남긴 학자에게 주는 상으로,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상이다.

그 후 다카사키 교수는 오사카 대학 조교수를 거쳐 1977년 도쿄대학 교수가 됐다. 교수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꾸준한 저술활동으로 대승불교 · 유식사상(唯識思想) · 여래장사상 등을 망라한 60여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서를 남겼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인도사상론(インド思想論)〉 〈대승불교사상론(大乘佛教思想論)〉 〈대승기신론을 읽는다(大乘起信論を讀む)〉 〈불성이란 무엇인가(佛性とは何か)〉 〈유식입문(唯識入門)〉 등이 있다.

최근에는 위 저서 외에 지금까지 60여 년에 걸쳐 이룩한 자신의 학문적 업적을 9권의 책으로 집대성한 〈다카사키 지키도 저작집(高崎直道著作集)〉을 출판했다. 이 저작집은 다카사키 교수의 도쿄대 박사학위 논문 '여래장사상의 형성'을 시작으로 여래장과 불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와 유식(唯識) 화엄사상(華嚴思想) 〈보성론〉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능가경(楞伽經)〉 등 대승불교의 중요한 사상을 포괄적으로 규명했다. 또 저작집을 집필할 때, 불교 유식학의 대가 독일 함브르크대 람베르트 슈미트하우젠(Lambert Schmithausen) 前교수와 일본의 중관(中觀)학자, 코마자와대(駒澤大) 마쓰모트 시로(松本史朗)교수 등 다카사키 교수의 연구를 비판적 시각으로 본 라이벌 학자들의 주장도 수용해 연구의 균형을 유지했다.

한국은 물론 세계의 불교학자 중에서 여래장사상을 연구하는 학자라면 반드시 다카사키 교수의 논문을 읽어야 할 정도로 그가 쌓은 업적은 방대하다. 한명의 훌륭한 학자가 얼마나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

주성원 기자 jsw@hyunbul.com

종회의원 비구니 의석 수 확대는 시대의 흐름

제10대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

2011년 10월 17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진행된 제10대 전국비구니회장 선거는 불교계에 일대 변화를 예고하는 장이었다. 회장 선출은 사상 최초로 직선제로 치러졌고 이는 시대흐름에 맞춘 불교계의 변화를 단적으로 나타낸 증거였다.

쇄신을 알린 비구니계는 이제 비구니 종회의원 의석 증가를 비롯한 위상 강화, 역량 확대에 힘을 모으고 있다. 제10대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을 2월 10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옥복연 종교와 젠더연구소장 등과 함께 만나 취임 이후 첫 인터뷰를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스님께서는 직접투표를 통해 비구니회장이 되셨습니다. 비구니스님들의 열화와 같은 원력을 대변하셔야 하기에 그 책임감 또한 막중할 것 같습니다.

회장 당선 이후 묵묵히 어떻게 하면 비구니회가 잘될지를 고민해왔습니다. 그동안 비구니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여 가면서 느낀 것이 많습니다. 언론과의 접촉을 피한 것은 회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제 이부승제도에 있어서 비구니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불교 미래를 위한 역할과 역량 확대의 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2월 28일에는 '자성과 쇄신 결사를 위한 비구니 승가의 위상과 역할'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를 앞두고 언론과의 접촉을 미룰 수 없기에 이번 인터뷰를 응하게 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모든 비구니들이 한마음으로 시대변화에 발맞추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런 대중들의 의지에 저 또한 동참하고자 합니다.

비구니 회장직선제는 시대변화
'줄탁동시' '수처작주'로 역량확대
비구중심 종단운영 평등 아닌 차별
2월 28일 비구니 승가의 역할 토론

스님께서는 비구니회 발전을 위해서는 "비구니회와 비구니스님 한 분, 한 분이 줄탁동시(啐啄同時)로써 수처작주(隨處作主)의 장(場)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불교계에는 추대의 전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국비구니회 회장 선거에서는 수천 명의 스님들이 모여 직접 회장을 뽑는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시대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역동성 있는 비구니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줄탁동시는 알 속의 병아리가 세상을 나올 때 한 부위를 정해 쪼기 시작하면 어미닭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같은 부위를 밖에서 쪼아 줌으로써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안(內)과 밖(外)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비구니회를 비롯한 비구니승가는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진행된 회장 선거가 그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회관에 수많은 스님들이 모여 비구니승가의 발전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줄탁동시는 이처럼 안에서 이는 비구니의 열망을 한데 모아 긍정적인 힘을 더해 새로이 깨어나는 전국비구니회로 만들어 가자는 의미입니다.

수처작주는 가는 곳 마다 주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6000 여 비구니들이 모두 비구니회의 주인으로서 한마음으로 비구니 승가, 또 시대변화를 이끌어 가자는 의미입니다.

전국비구니회는 '대한불교비구니우담바라회'(1968년)가 그 효시로 알고 있습니다. 비구니승가 대표단체로 많은 불교국가 비구니스님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비구니승가의 저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전 세계적으로 비구니들이 조직체를 이루고 활동이 번창한 곳이 드뭅니다. 한국불교에 비구니 승가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것은 수행과 교육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비구니들이 따로 모여 수행하고 교육을 받는 곳은 대한민국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비구니 선배스님들과 당대 큰스님들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이 열린 생각으로 후학 양성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비구니 선방에는 매해 안거 결재 때면 1000여 비구니들이 방부를 들입니다. 강원으로 눈을 돌려도 이러한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각 강원마다 수많은 비구니들이 수행과 함께 공부에 매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유학 등을 통해 한국불교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비구니들도 많습니다.

사회활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구와 동등하게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보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안타까움도 없잖아 있습니다. 비구 중심의 종단 운영에서 오는 차별이 그 중 하나입니다. 비구니로서 종단에서 스님으로서 의무만이 있지 권리는 전혀 없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비구니 승가의 역할에 비해 종단 참여가 그리 활발하지 못해서 회장스님의 선거공약에도 비구니 참종권 확대에 대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 공약 실천의 출발점으로 비구니 위상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토론회인지요?

선거법 개정을 앞두고 비구니 참종권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비구니계의 토론에 교계의 시선이 몰리고 있습니다.

토론은 크게 종단에서 진행 중인 자성과 쇄신을 위한 결사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교단내 비구니 승가 위상 정립, 성평등 교단, 자성과 쇄신 결사의 의미에 대한 비구니계의 진지한 담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구니계는 자성과 쇄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비구니 스님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의지입니다. 한국불교를 변화시키는데 토론 등을 통해 비구니 승가도 적극 참여하자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종단 내에서 비구니 승가의 위상 정립을 위한 것입니다. 올해는 조계종 창종 50주년의 해입니다. 사부대중이 소통과 화합하며 그 속에서 비구니 승가의 역할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비구니 승가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입법 및 연구 활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월에 진행될 임시종회에서 종헌·종법 상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부분이 개정됐으면 합니다.

7~10대 종회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회장 선거 공약으로도 비구니 스님들의 원력을 모아 종단에 종회의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비구니 종회의원 확대는 먼저 비구니 위상 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992년 조계종 제10대 종회에서 비구니 종회의원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당시에는 비구니 의석은 1자리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3명·5명·10명 등으로 점차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계종 내에서 비구와 비구니의 수는 비슷합니다. 수행, 포교현장에서 비구니들의 고충을 종단 내부로 전달하고, 이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구니 의석은 전체의석의 1/8 수준입니다. 사회에서는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과 역량 확대로 국회의원의 1/3을 여성에게 할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흐름이 시사 하는 바가 큽니다. 화합종단을 위해 비구 스님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하며 점차 여성에 불리한 제도나 법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여성들 자체의 의식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비구니 역량확대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데 먼저 수행자 본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승가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수행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출가 수행자라는 마음가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안거 해제 이후 복지관이나 병원에서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 다양한 곳에서 수행정신으로 묵묵히 할 일을 하는 비구니스님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수많은 비구니스님들이 불교계 현장에서 실무를 맡아 원력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비구니스님들 중 법문을 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호스피스 등 사회 곳곳 비구니 활동
"한국 비구니 조직·수행·교육 체계 해외 불교국 부러워 할 정도"
여성 불자들도 함께 '수레축' 되길

교계 언론에서 먼저 비구니 소식란을 만들어서 비구니 스님들의 모습을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구니스님의 활동이 적게 다뤄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비구니 최초로 종립학교 교법사를 비롯해 조계종 상임포교사를 맡으셨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일이었다고 생각 됩니다.

당시에는 조계종 종단이 굉장히 시끄러울 때입니다. 現 종정 법전 스님이 임시 총무원장으로 계실 때였습니다. 이 때만해도 종립학교 교법사는 재가자들이 주로 할 때였습니다. 동국대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명성여고 교법사로 가게 됐습니다. 교법사 활동을 수년간 진행하고 무진장 스님이 포교원장으로 있을 당시 삼성포교원 지광 스님 등과 함께 상임포교사로 임명받았습니다.

이후 포교사 연수교육이 시작됐는데 상임포교사로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포교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어 상임포교사로서 조계사 법당에서 법문을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비구니가 조계사 법당에 선 것은 당시 최초였습니다. 지금으로서도 조계사 법당에서 비구니가 법문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후 일초 스님 등 비구니 스님 몇 분이 수계식 등에서 법문을 했습니다. 이처럼 종단 안팎으로 어려웠던 당시임에도 큰 스님들의 비구니에 대한 열린 마음과 배려가 있었습니다.

전국포교사단에서는 비구니가 부단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부단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거 비구니들의 작은 발자국 하나하나가 지금의 비구니 위상과 연결되는 만큼 지금의 행보도 미래 비구니 위상과 불교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비구니 위상 정립에는 재가 여성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불교여성개발원 5차 108인 선정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활동하는 여성 불자들이 108인으로 선출돼 불법홍포를 서원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개발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체, 현장에서도 우바새 우바이들이 각자 서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잊지 않고 행했으면 합니다.

서로 협조해가며 탁마 상승해 여성 불자와 비구니가 불법의 수레의 바퀴 축으로 힘차게 굴러가는데 일조했으면 합니다.

요즘 세대는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라고 불립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이런 문제가 더욱 와 닿는데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또 불자들에게 지혜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화엄경〉 '야마천궁보살설게품'을 보면 요즘 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좋은 게송이 있습니다.



명우 스님은 … 서산 개심사 성능 스님 문하에서 사교과, 김천 청암사 고봉 스님 문하에서 대교과를 수료했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화사 내원암 등에서 수선 안거한 이래 10하안거를 성만했다. 명성여고 교법사 및 한문교사 역임, 조계종 중앙포교원 최초 상임포교사, 7·8·9·10대 중앙종회의원, 단일계단 특별구족계 갈마위원, 전국포교사단 부단장, 목동청소년수련관 관장,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조계종 특별계단 존중아사리이다.

심여공화사(心如工畵師)
능화제세간(能畵諸世間)
오온실종생(五蘊悉從生)
무법이부조(無法而不造)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능히 모든 세상을 다 그리네.
오온이 모두 마음으로부터 생기면
만들지 않는 것이 없네.

여심불역이(如心佛亦爾)
여불중생연(如佛衆生然)
응지불여심(應知佛與心)
체성개무진(體性皆無盡)

마음과 같이 부처도 또한 그러하면
부처와 같이 중생도 또한 그러하네.
응당히 알라 중생들이여
부처와 마음은 체성이 모두 끝이 없나니라.

우리는 항상 타인과 비교하며 번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불자 여성분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집시다. 어디에 이끌려 따라가기보다 자신을,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씩 돌아봅시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스님! 법당의 엠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POWERED MIXER 앰프

PM-805



스테레오 앰프 300AN


• 高音質 무선마이크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일반형)
◇가격 :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나의서원 나의 신행 〈3〉

삼독심 빼고 보리심 심고 불과佛果 캐자

청소년 포교의 주역 선진규 봉화산 정토원장



선진규 이사장은 … 1934년 김해에서 태어났다. 동국대 불교대학·대학원 수학.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원서 환경공학을 전공했다. 동국대 총학생회장, 전국대학생회장단 의장, 조계종 상임포교사, 대한불교청년회장 등을 역임했다. 88올림픽 10만 유등 기획 홍보실장, 봉화산 청소년 수련원 원장, 청소년 수련시설협회 회장, 경남도 도의원, 조계종 전국신도회장 한민족평화통일전국노인회 회장을 역임했다. 노무현 캠프 전국불교대책위원장, 민주당 전국노인위원장 등을 맡았다. 민주통합당정강정책위원, 한국불교문인협회 회장. 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청소년지도자 표창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원장님 계신 가 가봐라."

"계시면 모시고 올까요?"

"아니다…. 참 좋은 분인데…."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前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던 날, 부엉이바위에 있던 노 前 대통령과 동행했던 경호원의 대화이다. 노 前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찾았던 원장이 봉화산 정토원장 선진규 법사이다.

4월 총선 등을 앞두고 활동차 상경한 선 법사를 2월 조계사 인근에서 만났다.

선진규 법사는 한국 현대불교의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기틀을 잡은 장본인이다.

1959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그는 농촌계몽을 위해 봉화산을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 동문수학했던 도반들과 함께 십시일반으로 돈과 원력을 모아 호미든관음상을 세웠다.

낯선 호미를 든 관음상의 출현은 당시 동아일보·한국일보에 보도됐고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선진규 법사는 1934년 4월 김해 한림면 장방마을서 3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노무현 前 대통령의 생가와 사저가 있는 봉화산 남쪽 기슭 반대편, 봉화산 북쪽 기슭이 선 법사의 고향집이다.

어린 선진규는 스님이 되고 싶었다. 한국전쟁을 통해 동족상잔의 비극을 목격하면서 삶과 죽음의 무상함을 절실히 겪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온 북한군에 맞서 학도병으로 입대해 나라와 가족을 지키려 했지만 가족들의 만류로 여의치 않았다. 그러나 미24사단이 선진규 가족 소유의 과수원에 주둔하면서 그는 군속이 되었다.

당시 선진규의 할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으로부터 손자만큼은 살려보겠다고 손자를 미군부대에 딸려 보냈다. 보급부대와 함께 있으면 후방에 있을 것이고 혹시라도 미군이 철수하면 함께 움직여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부대는 최전방 보급부대였다.

전세가 역전되면서 북진에 북진을 거듭했고, 선진규는 취사반에서 일하며 평안북도 청천강까지 넘기에 이르렀다. 가는 동안 내내 눈에 목격된 것은 불바다와 그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시체뿐이었다.

"어린 나이에 전쟁의 한 복판에 있으며 너무나도 슬프고 가슴 아픈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것이 제가 불교를 택한 이유입니다."

학도병 선진규는 1951년 2월 이승만 대통령이 소년병들은 모두 복귀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전방에 있던 터라 7월에서야 고향으로 돌아왔다.

어린 선진규는 민족끼리 왜 싸우나 싶었다. 이념이 무엇인가 싶었다. 자기 주장을 타인에게 잘 전달하는데 필요하겠다 싶어 웅변을 익혔다. 웅변대회에 나갔지만 처음에는 예선 통과도 힘들었다. 그러나 선진규는 멈추지 않았다. 웅변 연습을 하고 또 했다. 그 결과, 32번 대회에 나가서 17번을 등수에 들었다.

"내가 좀 끈질긴게 있거든."

이 끈질김이 선진규를 동국대 불교학과로 진학시켰다. 그리고 그를 법사로 만들었다. 청소년수련원을 세워 전재산을 탕진했지만 그는 언젠가는 수련원 일대가 불교인재를 양성할 묫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고교 졸업 후 선진규는 스님이 되고 싶었다. 부산공고 토목과를 졸업하고 출가를 위해 무작정 상경해 조계사를 찾았을 때, 권상로 스님(동국대 초대총장)을 만났다.

권상로 스님에게서 "출가를 하려거든 우선 학문을 마치라"는 조언을 들었다.

스님의 조언에 따라 1955년 동국대 불교학과에 진학했다. 박성배 뉴욕주립대 교수가 불교대학 동기다.

"고등학교때 선생님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동국대에 입학했어요. 동국대 불교학과 가는 것이 내게는 출가와도 같았어요. 입학하는데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눈물을 쏟으며 들어간 불교학과였는데, 교내 위상은 바닥이었다. '목탁과'라 놀림 당하고 있었던 것.

불교학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그는 전국웅변대회에 출전했다. 그리고 특등을 했다. 학생들은 모두 놀랐다. 전국웅변대회 수상 이후 달라진 것은 불교대학의 위상만이 아니었다. 선진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불교, 세상 위해 무엇해야 하나
부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고민 끝에 관음보살에 호미 들려
심신·사회·경제·사상 개발 주창

경전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어 학생 선진규는 해인사를 찾았다.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을 올라갈 무렵이었다. 행자생활을 하고 있는데 학교는 난리가 났다. 총학생회장 선출을 두고 4학년 학생들끼리 크게 다투자 당시 백성욱 총장은 3학년 학생을 총학생회장으로 하라는 명을 내렸다. 학생들은 대의원회의를 거쳐 학생 선진규를 총학생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선진규는 학교에 없었다.

그때 학생 선진규는 행자가 되어 해인사에서 〈원각경〉 수업을 듣고 있었다. 수소문 끝에 학생과 교직원이 해인사로 선진규를 찾아왔고, 그를 학교로 데려갔다. 먹물옷 입은 채 그대로.

백성욱 총장을 만나서도 선진규는 경전공부를 해야겠다고 고집했다. 그런 그에게 백 총장이 말했다.

"이 녀석아 머리가 복잡하다고 해인사를 찾았어? 너는 머지않아 해인사의 물·바람 소리가 시끄럽다며 가야산 꼭대기를 찾을 것이고, 그 꼭대기서는 스스로 귀가 시끄럽다면 다시 내려올 것이야. 공부는 내가 시켜줄테니 그냥 나와 함께 있자."

총학생회장 선진규는 그 날부터 6개월간 매일 2시간씩 백성욱 총장에게 〈금강경〉 과외를 받았다. 경전공부도 하고 학생운동도 하며 선진규는 평생의 배필을 만났다.

대학총학생회장 모임에서 당시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던 부인 故 김기업 여사를 만났다. 김 여사는 평생 선진규 법사 곁에서 내조했다.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국장, 서울시 부녀아동과장 등 요직에서 목동청소년수련관 등 불교계 시설위탁에 큰 묫을 한 여성불자이기도 하다.

선진규가 총학생회장을 하던 당시는 학생운동도 활발했지만,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로 삶이 궁핍한 때였다. 졸업을 코앞에 두고 선진규는 고민했다.

'우리 불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럴 때 부처님은 어떻게 나타나실까?'

청년 선진규의 고민에 함께 공부하던 학생들이 마음을 보탰다. 1959년 호미든 관음상이 봉안됐다. 심신·사회·경제·사상개발의 4대 개발도 함께 부르짖었다.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불러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하물며 중생구제의 원을 세운 부처님이 호미를 들고 민둥산 정상에서 개발을 위해 서 계신다면 그 원이 이룩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토원 관음상은 호미를 들고 있습니다."

민둥산이던 봉화산 꼭대기에 호미든 관음상이 봉안됐을 때, 당시 중1이었던 노 前 대통령도 식목행사에 참여해 관음상 주위에 나무를 심었다.

선진규 법사는 "노 前 대통령이 '일부러 부처님 근처에만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었다'고 정토원에만 오면 이야기를 하곤 했다"고 말했다.

봉화산의 유래에 대해 선진규 법사가 말했다. "옛날 가락 때(가야국) 왕족의 번영을 위해 지은 암자가 세 곳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김해 무촉산 모은암(母恩菴)과 양산 인근 부은암(父恩菴)이 왕비와 왕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한 태자암(太子菴)이 있던 곳이 봉화산이었어요."

선진규 법사는 예전엔 봉화산이라고 안 부르고 태자암이 있다고 해서 자암산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이 봉오산이라 부르는 것을 1962년 전국적으로 측량조사를 할 때 선 법사가 건의해 봉화산이라고 이름하게 했다. 뒤편에 봉수대가 있기도 했지만 호미든 관음상을 통해 주창했던 4대개발의 횃불을 높이 들자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선진규 법사는 "종교는 국경이 없더라도 종교인은 국경이 있어야 합니다. 중생의 부름에 답하지 않는 종교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호미든 관음상이 봉안되자 불교계서 말이 많았다. 비구·대처 싸움 속에 서로 이를 두고 또 다툼이 벌어졌다. 청년 선진규는 불교계에 "천수천안 관음보살이라는데 그 손에 호미만 들었겠느냐"라고 설명했다.

호미든 관음상을 봉안하고 이듬해 4·19혁명이 일어났다. 10년 후에는 새마을운동이 시작됐다.

"새마을운동을 지휘한 김준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임명을 받았다며 봉화산에 왔어요. 그 분은 비서들 다 보내고 이곳에서 1주일 동안 정신적 충전을 하겠다고 했지요. 이곳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0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2월중

◆ 개강일시 : 2012년 2월 개강. 매주 (화,목)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출강 및 통신 2012학년도 제 21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21년 법사양성 연륜과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2학년도 제21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불교법사 자격과 기회
만족을 성취하여
보십시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④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02)733-1959
720-1836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 불교석학과정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교육기간	· 법 사 과 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교과목 및 범음·범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 불 교 석 학 과 정 = 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2년 2월 24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 051-466-1959)·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법복을 입은 선진규 법사. '앉지 않고 서서 선 법사'라는 그의 말처럼 부지런하게 평생을 포교에 매진해 왔다.



봉화 정토원 호미 든 관음상

서 개발의 기운을 체득하고 갔습니다."

선진규 법사는 노무현 대통령도 호미든 관음상의 위신력으로 당선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규 법사는 "부처님 가르침은 영원해야 한다. 정지돼 있으면 죽은 것이다"라며 "호미든 관음상은 중생의 탐진치 삼독심을 빼고 보리심을 심고 불과(佛果)를 캐자는 의미를 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봉화산 정토원은 1920년대 자암사라 불리던 작은 암자였다. 선진규 법사가 할머니를 따라 어릴 때부터 찾던 절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자암사는 화일사로 이름을 바꿨다.

청년 선진규는 졸업 후 백성욱 총장의 도움을 받아 봉화산 화일사를 봉화사(現 정토원)로 바꾸고 농촌계몽운동을 시작했다.

"불교에서 마음과 육체가 깨끗하고 주위 환경이 깨끗하며 생사가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을 정토라고 합니다. 불교의 최고 이상세계를 극락정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토원이라 이름했습니다."

청년 선진규는 불교의 이상 세계를 현실에서 구현하고 싶었다. 원(苑)이라고 한 이유는 부처님 당시 녹야원이라는 곳에서 설법을 많이 했는데 불법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이를 인용했다. 또 어감상 좋아 그렇게 지었다는 것이 선진규 법사의 설명이다.

토지 11만5703㎡(35000평), 35만원을 지원받아 창건된 봉화사는 본격적인 농촌운동의 산실이었다. 봉화사에서 선 법사는 1967년 사명대사와 만해스님상(像)을 세웠고 1972년 조계종 중앙 상임포교사로 발탁됐다.

"12명이 신청해 4명이 초대 포교사가 됐는데, 첫 월급이 쌀 한가마니 값도 안되는 거에요. 함께 포교사를 하던 무진장 스님 등은 스님이니 그렇고…나는 처자식이 있는데 그것으로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그래도 버텼어요."

포교사 선진규를 버티게 한 것은 '끈질김'이었다. 배고파서 그만 뒀다는 소리라도 들으면 다행일텐데, 재가자를 포교사로 뽑아놓으면 (근기가 약해) 금방 나간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였다.

선진규는 조계종 상임포교사로 23년간 열심히 포교활동을 펼쳤다. 당시 무진장 스님이 332회 법문을 했고, 선진규가 그 뒤를 이어 280회를 했다. 포교사 선진규가 주로 다닌 곳은 교도소 · 청년회 등이었다.

조계종 상임포교사 1호로 활동
50년간 교도소 · 청소년 포교
봉화 정토원 청소년 수련원 건립
"학교 폭력 해결 불교계 나서야"

선진규는 16개 지회였던 청년회를 결집해 240개로 확장시켰다. 그리고 청년대회를 시작했다. 당시 만해탄신 100주년, 3 · 1운동 60주년에 맞춰 만해백일장도 만들었다. 첫 찬불가 LP판도 제작해 포교에 활용했다. 10 · 27법난을 세상에 알리는데 적극 나섰고 한일불교청년회 교류협정 체결 등 한국불교 국제화에도 뒤지지 않았다.

"개신교의 YMCA에 버금가는 시 · 군 · 구 단위까지 불교청년회 지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못했지요. 안타깝습니다."

청소년 포교를 위한 그의 열정은 1990년 봉화산 임야를 담보로 청소년수련원을 짓기에 이른다. 원력만으로 거침이 없었던 그는 한달 5부 이자를 물며 사채를 끌어다 썼다.

"망할 수 밖에 없었어요. 사채 이자를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선진규 법사는 "내가 아니더라도 불교계가 경매로 날린 24만평을 되찾아 청소년 도량으로 일궈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4만평을 날렸지만 선진규는 좌절하지 않았다.

청소년지도자 자격을 얻어 전국청소년지도자협의회를 구성했다. 만학으로 창원대 환경공학과에 진학해 '청소년 환경 윤리관 확립의 연구' 주제의 논문을 발표해 청소년 문제를 남들보다 진단해 온 전문가이기도 하다.

2000년 한국청소년수련협회장을 역임하면서는 "전국 공 · 사설 수련시설이 청소년의 심신 건강과 인성교육의 장으로 거듭나야한다"고 주장했다. 예절서당 프로그램을 창안해 전국 순회 예절 교육을 주도하기도 했다.

특히, 88올림픽 때에는 기획홍보실장을 맡아 불교문화 콘텐츠인 유등을 이용해 10만 유등 문화행사를 열기도 했다.

선진규 법사는 얼마 전 시인으로 등단하기도 했다. 그 이전부터는 노무현 대통령을 인연으로 민주당 노인위원을 8년째 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불교 이야기만 나오면 나를 쳐다본다. 나같은 사람이 여 · 야를 막론하고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야 불교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선 법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49재를 정토원에서 봉행한 것도 국민들로부터 불교 이미지를 높이는데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진규 법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던 내가 불자이고 포교사인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선진규 법사는 "한국불교에서 절 짓는 불사는 그만하면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는 인재 키우는데 매진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지금도 정토원에서 소임보고 봉사하는 출 · 재가자에게 장학 혜택을 주고 있는 선 법사는 "앞으로 엄청난 숫자의 청소년이 봉화산 정토원 수련원을 찾아 불교를 전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 이슈화된 청소년 문제에 대해 선진규 법사가 말했다.

"교육이 중요합니다. 불교적 소양을 가진 교육이 됐다면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아파하고 남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불교계가 청소년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사찰마다 한명씩이라도 청소년을 키워야 합니다."

선 법사는 청소년 문제 해결방법으로 템플스테이를 제안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방관 말고 속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규 법사는 대중의 부름이 있다면 4년 정도 대사회활동을 계속 펼칠 계획이다. 그러나 부름이 없다면 바로 보림에 들어가 바깥으로 향했던 자신을 수렴하며 회향할 생각이다.

"정적인 수행은 저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적인 수행이 맞으니 지금까지 평생 포교를 해왔겠지요? 제가 누굽니까? (앉은 법사가 아닌) 선 법사입니다. 앞으로도 포교사로서 끈질기게 살아갈 겁니다."

글=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피안의 향기



동국대 선학과 교수

어느 경우 사람이 어리석다. 그 어리석은 짓이라고 치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타인을 따르고 모방하고 맹종하는 것이 아닐까. 타인의 눈으로 보고 타인의 지식을 맹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배운 사람일수록 지식을 되풀이 하는 앵무새가 되고 녹음기가 된다. 녹음기는 아주 능숙하게 되풀이 하지만 대뜸 책에 없는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어찌할 바를 모른다. 배운 사람에게는 지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지성이란 순간순간 변하는 삶에 반응을 보이는 능력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선종사를 일별하다 보면 영우 선사가 제자 향엄과의 대화에서 지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어느 날 영우 선사는 경전만 읽고 있던 향엄이 걱정이 되어 조용히 제자의 방문을 두드렸다. 여일하게 글을 읽고 있던 향엄은 경전의 내용이라면 뭘 모르는게 있을까 자신만만해 스승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때 스승은 "향엄아, 부모님으로부터 향엄이라는 이름을 받기 이전의 네 모습은 무엇이냐(父母未生前 本來面目)"라는 질문을 던졌다. 스승의 질문에 앞뒤가 꽉 막힌 제자는 마침내 평소에 공부하던 책을 모두 불살라 버렸다. '이생에 불교를 공부해 깨치는 것은 이제 그만두고 후원에서 대중 시봉이나 하며 지내야겠다'고 다짐하고 스승 곁을 떠났다. 물론 그는 후일 돌멩이가 대나무에 부딪치는 소리가 기연이 되어 크게 깨칠 수 있었다.

이번에 정년을 맞아 〈최현각 선학전집〉 10권을 세상에 선보이게 되었다. 그 전집 11권에는 연보가 들어있다. 그 속에 정각원 소임을 볼 때 촌음을 아껴가며 그린 그림으로 '소묘 I'이란 작품이 있다. 작품 속에는 안개꽃과 장미 한 송이가 꽂혀 있다. 오랜만에 보는 그림이라 눈길이 오래 머무르기도 했지만 다른 연유가 있다. 우리는 장미꽃을 볼 때도 장미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상념이 스쳐갔기 때문이다. 책 속에서 읽는 장미, 시인들이 노래한 장미, 화가가 그린 장미 등을 본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지식과 정보와 기억이 눈을 가리고 말았다. 단순한 장미꽃조차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기억과 정보의 홍수로 인해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나 머릿속에 기억된 말을 되풀이 한다.

"장미꽃은 아름답다." 이 말은 가슴에서 나오는 진실한 말이 아니다. 누군가로부터 주워들은 말을 녹음기처럼 재생하고 있는 것이다.

배우겠다는 것은 겸손하겠다는 뜻이다. 그 행위에는 향기가 있다. 예사로운 향기가 아니라 피안의 향기다. 배움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에고를 내려놓겠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창공을 나는 새는 여전히 노래를 부르지만 인간은 노래를 잊어 버렸다. 구름이 하늘을 떠다니고 공작이 춤을 추지만 인간은 춤을 알지 못한다. 나무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만 인간은 생각할 뿐, 나무의 성능을 높이고 대량생산하는 불구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피안의 향기에 취할 수 있는 묘약이 있다. '금으로 만든 부처님은 용광로를 통과할 수 없고, 나무로 만든 부처님은 불을 통과할 수 없으며, 흙으로 빚은 부처님은 물을 건너지 못하지만, 참 부처(眞佛)는 속에 앉아 계신다'고 〈전등록〉 제28권에 조주 선사는 밝히고 있다. 이어서 '보리 · 열반 · 진여 · 불성은 모두가 몸에 걸친 의복이며 번뇌라고도 하니 남에게 묻지 않으면 번뇌가 없다. 한 생각이 나지 않으면 만법이 허물이 없으니 그대는 오직 이치를 궁구하기 위해 앉아 보아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

지식 · 정보 · 기억에 눈가려져
실체 못보고 남의 말 되풀이만
가장 가까운 눈썹 못 보듯
진불 · 피안의 향기 느끼지 못해

는 어리석은 중생이다. 우리의 눈은 사물을 보는 기능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속눈썹을 보았다는 사람은 없다. 가까운 것은 쉽게 잊기도 하고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눈에 보이는 금불(金佛) · 목불(木佛) · 니불(泥佛)은 잘 보인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내면의 세계에 있는 진불은 보기가 어려워 망각하고 살기 마련이다.

이따금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도 하지만 신통한 답을 얻지 못하고 이내 일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화장품의 향기는 유한하기에 일정한 시간 동안만 그 기능을 한다. 아무리 좋은 세계적인 향수라 해도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가지에 움트고 있는 새싹을 보는 것도 피안의 향기다. 동토를 밀어내고 대지에 푸르름을 안겨 주는 것도 피안의 향기다.

그 고매한 향기를 대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각자의 마음 속에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진불의 향기가 넘치고 있음을 오롯이 알아야 한다.

바로 그 그리운 피안의 향기는 가장 가까이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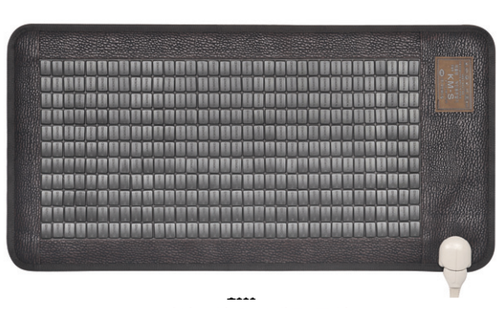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귀사문석(貴蛇炆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09-651호입니다

인간의 기본 체온은 36.5℃인데 1℃ 떨어지면
저체온(冷氣)이 되어 면역력이 30%↓ 된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 두한족열(頭寒足熱) : 머리는 차갑게(귀사문석 베게 발은 뜻하게 (귀사문석 온열매트)
※ 낮에는 의자나 쇼파에, 밤에는 침대나 요 위에 놓고 하루 24시간 찜질을!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 제 조 원 : (주)국민메티컬 / 경기 양주시 율정동 115번지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광명시 광명7동 305-50
■ 문의전화 : 02)2681-8122 선재생활건강(주)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귀사문석(貴蛇炆石) 이란???

귀사문석은 흑녹옥이라고도 하고, 비취라고도 하는 아주 희귀한 보석이다.
귀사문석은 의학적인 면에서 볼때 다음과 같은 효능이 있다.
1. 원적외선 방사율이 아주 높다 : 귀사문석을 약 40℃의 열을 가하였을 때 원적외선이 93%이상 방사 된것이 증명되었다.(한국 건자재 시험연구원, 원적외선 응용평가센터에서 테스트한 결과)
2. 귀사문석은 氣를 잘 돌게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존의 옥보다 3배이상의 많은 氣가 방출되는 천연의 강력한 방사체이다.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귀사문석은 그 대체효과가 매우 높다.
3. 귀사문석은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항균효과는 86%에 달한다. 또한 귀사문석은 냄새 제거능력이 있는 신비한 광석이다.

온열매트의 의학적 효과

건강한 사람의 평균 체온은 섭씨 36.5℃이다. 그런데 1℃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30% 떨어진다. 즉 냉증 또는 저체온이 되면, 자율신경중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가 줄어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특히 체온이 35℃로 내려가면 암세포가 증가할 수가 있다. (우리 신체에선 매일 3천개-1만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면역력 덕분에 암에 걸리지 않는다) 냉증(冷症) 즉 저체온이 되면, 그 증상으로 손과 발이 저리고 무릎이 시리다. 그리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찬 음식을 먹으면 설사로 고생도 한다. 또한 당분, 지방 등 영양소의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 몸은 지구를 세바퀴나 돌 수 있는 9만km의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적혈구가 엉기는 현상은 저체온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세포 안에 충분히 열이 전달되도록 하면 적혈구의 엉김현상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실제로 원적외선을 이용해 신체 내부까지 골고루 열을 가하면 즉시 엉켜 있던 적혈구들이 원상회복 된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 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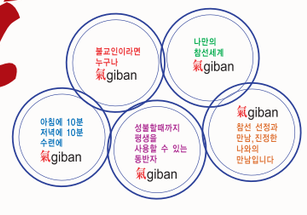


귀사문석 온열매트와 귀사문석 베게를 함께 드립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중앙불전 · 혜화전문 · 중앙승가대 있던 도량

근 · 현대 승가교육의 산실 개운사

승가교육 발전시킨 학문의 전당
박한영 스님 불교계 인재 양성 주력
서정주 등 기라성 같은 문인 배출
20년간 중앙승가대 뿌리 내린 곳


불교교육을 발전시킨 대강백 석전 박한영 스님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사였던 개운사 대원암

개항 이후 한국사회는 다양하게 변화했다. 가장 빠르게 변한 것은 의식주이다. 기본이 변화된 다음 관심을 갖는 것은 서구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학문이었다. 서원에서 이루어지던 한학은 신학문을 배우는 학교로 빠르게 변모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본 불교계도 한 사찰에서 참선과 간경 그리고 염불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삼문수업(三門修業)에서 벗어나 시대에 맞는 교육을 도모했다.

한국불교에 있어 근 · 현대 많은 선지식들은 승가교육을 강조했다. 많은 개혁론에서도 승가교육은 빠지지 않고 거론됐다. 왜 그들은 그렇게 교육을 강조했을까? 현재 타종교의 교세가 그들의 교육적 바탕에서 비롯됐음을 볼 때 답은 자명해진다. 향후 불교의 성쇠 역시 승가교육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근대 불교교육이 시작된 곳은 원흥사였다. 이곳은 1899년 한국불교를 관리하던 대본산이 있던 곳이다. 그 역할이 유명무실해지자 1906년 불교연구회에서 이곳에 명진학교를 세웠다. 불교인들의 염원으로 세워진 근대적 교육기관이었던 탓에 교계의 기대를 받았다. 처음 신입생을 뽑을 때도 전국 중법산 사찰에서 대교과(大教科)를 마친 자만이 추천을 받아 입학했다. 까다로워 조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생각이 있어도 진학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과정을 이수한 상태에서 입학했기 때문에 교육수준은 상당히 높았다.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신학문을 교수해 포교인재를 양성하려 했기 때문에 불교관계의 과목보다는 일반학과 과목의 비중이 컸다. 이와 함께 직제는 물론 강의도 학기나 교과목에 따라 수시로 전공에 맞는 강사가 초빙됐다. 그리고 사회명사가 특강에 초빙돼 교육적 질이 우수했다. 학업과정도 상당히 어려웠던 까닭에 소수의 정선된 졸업생만이 사회에 배출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여기에서 배출된 사람들 가운데 한국불교의 모순을 척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됐고, 그러한 사상이 불교를 근대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다. 이후 명진학교는 교단의 변화에 따라 불교사범학교, 1914년 고등불교강숙, 1915년 중앙학림, 1928년 중앙불교전수학교, 1930년 중앙불교전문학교, 1940년 혜화전문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근대 불교교육을 시작한 곳이 원흥사라면 불교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켜 사회적 위치를 높인 곳은 개운사였다. 이곳이 교육의 장이 된 것은 석전 박한영의 영향이 크다. 불교계의 대강백으로 박학함이 당대의 최고였다. 독립선언서를 썼던 최남선은 "나는 누구에게도 물어볼 것이 없는데, 석전에게는 물어볼 것이 있다"고 했다.

석전은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이 되자 불교계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했다. 중앙불전 교사가 바로 개운사 내 대원암이었다. 이곳에서 능력 있는 인재들을 데려다 불교계 동량으로 키워냈다. 특히 문학에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많았다. 서정주, 조지훈, 김달진, 조종현 등 광복 후 우리 문학사에 한 획을 끗던 기라성 같던 문인들이 개운사 중앙불전에서 석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가운데 미당 서정주와는 남다른 관계에 있었다. 그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으로 퇴학당하면서 방황했다. 석전은 그를 중앙불전 학생으로 불러들여 시인으로 키웠다. 그래서 서정주는 석전을 "내 뼈와 살을 데워준 스승"이라고 부르며 평생 존경했다.

이렇게 근대 불교교육에 있어 많은 역할을 한 개운사는 혜화전문학교 이후 교육의 장에서 멀어졌다. 개운사는 다시 평범한 사찰로 돌아가는 듯 했지만 한번 맡은 시대적 사명은 계속됐다. 다시 현대 승가교육의 장이 되어 많은 수행자를 배출한 것이다.

광복 후 많은 사람들이 불교계의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그 가운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남다르게 노력한 분이 성철과 청담이었다. 성철은 한국불교의 난제인 승가교육을 해결하기 위해 승가대학의 설립을 제시했다. 그는 어느 불사보다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다가오는 경쟁사회에는 수행자가 강원을 졸업한 것만으로는 사회적 지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예견한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사찰의 강원을 국가가 인정하는 대학 과정으로의 승격이었다. 성철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상함으로써 자신의 염원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첫째, 사미 · 사미니계의 수계 대상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해야 한다. 고졸 이하의 학력 소지자가 절에 왔을 때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절에서 이수시킨 다음 사미 · 사미니계를 받도록 한다.

둘째, 사미와 사미니계를 수계한 자는 문교부에서 공인 받는 4년제 승가대학을 설립하여 입학시키고 철저히 공부를 하도록 한다. 승가대학을 졸업한 후, 각기 능력과 취미에 따라 종무행정도 하고 참선도 하고 포교도 한다.

마지막으로 승가대학의 교육은 지행합일의 철저한 신행 교육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것은 승가의 교육에 있어 철저한 신행 교육이 없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됨을 알고 있었다.

성철 못지않게 승가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 청담이었다. 그 역시 도제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승가대학의 설치를 제시했다. 그것은 현행 강원과 선원의 제도와 동떨어진 제도가 아니라 현재의 교육체제를 개조해 성불할 수 있는 수행자와,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스승을 배출할 수 있는 승가학원으로의 변신이었다.

그런 승가학원의 교과과정은 종래의 방법을 탈피해 불교일반에 대한 이론 영역, 참선과 염불과 예불, 독경 등의 수행적 영역, 문화사회적 정책 문제에 대한 불교정책의 실천 영역에 알맞은 교과 과정으로의 개편이었다.

세부적인 방법으로 강원과 선원을 현대적인 제도와 교과 내용으로 한 승가학원을 고등부 정도의 수준으로 높인 후 대학 과정으로 전환하고 이곳을 졸업한 학생에게 비구계를 주는 방안이었다. 그리고 이곳을 졸업해야 대학원 과정의 초등선원이나 본말사의 종무직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최후의 박사과정인 고등선원을 설치하여 종단의 지도자급을 배출하자고 주장했다.

종단 역시 승가교육에 관심을 기울였다. 1965년 9월 '한국불교 11대 과업'에 포함될 만큼 비중 있게 다루면서 승가대학 설립을 위해 노력했다. 1968년 7월 10일 총무원은 승가대학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나 구체적으로 실행되지는 못했다. 그 후 1969년 7월 제20회 종회에서 중앙교육원의 설치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의해 1971년 10월 7일 조계사에서 제1기 교육으로 60명의 수강생을 한 달 동안 교육했다. 그리고 교육목표도 급변하는 사회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승려재교육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성과를 거두기는 너무 미흡했다.

이후에도 승가대학의 설립은 꾸준히 논의됐다. 1976년 12월 제 45회 중앙종회에서 승가대학추진위원회가 설립돼 장소와 운영자금 등을 논의했으나 설립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 후 1979년 2월 24일 의정부 쌍룡사에서 청년 승려들이 중앙불교승가학원을 시작하면서 승가대학의 첫 여정을 열었다. 이후 3월 18일 승가학원은 서울 돈암동의 보현사로 옮겨 연수부와 교양부를 둔 2년제로 시작했다. 1980년 학교명을 중앙승가대학으로 개칭하고, 12월에 구의동 영화사로 학사를 이전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은 승가교육이 제자리를 잡은 것은 1981년 개운사로 학사를 이전하고 이곳에서 20년간 승가교육의 체계가 세워진 이후이다. 개운사로 옮긴 승가대학은 1989년 7월 각종학교 인가를 취득해 정규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됐다. 1990년 신입생부터는 정규 대학에 준하는 학력인정을 갖추고 일반대학에 걸 맞는 학제와 교육내용, 교육시설 등을 구비했다. 마지막으로 1996년 12월 11일 교육부로부터 정규대학의 인가를 취득함으로써 승가교육의 염원을 이뤘다. 20년간 승가교육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보듬어준 개운사는 2001년 1월 승가대학이 김포로 옮겨지면서 다시 도심의 조용한 사찰로 돌아왔다.

개운사 승가대학에서 배출한 졸업생이 대략 천여 명에 가깝다. 이들이 한국불교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음을 볼 때 개운사는 평범한 사찰로 보일지 몰라도 수많은 졸업생에겐 학문의 전당으로 남을 것이다.

김경집/진각대 교수

화제의 신간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정가 380,000원

3천권 돌파
1주년기념
50% 파격세일
정가 380,000원
180,000원

입금계좌(예금주: 임현주) : 농협 023-02-500940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듣지 않습니다. 귀신도 꾀가 많아지고 약삭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41) 943-6882 / 010-3813-4443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정가(권당) 120,000원
권당 60,000원

(上) 신국판/양장본/567쪽 (下) 신국판/양장본/712쪽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절실하고 굳세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루를 살아가는 최선의 일이다. - 법구경 -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찰스님 20%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2012년 나가는 삼재조심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묵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접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스님 20%할인)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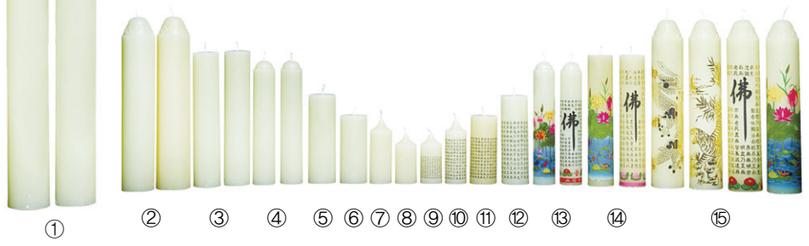
New 신제품 흑룡초



흑룡초로 소원성취 기도 하십시오
임진년은 흑룡의 해 입니다

크기 ∮7.5 × 29cm

강화사자밭약쑥양초



① 약쑥초 90cm ×90㎝ ② 약쑥초 연봉 원기둥 7.0∮×34㎝ ③ 약쑥초 돈타레 5.6∮×27㎝
④ 약쑥초 밀대 4.7∮×25㎝ ⑤ 약쑥초 1호 5.9∮×18㎝ ⑥ 약쑥초 2호 5.9∮×14㎝
⑦ 약쑥초 3호 4.7∮×13㎝ ⑧ 약쑥초 4호 4.7∮×10㎝ ⑨ 약쑥초 4호 반야심경 4.7∮×10㎝
⑩ 약쑥초 3호 반야심경 4.7∮×13㎝ ⑪ 약쑥초 2호 반야심경 5.9∮×14㎝ ⑫ 약쑥초 1호 반야심경 5.9∮×18㎝
⑬ 약쑥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약쑥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한봉밀납양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밀납초 90cm ×90㎝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34㎝ ③ 밀납초 돈타레 5.6∮×27㎝
④ 밀납초 밀대 4.7∮×25㎝ ⑤ 밀납초 1호 5.9∮×18㎝ ⑥ 밀납초 2호 5.9∮×14㎝
⑦ 밀납초 3호 4.7∮×13㎝ ⑧ 밀납초 4호 4.7∮×10㎝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10㎝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13㎝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14㎝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18㎝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제조-삼환양초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이 한 몸 불살라 불국토 이루리

금동약왕보살좌상(金銅藥王菩薩坐像)


동화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금동약왕보살좌상

높이 27cm, 최대폭 13cm의 이 작은 보살상은 대구 동화사의 전래유물이다. 2009년에 국립대구박물관에서 발간된 팔공산(八公山) 동화사(桐華寺) 도록에는 사명대사(四溟大師)의 다른 유물과 함께 분류되어 있다.

사명대사의 다른 유물이라고 전해지는, 황동으로 된 금강령(金剛鈴)과 금강저(金剛杵), 영남도총섭인(嶺南都摠攝印)등도 함께 있어서 아마 사명대사의 유물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하는 중요한 보살상이다.

〈법화경(法華經)〉 약왕보살본사품(藥王菩薩本事品)에 의하면, 오래 전에 약왕보살은 일월정명덕불(日月淨明德佛) 밑에 일체중생희견(一切衆生喜見)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보살님이었다. 약왕보살은 오랜 고행 끝에 자유자재로 화

사명대사 유물로 추측되는 작품
스스로를 태워 세계를 비춘 보살

신할 수 있는 현일체색신삼매(現一切色身三昧)를 얻었다 한다.

그리고 나서, 갖가지 종류의 향을 먹고, 몸을 향처럼 만들어서, 스스로 몸에서 불을 내어서 소신공양(燒身供養)을 하였다. 그 몸은 1200년 동안 80만억 항하사(恒河沙)의 세계를 비추어서 여러 부처님들로부터 참다운 법공양이라고 찬탄을 받았다고 한다.

그 후에도 8만4000 탑을 세우고, 그 앞에서 두 팔을 태워 공양을 올렸다. 불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보살님은 〈약사경(藥師經)〉에 의하면, 팔대보살(八大菩薩)에 들기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보살님이시다.

보물 139호로 지정된 월정사(月精寺) 석조보살좌상(石造菩薩坐像)과 보물 제84호인 강릉 신복사지(神福寺址) 석불좌상도 약왕보살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탑을 공양하고 있는 모습에서 추측한 것이다.

1960년대 초에 베트남에서는 정부가 불교를 탄압하자 석광덕(釋廣德) 스님을 비롯한 36명의 승려들이 당시 수도인 사이공의 거리에서 많은 이들이 보는 가운데서 분신한 사건이 있었다. 그 스님들은 불교를 구하기 위해서 소신공양을 올린 것이었다. 그 후 독재정권이었던 베트남정권은 망하고 말았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3년 동안 무문관(無門關) 수행을 마친 수좌인 문수 스님이 4대강 사업을 즉각 중지 폐기하고,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焚身)한 일이 있었다.

이 몸을 불살라서 부처님과 불국토를 위한 공양을 올리기는 보통 불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수계식을 할 때, 향 일주를 가지고 몸에 살짝 대어 아주 작은 점 같은 연비를 찍을 때도 몸을 사리는 불자들을 가끔 보는데, 몸 전체를 태우는 것은 실로 무모한 짓처럼 보인다.

어쨌든 진정한 소신공양은 탐진치(貪瞋痴) 삼독(三毒)을 태우고, 업장을 태우고, 번뇌를 태우는 일이 아닐까 한다. 어차피 수행이라는 것은 신심(身心)을 모두 태워 없애서 일체의 업을 소멸하는 데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지나간 실수와 죄업을 모두 태워버리고 불사조처럼 새로 태어나고 싶기도 하다.

며칠 전 중국의 탄압적인 티베트 지배에 항거하는 민주화 시위에 티베트 스님들 중 23번째로 비구니 스님 한 분이 분신했다. 부디 시원한 극락세계의 연지(蓮池)에 아름다운 연꽃 위에 화생(化生)하셨기를 빈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흙과 불은 도예가의 위대한 스승"

설봉 스님 도예전
28일까지 포스코 갤러리서

"이 거친 손으로 내 어이 너를 빚었으랴!/ 이 어두운 영혼으로 내 어이 너를 구웠으랴!/ 어둑한 가마 속에서 처음 너를 본 순간/ 내 심장의 박동은 멎었지만/ 너의 싱싱한 숨소리가 가마 속 정적을 깨우고 있었다./ 굳은듯 떨리는 두손이/ 감히 너를 만져 보지도 못하고/ 넋을 풀어 놓고 주저앉아 있을 때/ 너는 한 점 더러움 모르는 하얀 가슴으로 나를 안고/ 혼탁한 세상 점잖게 밀치며 가마 밖으로 나왔다.…(생략)" (설봉 스님의 '백자앞에서' 중에서)

30여 년간 도자기를 빚어 판매한 수익금으로 군 장병과 어린이 포교에 매진해온 설봉 스님이 2월 28일까지 포항 포스코갤러리에서 '마음으로 보는 도예전'을 연다. 설봉 스님은 황학산 토향암의 달빛을 느낄 수 있는 도자기 100여 점을 선보인다.

설봉 스님은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세계적'이라는 신념으로 백자의 전통을 이어 오면서 재유약(밤나무나 고령토 등을 태워 그 재로 만든 유약) 개발에 몰두해 천연재료 고유의 신비로운 색상을 재현해냈다.

'설중매' '별이 쏟아지는 해변' '헌다잔' 등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전통 달항아리 표면에 시·연꽃 등을 조각한 것이 특징이다. 스님은 도자기 하나하나에 시제(詩題) 같은 이름을 붙이고 재유약의 특성대로 명주처럼 부드럽고 은은한 매력을 발산시켰다.

경남 김해 출신인 설봉 스님은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뒤 신상옥 감독의 연출부에서 감독수업을 하며 영화인의 꿈을 키워왔다. 그러나 해외촬영을 위해 여권을 신청했다가 부친이 남로당 간부라는 이유로 연좌제의 희생양이 돼 꿈을 접었다.

29세에 출가해 경남 은하사에서 참선수행을 시작한 설봉 스님은 1970년대 초 서울 신길동에 '무애원'을 설립하고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며 봉사와 포교활동을 펼쳤다.

스님은 '무애원어린이민속공연단'을 구성해 군 포교를 하고, 군인을 위한 일요법회를 여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강화도 가마터를 소개받아 1992년 '무애원'을 강화로 옮겼다.

100평의 작업장에서 스님은 도예작업을 본격화했다. 매주 일요일마다 절을 찾는 장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일요법회를 보러 오는 장병들을 위해 군법당 '기룡사'도 건립했다.

2009년 11월 강화의 시설을 해병대에 기증하고 경북 칠곡에 자리를 마련한 스님은 칠곡의흙과 돌로 개발한 유약으로 작품활동을 해오고 있다.

스님의 작업장 '토향암'은 납골당 용도로 지었다가 여러 사정으로 방치돼 있던 3층 건물을 수리해 법당과 다도생활관, 도자기전시관으로 꾸미고 도예체험객을 위한 요사채도 갖추었다.

이곳에서 스님은 '흙내음 도예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수백점의 작품들을 대문과 담벼락도 없는 노천에 전시했다는 것이다.

스님은 "노천전시를 시작한지 2년이 지났지만 작품을 훔쳐간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 사람의 마음이 아름답다"고 말했다.

"수십년을 흙을 만지고 불을 때면서 작품을 만들어 왔지만 지금도 새로운 작품을 만들려면 불앞에서 혹은 흙 앞에서, 때로는 바람과 물이나 돌 나무들까지도 위대한 스승이라 생각이 듭니다."

실패의 연속에서 어쩌다 뛰어난 작품을 만나면 도예의 재료를 아낌없이 준 자연에게 감사하고, 자신이 만든 생각은 추호도 없어지는 것이 도예인들의 생각이다. 설봉 스님도 마찬가지다.

설봉 스님은 "자신의 예술적 한계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달라고 애걸한다"며 "자연 속에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하게끔 도우미 역할을 한 내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않고 영혼을 다 태워 불이되고 육신을 다 태워 흙이 될 때까지 쉬지않고 도공의 길을 갈 것을 다짐하겠다"고 말했다. 설봉 스님의 이번 전시회 판매 수익금 역시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054)220-1067 이나은 기자


100여 점을 전시한 설봉 스님은 판매 수익금을 소외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봄의 이름으로


별이 쏟아지는 해변

월정사성보博, 3월4일 불교문화대학 개강

문화반 · 민화연구반 모집

월정사성보박물관(관장 원행)은 3월 4일 문화반 · 민화연구반을 개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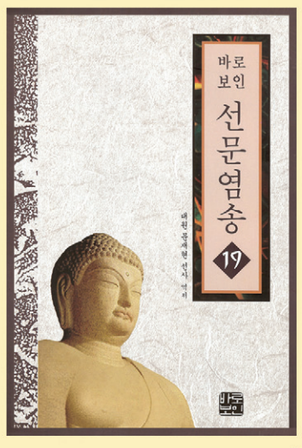
문화반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교문화와 우리역사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준비된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 불교문화에 대한 이론 강의와 현장 답사를 겸한 강좌를 월 2회 개최한다.

문화반 수강생은 수덕사 · 송광사성보박물관 등 사찰박물관을 비롯해 태안 마애삼존불, 경주남산 칠불암 등 불교문화유산지를 답사하게 된다.

민화연구반에서는 민화그리기를 통해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온 우리 선인들의 자취를 배우게 된다. 전국민화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오인효 작가가 민화에 대한 개론을 비롯해 까치호랑이, 모란도, 연화도 등을 강의한다.

교육은 12월까지이며 수강료는 문화반은 학기당 10만원(답사비 별도), 민화연구반은 학기당 30만원이다. 접수방법은 월정사성보박물관(www.woljeongsamuseum.or.kr)에서 양식을 받아 월정사성보박물관으로 접수하면 된다. (033)339-6633~6 이나은 기자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9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중 19권 출간!
홍화선사, 관계선사, 설봉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바른불교

다라니 수지자는
광명의 깃발
신통의 창고!


법공양시 특별 할인!
다라니 수행
신묘장구대다라니경 강설
일산법상 지음
신국판 | 컬러 | 344쪽
2012년 1월 25일 발행
15,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불자들이 가장 애송하는 신묘장구대다라니!
그 첫 수행지침서이자 '긍정의 힘' 사용설명서
수행중에 '아공(我空)'을 체험한 덕양선원(cafe.daum.net/zeol) 선원장 일산(一山) 법상스님은 "신묘장구대다라니 수행으로 창조력, 삼매력, 자비심, 용맹심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본성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일깨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천수불교


관세음보살님 가액 29만원
(재질: 청동, 좌대 22㎝×높이 30㎝)


석가모니부처님 고행상
(재질: 청동, 높이 30㎝) 가액 29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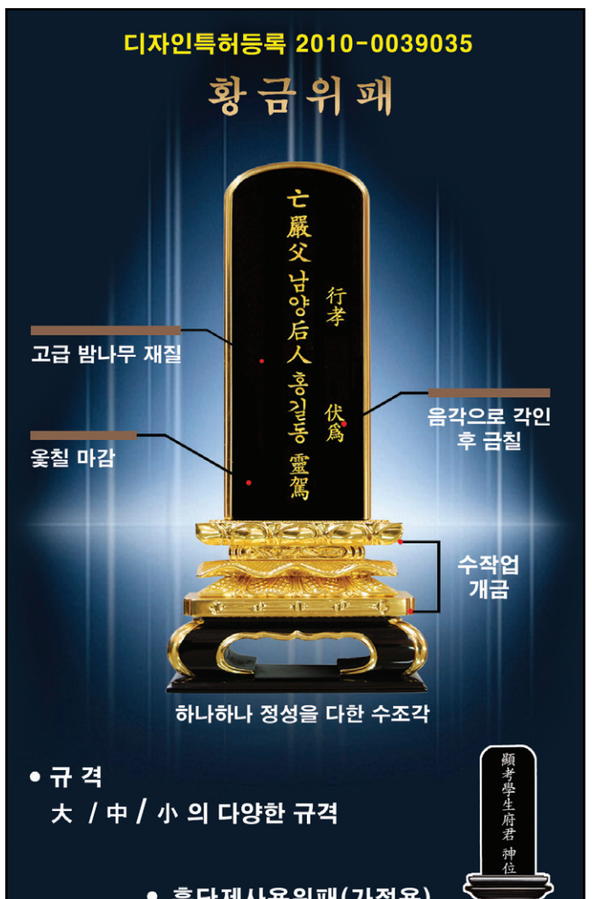
100불이상 주문시
박정희대통령,김대중대통령 휘토도자기 드림!!


지장보살님
(재질: 청동, 높이 30㎝) 가액 29만원


대만 동북부 상공에 흑룡을 타고오신 관세음보살님 성상을 모시면 행운이 옵니다
최고급액자 특수유리(가로 35㎝×높이 40.2㎝)
가액 : 29,000원

농협 187-02-274348 천수불교 / 주문 010-2506-2425 이양희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고급 밤나무 재질
옻칠 마감
음각으로 각인 후 금칠
수작업 개금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 규 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 흑단제사용위패(가정용)

위패전문기업 (주) 대 양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 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한국 여성에게서 보살성 발견

정종미 작가 불교예술성 극찬
박지로 만든 오색 보살도 전시




수월관음도, 지장보살, 아미타여래의 모습을 띤 오색 보살(96×196㎝ 한지, 안료, 염료)

"모든 여성이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지닌 성정에는 포용력, 배려, 강인함이 있잖아요. 저는 가톨릭 신자이지만 많은 여성에게서 그런 불성을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의 전통재료와 색채에 심취해온 '종이부인'의 정종미 작가(55·고려대 교수). 그가 이번에는 천연 안료에 물든 종이와 천으로 불화 속 보살의 모습을 탄생시켰다.

"200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에서 고려 시대의 명품(名品)을 소개하는 전시가 열렸어요. 그때 일본 가가미진자(鏡神寺) 소장 '수월관음도'를 처음 보고 큰 감동을 받았죠. 우리 채색의 극치를 보여주는 고려불화가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게 안타까워서, 언젠가는 고려불화와 연관된 작업을 하리라 결심했어요."

정종미 작가는 서울 팔판동 갤러리 인에서 3월 10일까지 '여성성에 바치는 헌사—보자기 부인'을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한국 여인의 아름다움과 신성(神性)에 헌사하는 신작 20여 점이 전시된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한지 중에서 가장 얇은 박지(薄紙)에 백(白)·청(靑)·적(赤)·황(黃)·흑(黑)으로 장식한 강물처럼 펼쳐진 거대한 오방색(五方色) 물결이 눈에 띈다.


'종이부인' 정종미 작가

'조각보를 위한 진혼곡'은 가로 5m, 세로 5m의 보자기가 벽에서부터 시작돼 20m의 오색박지가 벽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대형 설치작품이다. 정종미 작가가 질곡의 세월을 견뎌온 한국 여성들에게 바치는 헌사이자 진혼곡이다.

오방색 물결 옆 한쪽 벽면에는 수월관음, 아미타여래, 지장보살 등 고려 불화 도상에 한국 여성의 얼굴을 결합시킨 '오색보살' 시리즈가 걸려있다.

정 작가는 오방색 배경에 부처의 형상을 그려 넣었다. 얼굴은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을 띠고 있다. 수월관음과 아미타여래의 화려한 의복을 표현하기 위해 박지를 사용했다.

정 작가는 열 손가락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오랜 시간 한지를 주무르고 비비고 반죽해 색을 물들인 박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순금가루를 섞은 풀로 금박을 그려 넣고 주름을 잡아 오색보살에 옷을 입혔다.

정 작가는 한국 채색화의 역사적 흐름과 의미, 특색을 탐색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재구성하는데 열정을 쏟아왔다. 특히 고구려 벽화나 고려불화, 조선시대 영정화 민화 등 채색화의 역사적 계보를 추적했다.

"전통 보자기에 담긴 색채관에서 한국의 색과 한국의 여성성을 발견했어요. 고려불화가 그 채색의 정점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한국미술사에서 불교 철학과 예술을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우리의 자연색을 비롯한 전통재료를 연구하고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는 정 작가는 불교사상과 불교의 예술성을 극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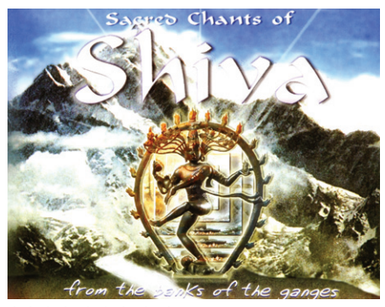
정종미 작가는 1990년대 중반부터 한지 작업을 시작하면서 한국 여성의 '한(恨)'을 주제로 작업을 해왔다.

그는 "제가 추구하는 여성성은 모성에 가까운 여성성입니다. 오행사상에 담긴 색채관이 고구려 벽화나 고려 불화에 그대로 드러난다"며 "그런 색채관은 보자기 작업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보자기에 담긴 색채관과 여성성을 작업에 결합시켰다"고 설명했다. (02)732-4677~8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인도 등서 300만장 팔린 전통 명상 음악

콘텐츠코리아, '시바 찬트' 발매



'시바의 신성한 찬트'

인도의 시바(Shiva)신에게 예배드리는 전통인도음악으로 구성된 명상음반이 발매됐다.

콘텐츠코리아는 인도의 전통 슬로카(sloka) 모음집 '시바의 신성한 찬트(Sacred Chants of Shiva)'를 국내에 발매했다.

슬로카란 산스크리트어로 돼있는 베다의 구절을 말한다. 보통 8행시가 4행씩 두 개의 절로 구분돼 있거나, 16개 음절의 2행으로 구성돼 32개의 음절로 된 시가의 형태를 띤다. 각 행은 파다(pada)라고 해 인도인들은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사원이나 집안의 성소에서 외우거나 각종 행사 전에 외운다.

7개의 트랙으로 구성된 이번 앨범은 국내에 라이선스로 소개되는 최초 전통인도음악으로 인도전역 대부분 아쉬람과 사원에 비치 돼 있을 정도로 찬사를 받고 있는 걸작이다. 인도와 네팔에서만 300만장이상 팔린 세계적인 명상음악 작품이다.

앨범은 현존하는 영적 지도자중 한 명인 스리 스리 라비 상카(Sri Sri Ravi Shankar)가 설립한 '아트 오브 리빙(the Art of Living)' 소속 명상음악가들의 만트라 챈팅으로 구성돼 있다. 2012년도 한국판에는 5분 가량의 'Om Nama Shivaya' 스페셜 버전이 추가로 수록돼 있다.

앨범은 시바 신에게 예배드리는 전통 슬로카모음집으로 드론(drone, 지속음)의 흐름을 바탕으로 음악이 전개된다. 인도인들은 슬로카를 통해 명상에 들고, 내면을 닦는다. 명상음악에서의 화두는 결국 얼마나 인간의 깊은 내면을 두드리느냐에 있다. 치유음악으로써 인도전통음악이 효과가 있는 것은 지속음인 드론의 역할이 크다.

콘텐츠코리아는 "이 명상음반은 듣는 이들을 몰입시키고 지속되는 하나의 파장이 심신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며 "산스크리트 만트라는 내면의 빛과 색채와 같은 소리의 떨림으로 뇌의 숨어있는 세포를 일깨우는 강력한 파워를 발휘한다. 깊은 명상과 이완 및 요가수련에 효과적인 음악"이라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영담 스님, 뉴욕 첼시 갤러리 대표작가 선정

2년간 CATM 갤러리와 전속계약



닥섬유예술가로 활동하는 영담한지미술관장 영담 스님이 2월 1일 미국 뉴욕의 CATM 첼시 갤러리의 대표작가로 선정됐다. 2011년 9월 CATM 갤러리에 초대돼 'ART LIVE 2011'에 첫 데뷔한 후 거둔 성과다.

CATM 갤러리는 영담 스님 작품에 대해 "정적이고 역동적이며 한국적이면서도 매우 모던한 작품으로 선(禪)적인 품위가 느껴지는 작품"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2년간 영담 스님의 모든 미래의 계획과 예술경력에 관련된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은 물론 기획, 전시, 홍보, 판매를 담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담 스님은 세계미술시장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뉴욕 화랑가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

2011년 4월, 영담 스님은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인 타우슨(TOWSON) 대학으로부터 초청 받아 미국학생들에게 4회에 걸쳐 '한지의 역사와 예술성'을 강의하고 작품전을 가졌다. 이외에 워싱턴의 피라미드 아트센터에서 열린 미국 유명 종이작가의 작품 활동 행사에 초대 받아 한국 전통 한지를 소개하고 작품 제작을 선보였다.

CATM, "모던하며 선적인 분위기"
2년간 재정지원 받으며 작품활동

이곳에서 스님의 작품이 첼시의 갤러리 디렉터 눈에 띄어 초대돼 영담 스님은 2011년 9월 'ART LIVE 2011'에 데뷔했다.

영담 스님은 "지난 해 데뷔 후 한 미술품 수집가가 저의 작품 좋아해 2점을 구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CATM 갤러리에서 전속계약을 맺자고 제안했다"며 "대표작가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저 무덤덤했다. 앞으로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1985년 전통한지연구소를 설립한 스님은 그동안 내면에 감춰져있던 예술성을 한지에 드러내기 시작했다.

영담 스님은 종이의 크기, 작품의 주제, 표현기법에 구애 받지 않고 무심의 경지에서 때에 따라 알맞게 나뭇잎, 돌멩이 등 다양한 천연 염료를 사용해 작품을 표현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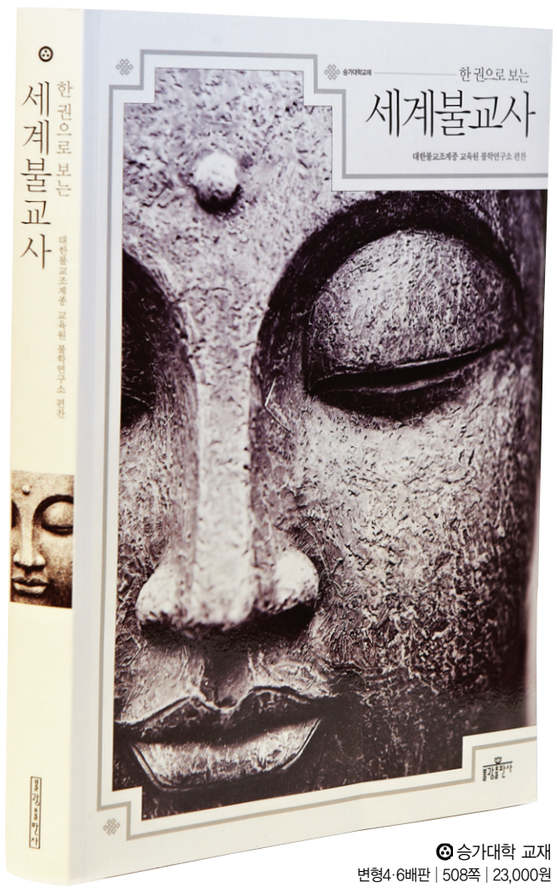
꾸준한 작품 활동을 통해 스님은 1988년부터 '서울종이잔치전' '포스코국제아트페스티벌' 등 10여 회의 크고 작은 전시회에 출품했다. 또 1987년에는 동국대 개교 80주년을 맞이해 〈신수화엄경〉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 국보급 영인지 제작에도 참여했으며 2007년 경북 청도에 영담한지미술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

영담 스님은 청도에 영담한지미술관을 운영하며 어린이한지미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한지문화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스님은 옛 스님들이 닥나무에 향수를 주어 기르면서까지 종이를 만들어서 정성을 다해 사경(寫經)하고 불화(佛畵)를 그리며 종이문화를 발전시켰던 정신을 이어 수행과 작품 활동을 겸하고 있다.

영담 스님은 앞으로의 작품 활동에 대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禪)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작품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미술품을 통해 해외로 포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며 "가능한 작위성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질서를 재발견하는 신비함과 즐거움을 작품에 표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CATM 갤러리에 전시돼 판매된 '만고불변'(2008, 파고지에 지연물감)


승가대학 교재
변형4·6배판 | 508쪽 | 23,000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찬

한 권으로 보는
세계불교사

불교의 발상지 인도 | 독자적인 대승불교를 발전시켜온 중국, 일본, 베트남
초기불교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후기 인도불교를 전승·발전시켜온 금강승의 나라 티베트
중앙아시아의 대표적 불교국가 몽골 | 전통을 계승·발전하며 새롭게 약진하는 타이완
다양한 문화와 민족의 용광로이자 종교와 과학의 융합점 미국

세계 각 지역의 불교 전파 과정과 현황에 대한 자세한 조망을 통해 세계 종교로서의 미래불교를 창조할 수 있다.

변화와 혁신의 21세기

미래 불교가 나아갈 길은? 도전과 응전의 2,600년 역사속에 있다!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twitter @bulkwang_c facebook www.facebook.com/bulkwang

“이제 1만권, 법보시 2만권까지 정진”

김천 성전사 정명 스님 불교학 전공생들에 책 전달



업과윤회의법칙
파아옥 또야 사야도 지음
정명 옮김
푸른향기
비매품

한 스님이 자신의 연구서를 3년째 불교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명상수행가으로 초기불교를 연구 중인 정명 스님(김천 성전사 주지)이 2월 14일 한권으로 읽는 초기불교 시리즈 가운데 〈업과 윤회의 법칙〉(푸른향기 刊)을 전국 4년제 불교관련 전공 대학(원)생 3000명에게 각 학과 사무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로써 3년전부터 시작된 스님의 법보시 릴레이는 1만권을 기록했다. 정명 스님은 이 릴레이를 2만권이 될 때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이날 스님이 학생들에게 전달한 책은 정명 스님이 직접 번역·출간했다. 책은 지난해 한국을 찾아 간화선과 위빠사나 국제연찬회에 초기불교 대표로 참석한 미얀마 파아옥 또야 사야도의 저서 ‘The working of kammas’를 번역한 것이다.

파아옥 또야 사야도 스님은 미얀마 정부로부터 ‘명상수행을 지도하는 훌륭하신 큰 스님’이라는 칭호를 받은 선지식이다. 스님은 미얀마에서 〈아비담마〉와 〈청정도론〉에 입각한 불교명상법을 정리해 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파아옥 또야 사야도 스님은 “오로지 담마(法)만 있다”고 강조한다.

책에서 파아옥 또야 사야도 스님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괴로움의 소멸인 니르바나(열반)를 얻어야 하는 당위성과 그 과정을 빠알리 삼장의 해당 구문을 인용해가며 풀이하고 있다.

역자 정명 스님은 “책은 구체적인 불교수행법을 제외한 한권으로 읽는 초기불교의 가르침이다”라고 말한다.

역자는 이 책을 전국 4년제 대학의 도서관, 대덕연구단지의 300여 업체 자료실, 전국 20여 승가대학(강원)의 학인스님 및 10여 불교대학 학인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아무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내가 이룩한 행복에서 멀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생각의 계승자, 나는 생각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바로 생각과 생각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자는 책을 통해 나눔과 베품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살며 수행을 해나간다면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적고 있다.

역자가 릴레이 법보시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초기불교의 가르침이 널리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역자는 이 릴레이 법보시를 뜻을 함께 하는 전국 불자들의 성금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 달에 한번 재가자들에게도 불교명상을 지도하고 있는 역자는 반드시 2만권 법보시를 회향하겠다고 강조한다. www.jungmyeong.com

조동섭 기자



붓으로 만나는 옛사람 정취



선비의 향기, 그림으로 만나다
지은이 백인산
다섯수레
1만6800원

〈선비의 향기, 그림으로 만나다〉는 간송미술관 백인산 상임연구위원이 화훼영모화와 사군자화를 통해 우리 그림으로 안내하는 책이다.

책은 다섯수레의 ‘아름답다! 우리 옛 그림’ 시리즈의 첫 번째 권으로 출간된 책은 우리 그림 가운데 꽃과 새, 짐승을 그린 화훼영모화 22점(공민왕의 ‘이양도’ 신사임당의 ‘포도도’ 정선의 ‘서과투서’ 김홍도의 ‘해탐노화’ 등)과 사군자화 30점(김정희의 ‘불이선란’ 이인상의 ‘병국도’ 민영익의 ‘풍우죽’ 등)을 엄선해 청소년의 눈높이로 풀이하고 있다.

책장을 넘기면 어렵게만 느껴지던 한국화를 쉽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그림 속에 담긴 옛사람의 숨결까지 오롯이 느낄 수 있다.

도판이 큼직하게 편집된 시원시원한 화면이 그림 감상의 맛을 더하는 책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서재탐방 |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

철학서 읽던 소년, 빨리어 경전 번역하다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59)은 20년 넘게 빨리어 경전 번역에 매진해왔다.

전 회장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당시 쓰던 말인 빨리어로 기록된 초기불교 경전 〈쌍윳따니까야〉(2002) 〈맛지마니까야〉(2003) 〈앙굿따라니까야〉(2008) 〈디가니까야〉(2011) 4부의 원전 완역을 모두 마쳤다. 서양에서는 이미 해낸 일이지만 개인이 혼자서 4부 니까야를 완역한 것은 세계 처음이다. 전재성 회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사전 편찬 작업에도 열심이다. 하루 8시간씩 번역 작업에 몰두한 그는 〈빠알리어-한국어 사전〉은 이미 완성해서 출간했다. 〈한국어-빠알리어 사전〉은 탈고 작업을 마쳤다.

무엇이 그를 빨리어 번역 작업에 몰두 할 수 있게 했을까. 서울 홍제동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았다.

전재성 회장의 집은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사무실이자, 번역작업을 하는 연구소다.

영어 독일어 산스크리트어 등 3개 국어를 섭렵한 학자답게 그의 집에는 각종 외국어로 된 철학서와 불서들을 포함한 5000여 권의 도서들이 있다.

전재성 회장은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 출생했다. 부산 난민촌에서 자란 그는 4세 때 끓는 물에 화상을 입었다. 이후 그는 내성적이며 가슴에 응어리를 지닌 사춘기 시절을 보냈다.

“어려서 입은 화상의 흔적과 허약한 체질은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고(苦)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종교에 의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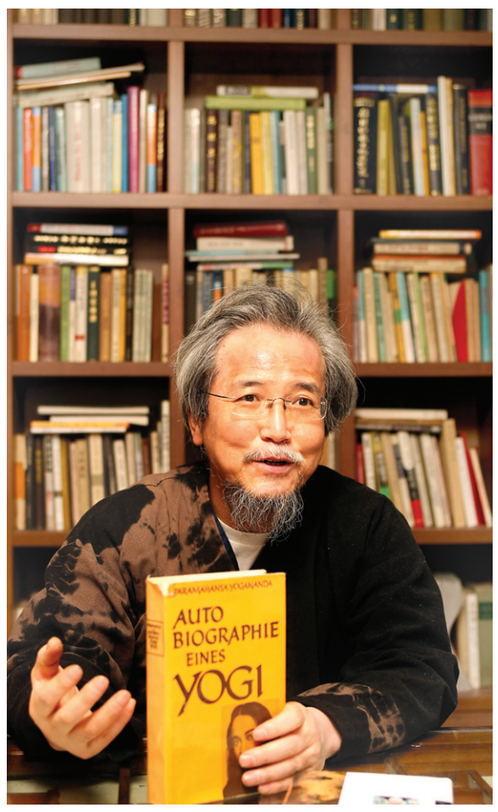
중학교 시절, 전 회장은 불교교리와 명상을 배울 수 있는 불교모임에 나가면서 종교와 철학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모임을 계기로 전 회장은 키에르케고르, 하이데거, 사르트르, 메를로 퐁티 등 실존철학과 서양철학 등에 심취해 많은 책들을 읽었다. 메를로 퐁티의 〈지각의 현상학〉등을 읽고 실존철학에 푹 빠졌고, 붓다의 가르침 중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인 기록으로 받아들여지는 월폴라 라훌라의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을 읽고서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전 회장은 서울대 농대에 입학해 불교학생회를 조직했다. 농대불교학생회 회장이었던 그는 서울대 불교학생회 연합인 ‘총불회’에서 활동했다. 자연스레 문리대 불교학생회, 법불회 등 단과대 학생들과 어울리게 됐고 유신체제를 고민하는 리더들을 만났다. 대불련(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무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민주화운동 집회에 자주 참가하게 되자 긴급조치 4호를 피할 수 없게 돼 1974년 서대문형무소에 3개월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후 대불련 회장을 맡은 전 회장은 ‘민중불교회’ 조직을 만들어 시국을 토론하며 청년시절을 보냈다. 민주화를 위한 시위보다 집필을 통한 계몽운동으로 전향해 ‘민중불교론’ 원고를 써서 많은 청년불자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했다.

전 회장은 대학시절 여자친구로부터 가스통 바슐라르의 〈촛불의 미학〉을 선물 받아 읽고서는 민중불교운동을 하는 등 외면적으로 요동치던 자신을 내면적으로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인도철학을 전공하는 계기를 얻는다. 바로 파라마한사 요가난다의 자서전을 읽고 나서다. 그는 친구로부터 영어 원서인 요가난다의 오토바이오그라피를 받아 사전을 뒤져가며 밤새도록 읽었다. 현재는 〈요가난다(영혼의 스승들)〉이라는 번역서로 나온 이 책은 20세기 최고의 요가 수행자였던 파라마한사 요가난다의 자서전으로 인간의 영혼과 첨단과학, 기적의 법칙 등을 논한 인간 구원의 이야기이다. 전 회장은 이 책을 읽고 인도철학으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



전재성 회장은 파라마한사 요가난다의 영어 자서전을 읽고 인도철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다.

어릴 때 입은 화상 불교입문 계기
독일서 거지성자 만나 빨리어 번역 결심
韓-빨리어 사전 탈고…이띠부다까 번역 중

전 회장은 동국대 대학원에 진학해 인도철학 연구에 매진하다 1980년대 초 독일 유학을 결심했다. 쾰른대학에 입학한 그는 산스크리트어와 빨리어, 티베트어를 독일어로 배웠다. 이듬해 본대학으로 옮긴 전 회장은 ‘거지성자’인 페터 노이야르 선생을 만났다.

“썩은 당근을 깎아 먹고 있던 노이야르 선생이 쓱 저에게 당근을 주더라구요. 근데 그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신선처럼 눈동자가 맑고 깊었습니다.”

전 회장은 거지성자 페터 노이야르와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페터 노이야르는 불교경전을 읽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는 노숙자였다. 그를 통해 전 회장은 독일의 초기불교에 대한 연구 상황을 알게 됐다.

“독일은 1910년에 이미 초기불교 경전이 번역됐어요. 한국은 아직 번역이 안 된 상태였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구요. 나중에 보니 노이만이라는 학자가 니까야 번역을 다 해놨고 헤르만 헤세는 동양학자인 삼촌 집에 놀러가 노이만이 번역한 불경을 가져와 읽고 〈싯다르타〉같은 문학 작품을 탄생시킨 거였죠.”

전재성 회장은 1700년 역사를 자랑한다는 한국불교가 초기 불교경전도 번역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자괴감을 느꼈다. 그는 곧 빨리어 공부와 경전번역에 빠져들었다.

당시 페터 노이야르는 전 회장에게 〈미라래빠의 십만송〉을 소개했다. 전 회장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닌 티베트의 수행자 미라래빠가 말하는 불교를 소개한 이 책을 읽고 티베트어를 부전공으로 선택해 공부했다.

한국에 돌아온 그는 1997년 빠알리성전협회를 설립하고 4부 니까야 완영을 마치고 현재는 〈쿳타까니까야〉의 ‘이띠부다까’(여시아경)을 번역하고 있다.

당시 독일에서 확산된 생태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전 회장은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이야기를 담은 헬런 니어링의 〈조화로운 삶〉을 독자들에게 추천했다.

아직도 경전 주석 번역 등 작업할 게 많이 남았다는 전재성 회장은 “14세기 페르시아의 시인인 하피스(Hafez)에 대한 책 등을 쓰고 싶다”며 “다양한 철학서를 비롯한 많은 책을 읽지 않았다면 이런 번역작업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 이나은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8~2/14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2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3	무문관 참구	장휘옥,김사업	민족사
4	방황해도 괜찮아	법륜	지식채널
5	마음수업	이광정	휴
6	인생을 낭비한 죄	박원자	뜰
7	스님은 사춘기	명진	이솔
8	하루 한 가지 마음공부법	우학	조화로운삶
9	스님은 중매쟁이	혜철	운주사
10	법정 나를 물들이다	변택주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日江스님께서 정리하신 상용의식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법이 법요의식을 진정한 염불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편집인 日江 합장

사용하기가 간편하여 스님들에게 최고인기 판매 중!


예경 · 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 까지 목탁, 요령, 합장표시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 순서대로 되어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18쪽 | 값 15,000원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점안 의식은 이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7,000원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병시식, 지장불공, 관음시식 등 재 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있다.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고사의식집
가택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식 집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다.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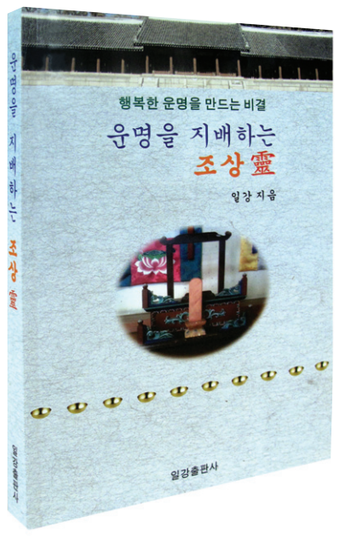

다비의식 집 (2010신간)
누구나 간절히 기다리던 의식집, 승가다비편과 재가다비편이 입적 후 처음으로 시신을 대하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신간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 靈

● 구입문의 : 일강 출판사 02)2237-8543
● 4권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 사단법인 천우종

신간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 靈

행복한 삶의 길을 터주는 보물열쇠!
바로 이 책 한권으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 모두가 염원하던 책! 드디어 완성 출간!
– 엄청난 영혼과 운명의 비밀이 담겨있는 책!
– 실제 있었던 체험담이 이 책 속에 들어있다.
– 이 책을 읽고 실천에 옮기면 즉시 소원성취 할 수 있다.
– 바로 조상靈을 만나보고 불가사의한 일을 체험해 보십시오!
– 누구나 한번 읽고 소장해야 할 화제의 필독서!
– 영계(靈界)의 실상을 파헤치고 소원성취의 길로 인도하는 최고의 걸작!
– 종교지도자들이 이 책을 읽고 신도들에게 권해주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책값 : 12,000원 | 사찰 다량주문 환영

구입문의 : 일강출판사 02)2233-5286, 2237-8543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사단법인 천우종

"나도 남도 돈오하기를 바라며"

백파사상硏, '수선결사문' 펴내

백파긍선(1767~1852) 스님은 조선 후기 화엄종주로서 조선 선문의 중흥조이다. 스님의 저서 〈선문수경〉은 선의 제 종파의 특색을 밝힌 제 논서이다. 〈작법구감〉은 염불 작법을 상세히 밝힌 의례의 규범서이다. 백파 스님의 저서 가운데 〈수선결사문〉은 〈선문수경〉을 저술하기 이전에 결성한 수선 결사의 지침서로 수선의 방법과 이념을 기록한 것이다.

백파사상연구소(소장 선일)은 2월 16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에서 〈수선결사문〉 출판기념회를 봉행했다. 책은 〈수선결사문〉을 최초로 한글로 해석한 것이다. 번역은 김호귀 동국대 HK연구교수가 작업했다.

책은 20장으로 구성돼 있다. 각 장은 스님이 말하는 선수행의 요체와도 같다.

1. 진정한 안목을 갖추는 것이 참학의 요체이다.
2. 정변(正辨)과 정안(正眼)으로 정신(正信)을 발생시킨다.
3. 모든 방편 가운데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4. 간략하게 공안을 인용해 모범을 보인다.
5. 먼저 적적(寂寂)으로 연려심을 다스린다.
6. 바로 성성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참구한다.
7. 먼저 정좌를 하고 그것을 점차 사위의까지 적용한다.
8. 염불을 잘 요간해 궁극적으로 수심(修心)할 것을 권장한다.
9. 권(權)·실(實)을 대변해 간절하게 수심을 권장한다.
10. 세간의 무상을 꾸짖어 간절하게 명리를 책망한다.
11. 이리(二利)를 성취토록 하고 그 공덕을 보여 준다.
12. 정력(定力)이 없이는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13. 납자에게 진정한 행리(行履)를 제대로 보여준다.
14. 오직 인간세상만이 발심하고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5. 전세에 불신했던 원인에 대해 거듭 논한다.
16. 믿음을 지닌 자는 상근기임을 반증한다.
17. 이미 선정을 믿었으면 구경에 깨침을 보아야 한다.
18. 세 부류를 대변해 출가의 진정한 고리를 드러낸다.
19. 백파 자신의 생각을 간략하게 서술해 함께 수선하기를 권장한다.
20. 〈수선결사〉의 규약

행사에는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 등 석전 문도회 스님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재무부장 도문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백파 선사는 율 화엄 선을 모두 갖춘 해동의 선지식이었다"라고 말했다.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은 "백파사상연구소 설립 등 늦게나마 제자들이 발심해 스님을 선양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종단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축사했다.


백파사상연구소 소장 선일 스님은 2월 16일 〈수선결사문〉 봉정법회에서 책의 저술은 백파 스님의 보살행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은 "믿음이 계·정·혜 삼학의 바탕이다. 백파 스님은 신심을 일으키는 데에는 염불이 제일이라는 생각에 〈작법구감〉을 저술해 후학에 전했다"고 설명했다.

백파사상연구소 선일 스님은 "〈수선결사문〉은 백파긍선 스님이 대중의 간청으로 산 속에 들어가 엮은 책이다. 그것으로 스님 자신도 돈오를 추구했고, 남들에게도 도움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저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일 스님은 "〈수선결사문〉을 읽고 많은 눈푸른 납자들이 나와 한국불교를 세계 선 불교의 종주국으로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파긍선 스님은 고창 선운사에서 출가해 지리산 영원암 설파상언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받았다. 백양산 운문암, 구암사 등지에서 법회를 열어 선문의 중흥에 기여했다. 말년에는 화엄사에 주석했다. 입적 후 제자들이 구암사에 탑을 세우고 선운사에 비를 세웠다. 저서로는 〈정혜결사문〉 〈육조대사법보단경요해〉 〈선문염송사기〉 〈작법귀감〉 등이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수선결사문
백파긍선 지음
김호귀 옮김
도서출판 선운사
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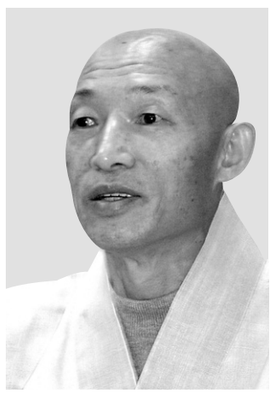
어둠을 밝히고, 무명을 밝히고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이 들려주는 석등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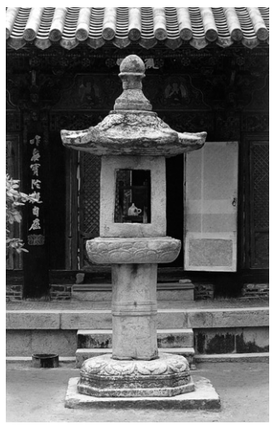
불교에서는 어둠을 무명(無明)이라고 한다. 인간의 밝은 본성을 가리고 있는 타파해야할 무엇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무명은 곧 무지이다. 불교에서는 중생이 범하는 모든 오류의 출발점을 무명·무지라고 한다. 이것이 온전히 역전된 것이 밝음을 뜻하는 명(明)이다. 밝음, 빛, 지혜가 명이요, 깨달음이 명이다.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깨달음은 빛과 맞닿아 있고, 그 빛을 내는 불로 설명된다. 등불·촛불을 켤 때 '자성광명(自性光明)을 밝힌다'고 하는 것이 그 예이다.

또, 부처님이 켜 든 진리의 등불, 즉 법을 대를 이어 전하는 것을 전등(傳燈)한다고 한다. 그 계통을 정리·기록한 책이 〈전등록〉이다. 불교에서 '등불'은 진리·법을 뜻한다.

절집에서 등불은 불상이나 탑처럼 예배·신앙의 대상이거나 그에 준하는 상징물이었다. 〈현우경〉의 빈자일등(貧者一燈) 일화처럼 등공양을 올리는 것은 올리기도 했다. 때문에 절집 안에 장엄한 석등은 단지 어둠을 밝히는 기능성 외에 부처님 가르침을 내포한 성보이다.



불교에서 '석등'은 부처님의 가르침 상징 사찰 석등 시대별 분류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이 펴낸 〈석등〉은 석등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책에서 석등의 각 부재를 상세히 설명하고, 한국 사찰의 전통 석등 70여 기를 추려 시대별로 나누고 그 석등들의 연원과 미술사적 해석 등을 적고 있다. 책의 말미에는 280여 기의 전체목록을 수록했다.

저자는 석등의 부재 가운데 상대석(연꽃잎으로 장식된 돌) 위에 놓여 그 안에 등불을 켤 수 있도록 마련한 화사석(火舍石)의 모양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에 따라 팔각석등·육각석등·사각석등으로 설명한다.

팔각석등은 한국에서 가장 먼저 등장해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온 주류를 이루는 석등이라는 것이 저자의 말이다. 주로 신라시대에 많이 조성됐다.

육각석등은 통일신라 후기에 등장해 고려 전반기까지 유행하다 사라졌다.

사각석등은 고려시대 등장해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고려 말부터는 장명등으로 옮겨가 왕의 능이나 귀인·사대부의 묘에 등장한다.

책에는 백제·신라·발해·고려·조선 등 시대별로 석등이 구분돼 있다. 저자는 이를 또 다시 간주석 등 세부기준에 따라 분류해 설명한다.

백제의 석등에서는 ▷익산 미륵사터 석등재 ▷익산 제석사터 석등재 ▷부여 가탑리 석등재를 적고 있다.

신라의 석등에서는 ▷경부 분황사 석등재 ▷경주 불국사 대웅전 앞 석등 ▷경주 불국사 극락전 앞 석등 ▷청도 운문사 금당 앞 석등 ▷경주 원원사터 석등 ▷봉화 축서사 석등 ▷남원 실상사 백장암 석등 ▷보은 법주사 사천왕석등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등 30기를 담고 있다.

발해의 석등에서는 ▷발해 상경 석등을, 고려의 석등에서는 ▷부여 무량사 석등 ▷논산 관촉사 석등 ▷김천 직지사 대웅전 앞 석등 ▷공민왕릉 석등 등 21기를 예로 풀이하고 있다.

조선의 석등에서는 ▷여수 흥국사 거북받침 석등 ▷함평 용천사 석등 ▷양산 통도사 개산조당·금강계단 앞 석등 등 8기를 적고 있다.

흥선 스님은 1974년 직지사로 출가해 해인사 강원을 마치고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했다. 직지사 성보박물관을 역임하고 현재 불교중앙박물관장·문화재위원이다.

조동섭 기자



석등
흥선 지음
눌와
4만5000원

인도 이야기서 삶의 지혜를 얻다

인도 명상가의 인생 어드바이스



진정한 나를 찾다
인드라 초한 지음
나카지마 다카시 엮음
양영철 옮김
경성라인
1만3000원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한테서도 배우려 하지 않는다. 배운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여러 차례 반복한다. 지난날의 경험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다보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은 당연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인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 혹은 학력이 높은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들의 의견을 자신의 생각보다 중요시하기 쉽다.

자신의 직관을 경시하고 남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것은 겸손하다기보다는 비굴한 태도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이다.

'실수하고 싶지 않다.'
'창피당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
'철저히 준비해서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준비에만 시간을 쓰는 사람도 있다.

성공한 사람은 좋은 소질, 기회, 장소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 그들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올린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인생은 용기와 계산을 요구한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생이라는 큰 승부에서 한 번은 모험을 걸어야 한다. -책에서

책 〈진정한 나를 찾다〉 부제 '빛나는 것이라고 모두 보석은 아니다'는 인도의 음유시인이자 명상가인 인드라 초한의 삶의 철학과 지혜가 담긴 책이다. 인도는 명상과 사유를 통해 삶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나라이다. 책에는 인도의 향기가 풍기는 무척 짧은 이야기들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참된 진리의 세계는 넓고도 깊다.

책은 나를 찾는 과정을 사랑 지혜 가능성 성공 미래 인생 마음 인격 운명 행복의 10장으로 나누어 각 장마다 삶의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철학을 담고 있다.

인간은 자연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의 은혜를 듬뿍 받으며 살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 대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한 누구에게나 인생은 열린다고 말하고 있다.

대자연의 법칙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저자는 말한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것이 대자연의 법칙에 따른 삶이라고 해 세계의 최고봉은 '정복'이 아니라 '자연과 일체'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책의 이야기들은 숭고한 대자연을 조절하기에는 인간의 지혜가 너무나 천박하고 보잘 것 없는 나약한 존재여서 스스로를 낮추고 겸허하게 살며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알려준다.

이 책을 읽을 때는 모든 내용을 소설책 읽듯이 단숨에 읽지 말기를 당부하고 싶다. 한 장 한 장의 내용을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면 의식 밑바닥에 잠긴 진실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조동섭 기자

범음범패 학인모집

부처님의 말씀이나 게송을 노래(천보음악)로 만들어 보는 이나 듣는 이로 하여금 기쁨 가득찬 환희심을 일어나게 한다면 그는 이미 도를 이룬것과 같다(법화3부경 제1권 방편품 제2장39절), 옛날부터 전래되는 범음범패의식을 초급, 중급, 고급 수련과정을 통해 능숙해지도록 도와드립니다.

◇ 자 격 : 스님 및 삭발 염의하실 예비스님
◇ 예비소집 : 2556(2012)년 3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 개 강 일 : 응화북전 3039년 남전열반 2556년(2012년) 3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지장사 2층 범패의식교육원
◇ 수 업 일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핵심경전 집중강의(초발심자경문부터), 중식 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시간 이론 및 소리실기 + 작법 2시간실기
◇ 과 목 :
◆바 라 작 법 = 천수, 사다라니, 관욕화의재, 요잡, 츰부다라니(예수재전점안시 바라작법)
◆착복무작법 = 도량게, 향화게, 다게, 옴남, 귀경이, 운심게, 오공양, 법고무
◆사물장단은 기본 국악관악기 : 산조대금, 소금, 단소, 향피리, 태평소, 퉁소다루기 (착어, 영가축원, 생축시 배경음) 의향 있으신 학인에게만 전수
◆법당북연주타법 : 송주성타법 3가지의 에드립타법 7가지 합10가지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등 산사음악회용 찬불국악리듬
◆재 의 식 반 : 49재, 천도재, 기재, 상용영반, 산신재, 해상용왕재, 시다림 등
◆대재의식반 : 영산대재, 생전예수대재, 무차수륙대재, 국가적위령대재 등
◆이운의식반 : 삼신이운, 불,사리이운, 고승사리이운, 대종사이운, 설주이운 등
◆각종 점안의식반 : 각종불상, 보살상, 신장, 나한, 탱화, 가사, 전 점안의식, 복장의식 등
◆핵 심 경 전 강 의 : 의식집에 있는 경전의 핵심인 열반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아미타경 등의 사구게를 영가와 산자에게 들려줘야 함에 이들 경전의 핵심만을 추려서 학인의 이해를 도와 지식을 증장해야 의식을 집전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

강 주 : 교육원장 홍인 스님 010-5325-8123, 053-632-0078
문의전화 : 지장사 대구 포교당주 학장 범성 스님 010-9243-0113

본원종 부설 불교의식대학
범음범패 제 7기 학인모집

▣ 교육기간 : 1년
▣ 입 교 식 : 2012년 3월 2일
▣ 수업일시 : 주 1회 매주 목요일 오후 2시~6시
▣ 교육내용 : 기초 도량석, 종성, 아침, 저녁, 예불, 거불, 복청게, 요잡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49재 및 천도재, 각단 불공 및 사찰의식 전과정.
▣ 입교자격 : 불교의식에 관심있는 스님과 행자 재가불자.
▣ 교육장소 : 서울 종로구 평창동 417-3 본원종 총무원

접수문의 : 02)391-4376. 010-9996-6340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신라 불교를 일으킨 주체는 누구였을까?

다양한 신분 출·재가자가 불교 중흥



일연은 원효를 분황사 진나(陳那)보살의 후신이라고 지칭했다. 사진은 분황사 석탑

1. 흥법의 주체

역사는 시간 위에서 공간을 점유한 인간에 의해 변화한다. 때문에 역사의 주체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인간이 역사의 능동적 동인이라면 그의 행위는 역사의 대상이 된다. 불교의 주체인 불자(佛子)는 붓다의 제자이자 붓다의 아들이다. 그는 유자(儒者)에 상응하는 불자(佛者)이며 불교를 믿고 알고 행하고 깨치는 사람이다. 해서 불자는 불교의 중심이자 근간이 된다. 철학하는 사람이 철학자라면 불학하는 사람은 불학자이다. 불교의 주체인 불교적 인간은 붓다의 가르침을 진리로 확신[信]하고 이해[解]하고 실행[行]하고 체증[證]하는 사람이다. 그는 붓다의 교설을 자신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여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 불교적 인간은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 위에서 중도적 실천행을 하는 사람이다. 해서 불교적 인간은 불교의 주체이자 세계의 주체가 된다.

〈삼국유사〉 '흥법' 편을 통해 일연이 제시하는 불교적 인간 역시 연기적 세계관 위에서 중도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다. 그는 상호의존성[緣起性] 위에서 비고유성[無自性]과 비실체성[空性]을 통찰해 상호존중행[慈悲行]을 실천하는 존재이다. 일연이 이 편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흥법의 주체들은 고구려의 소수림왕과 순도, 보덕과 그의 제자 무상(無上)·적멸(寂滅)·의융(義融)·지수(智藪)·일승(一乘)·수정(水淨)·사대(四大)·개원(開原)·명덕(明德)·개심(開心)·보명(普明)의 11인, 백제의 침류왕과 마라난타, 아신왕과 법왕, 눌지왕과 아도 및 묵호자, 비처왕과 눌지왕, 법흥왕과 이차돈(염촉), 모

불교적 인간은 발심·서원의 존재
'흥법' 편서 불교적 인간관 제시

례와 사씨(史氏) 비구니, 안함, 자장, 혜공과 혜숙, 원효와 의상, 사파와 표훈 등이다. 이들은 모두 삼국의 불교를 흥륭시킨 자들이다.

이들의 신분은 왕에서부터 출가자와 재가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불교를 공인한 왕 외에도 불교를 세계관으로 받아들인 이들이 적지 않았다. 법흥왕과 진흥왕처럼 삼국 통일 이전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진평왕 대의 왕손이었던 원측, 신문왕의 아들이었던 무상을 비롯해 성덕왕은 재위 전에 오대산으로 출가했던 비구였다. 이후 그의 아들인 무루와 지장 등도 출가했다. 세간으로 돌아온 왕은 불교적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현실 정치에 원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존재감을 지닌 대표적인 여성 불자는 사씨 비구니와 덕만부인(선덕여왕)과 승만부인(진덕여왕), 진성여왕과 욱면비, 광덕의 아내, 관음의 화신 낭자 등을 꼽을 수 있다.

불교적 인간은 발심하는 존재이자 서원하는 존재이다. 발심은 발보리심의 줄임말이고 발보리심은 '발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의 줄임말이다. 즉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바른 깨침을 얻으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해서 불교 공부는 발심(發心)에서 비롯돼 서원(誓願)에서 마감된다. 불교 공부에 대해 소개하는 책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머리와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인 발보리심의 마음이 담긴 불교의 경전과 불서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교적 인간은 흥법의 주체가 된다. 일연이 세운 '흥법' 편의 주인공들은 모두 이러한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었던 존재로 짐작된다.

2. 성인과 현인

'흥법' 편의 마지막에 자리한 '흥륜사 금당 십성' 조목에는 열 명의 성현이 자리하고 있다. 불교는 52단계로 보살의 계위를 시설하고 있다. 〈보살영락본업경〉에서 확립된 25위의 보살계위는 10신, 10주[解], 10행, 10회향, 10지, 등각, 묘각의 단계로 시설돼 있다. 이중 화엄에서는 10신을 전제해 42위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신라유식(圓測)에서는 10신을 전제하지 않고 자량위에 머물러 있는 범부 등 모든 이들을 섭수하기 위해 52위를 세운다. 반면 당대유식(窺基)에서는 범부 이래의 10신을 전제하고 수습위 이후부터 등각과 묘각을 불과로 통합해서 41위를 시설하고 있다.

보살이 불위(佛位)에 이르기까지 수행하는 햇수를 삼아승기겁(三阿僧祇劫)이라 한다. 52계위 중 10주, 10행, 10회향의 3위를 수행해 마치는데 1아승기겁을 지내는 동안 7만 5천 붓다에게 공양을 한다. 10지 중에 초지로부터 제7지에 이르기까지 수행을 마치는데 제2아승기겁을 지내는 동안 7만 6천 붓다에게 공양을 한다. 제8지에서 제10지의 수행을 마치는데 제3아승기겁을 지내는 동안 7만 7천 붓다에게 공양을 한다. 이때 10주, 10행, 10회향의 지위에 있는 보살을 삼현(三賢)이라 하고 10지의 지위에 있는 보살을 십성(十聖)이라 한다.

'동경 흥륜사 금당 십성' 조목의 10성은 재가자인 염촉과 사파를 제외한 나머지 아도 혜숙 안함 의상 자장 혜공 원효 표훈의 8성은 출가자이다. 성인이 붓다와 보살 또는 중생 제도를 위해 출현한 출가의 성자라면, 현인은 지혜를 갖춘 재가의 달인이다. 염촉과 사파는 분명 재가자였고 아도로부터 표훈에 이르는 8인은 출가자였다. 신라의 최초의 절에는 이들 성인과 현인의 소상을 조성해 나란히 모셨다. 이것은 중앙의 주불(아미타불)을 시위하는 붓다의 10대 제자가 아니라 신라의 성현을 역할모델로 삼아 흙으로 빚어 모신 독자적인 것이었다. 일연은 신라 초기 '흥법'의 세 주체를 아도와 법흥과 염촉으로 비정하고 그들을 세 성인으로서 기리고 있다.

일연은 신라 경주의 풍경을 "절과 절들이 별자리처럼 벌여서 있고, 탑과 탑들이 기러기처럼 연이어 섰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신라 불교의 풍경을 "덕이 높고 행이 깊은 승려는 천하의 복전(福田)이 되고, 대승과 소승의 불법이 나라의 자운이 됐다." 나아가 "타방의 보살(菩薩)이 세상에 나타났고 서역의 명승(名僧)이 이 땅에 강림했다"고 서술했다. 일연은 타방의 (불)보살로서 진나보살과 보개여래와 오대보살을 제시한 뒤 원효를 '분황사의 진나(陳那)' 보살의 후신으로, 의상(義湘)을 '부석사의 보개(寶蓋)' 여래의 화신으로, 자장을 '낙산사의 오대(五臺, 文殊)' 보살의 화신으로 일컫고 있다. 이처럼 일연은 이들 세 보살을 각기 신라 흥법의 세 성인으로 보았다.

성인은 중생제도 하는 출가자
원효·의상·자장 등 신라흥법 성인

3. 거사와 부인

불교 전통에서 거사(居士, kulapati, gṛhapati)는 출가하지 않고 가정에 머물면서 불문에 귀의한 남자를 가리킨다. 처음에는 인도의 사성(四姓)제도 중 공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베살리 종족의 부자[長者]를 일컬었다. 거사는 좋은 집안의 남자를 일컫는 우바새 또는 족성자(族姓子)이자 선남자(善男子)이다. 선남자에서 '선(善)'은 '선인(善因)'을 가리킨다. 지난 세상에 지은 좋은 일의 공덕[善事功德]이 현세에 나타나 붓다의 교법을 듣고 믿는 남자이다. 또 붓다의 명호를 듣고 염불하는 남자이며 설사 죄악이 많은 이라도 마음을 돌이켜 참회하고 염불하면 선남자라 했다. 거사는 현생에서 불법을 믿고 선을 닦는 남자를 가리키기도 한다. 거사는 점차 학식과 도덕이 높으면서도 벼슬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했다.

반면 부인(夫人)은 좋은 집안의 여인을 일컫는 족성녀(族姓女)이자 선녀인(善女人)이며 우바이이다. 선남자처럼 선녀인에서 선(善)은 선인(善因)을 의미한다. 지난 세상에 지은 좋은 일의 공덕[善事功德]이 현세에 나타나 붓다의 교법을 듣고 믿는 여인이다. 또 붓다의 명호를 듣고 염불하는 여인으로서 설령 죄악이 많은 이라도 마음을 돌이켜 참회하고 염불하면 곧 선녀인이라 했다. 그리고 부인은 현생에서 불법을 믿고 선을 닦는 여인을 일컫기도 한다. 이들은 보살의 자비심에 기초한 모성애로 인해 보살로 통칭되고 있다. 하지만 여인들만 보살이라고 할 수는 없다. 거사들도 보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 전통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사는 유마힐(無垢稱) 거사와 급고독(須達) 장자 및 월개(月蓋) 장자 등이다. 유마힐 거사가 주인공인 〈유마경〉에서 그는 붓다의 재가 제자로 등장한다. 그는 인도의 비야리국의 장자로서 재가에 있으면서 보살 행업을 닦았다. 유마거사는 수행과 언변이 빼어나 붓다의 여러 제자들도 그를 대적할 수 없었다. 이후 한국불교에서는 부설거사(陳光世) 소성거사(元曉) 청평거사(이자현) 월창거사(김대현) 이침산 거사 효성거사(조명기) 백봉거사(김기추) 종달거사(이희익) 덕산거사(이한상) 불연거사(이기영) 무애거사(서돈각) 등의 거사들이 등장했다. 반면 제일 대표적인 부인은 승만이다. 사위국 바사닉왕의 딸인 승만은 아유사국 왕인 우칭(友稱)의 부인이 됐다. 그 뒤 붓다에게 자기의 사상을 여쭈자 붓다는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

현인은 지혜 갖춘 재가의 달인
유마거사·승만보살 역할 모델

며 부인에게 수기를 준다. 이후 한국불교에서는 덕만부인(선덕여왕), 승만부인(진덕여왕)을 비롯해서 많은 부인이 등장했다.

〈삼국유사〉에는 '흥법'의 주체들인 승려들과 거사들과 부인들의 용례가 적지 않게 등장했다. 때로는 불보살이 그들의 모습을 빌어 화신으로 나타난다. 반면 그들이 불보살로 승화되기도 한다. 승려와 거사와 부인이 향상문(向上門)으로 나아가면 불보살의 화신이 되고, 향하문(向下門)으로 내려오면 다시 승려와 거사와 부인이 된다. 미혼의 경우에는 동남과 동녀라고 할 수 있지만 기혼의 경우에는 거사와 부인의 호칭이 자연스럽다. 이름은 정체성의 근간이 된다. 불교사에서는 유마거사와 승만부인이 재가불자의 역할모델로 확립돼 왔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거사보다 부인의 호칭이 부족하다. 보살이라는 호칭은 남녀 모두에게 통용되는 호칭 또는 지칭이 돼야 한다. 일연은 신라 '흥법'의 주체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 육 과 정
(1) 초·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 욕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가지게

■ 강주스님 : 교무국장 성우
◆ 교육시간 : 초·중 급 – 목요일 오전 10시 ~ 1시
상 급 –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개강일시 : 2012년 3월 8일(목) (수시모집가능)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접수처 및 강의장소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23-1번지 HD빌딩 2층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얕은 물은 소리내어 흐르지만, 깊은 물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소리를 내는 법 없이 아주 조용하다. 어리석은 자는 반쯤 물을 채운 항아리 같고, 지혜로운 이는 물이 가득 찬 연못과 같다.

– 숫타니타파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초혼 재혼 인연찾기

불자 독신 남녀 , 결혼, 친구
연인 인연 지어드립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환영
원갑사 인연찾기
02)365-1345
010-9114-4345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49재 천도재 전문

사찰행사, 각종불공, 산신재
점안,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구병시식,
산사음악회
010-8676-6132

행자(비구니) 구합니다

1. 신체조건에 관계없음
2. 학력 관계없음
3. 나이 관계없음
4. 불법을 구하고 수행정진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011-858-0306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학인수시모집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
나비무 (2개월 완성)
* 천도재 해드립니다.
010-9370-4043
경북 경산 금박산 불교 교육원

동영상 기문성명학

평생운을 볼 수 있는 한글성명학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누구나쉽게단기간에배울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백발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적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010-4735-3232
범 송

조용한 산사에서 수행할 30~40대 행자 또는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010-4924-3722

문하생 모집(청학동)



역학, 풍수에
관심있는 분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남녀 초보 환영)
02)422-5804

불사用 달마도 보급

불사하시는 스님들을 위하여
청암 친필 달마도를 저렴하게
그려 드립니다.
규격 : 40cm*60cm
부산 051)202-8770
010-2953-8770

전통불교의식 무료수강

비구, 비구니스님 모집
출가행자 3명 모집
스님 달마 저렴하게 드립니다.
임진년 윤달 묘지 탈봉 회향 문의바람.
055)323-3569
010-2553-8827

전자 납골당 지점 모집

저작권 등록 특허출원 본사
찬조금 가능한 자가소유 건물자
운전, pc, 영상장비
지점 계약자 매월 1회
소면광고 조건.
* 본 광고는 월 1회만 광고합니다
041)544-4441

극락사 사찰 운영하실 분 구합니다

(비구니 스님이나 보살님)
노스님 시봉하실분
전북 김제 극락사 납골공원
010-4427-2256

상 담 안 내

여러분의 영적세계는
편안하십니까?
신통력으로 운명 예견
고민해결
전화상담 가능
대구은행 : 087-13-035968
010-2125-4684
(사주팔자)

조계종 도선국사 창건지 6.25까지 삼대보궁 중 건재한 소백산 지장보궁을 28년전 복원 노승이 쉬고자 본 종 비구니 스님 도반과 둘이서 참선과 기도로 4년, 평생을 말아 운영할 비구니 스님을 찾고 있음. 그리고 40~50대 공양주도 속히 구함

경북 054)653-1180
010-6353-118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011-9323-376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9317-9181

삼혼칠백기도

• 삼혼칠백은 귀신이 아니며 모든 유정무정의 흥망성쇠는 삼혼칠백의 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 기도비법을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부산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과정 학인모집
◆ 불교의식(전통소리 안정사) ◆ 사물 ◆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작법무
특전 1. 본교(졸업) 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특전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사찰 행사전문 (부전스님, 사찰소개 문의, 사주명리 영가 찾는법)

◀ 전통불교조계종 입종안내 ▶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연수원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2563-5550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종무법인 임)
법인 불교단체양도
법인 종단 양도
011-412-8040 법광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60세 이상 가능)
010-3746-8887

비구니 기도스님

(서울 도심 포교당)
02)733-5670

지리산 깊숙히 자리한 암자에 스님과 함께 수행할 나이 40~60세 보살님은 연락바랍니다

055)883-3783

행자 (출가자) 모집

출가 하여 자기완성과 더불어 중생제도에 뜻이 있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 출가자 행자 교육 후 사미계 수계 ▷ 본 총림 승가교육기관 교육
▷ 교육 후 본인 의사에 따라 총림 및 소속 각 사찰 배속
▷ 자세한 것은 본산 중앙협의회에 문의 ▷ 기타 종단 등록 및 사찰 등록 환영

한국불교 원융교단 무문총림 . 중앙불교대학원
문의처 : 본산중앙협의회 서울 (02) 496-3951-3
총 림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44 영평사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수 강 생 모 집

역학은 5~10년을 해도 쉽게 되지 않으니
이제 효타비결로 새롭게 다시 시작해 보세요.
효타비결은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보게 해 드리고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1. 개인 지도반(1개월 완성)
2. 초급반(6개월 완성)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010-7121-9406

영적으로 상담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이 하고자 합니다.

(보살님, 비구니 스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역 주변
법당 약 55평 있습니다.
010-6267-3435
영산스님

신심이 돈독한 공양주 모십니다

051)721-0449
011-579-6444

3년 동안 숙성한 김장 100% 효소 145가지의 약초가 들어간 백효 효소

백초효소는 불가에서 승려나 수도자들이 오랜기간 토굴에서 참선하면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머리를 맑게 하기위해 먹던 약초입니다.

< 백초효소를 권장하고 싶은 사람 >
– 목과 어깨가 뻐근함, 일어섬 때 느끼는 현기증, 만성피로, 두통, 불면증, 비만, 변비, 요통, 식욕감퇴, 불임, 생리불순 등 자율신경 실조를 인한 제반증상과 경년기 장애 등
– 각종 암, 당뇨병 등 만성병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위한 자연요법을 실시할 경우 최고의 자연식품.

시중시세 절반 스님들에게
보급가액 1병 5만원
(2병이상 주문 시 택배비 무료)
* 보급처 신도불이 영농조합
cafe.daum.net/jijangsw.8899

근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8-1번지 부처골 지장선원 ☎ 054) 383-8553 , 011-9585-4908
입금계좌 : 농협 703088-51-013554 예금주 : 지장선원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경산,칠곡,구미,포항,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뉴욕, 중국 칭다오, 호주 시드니

3월 동시모집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3/6(화) 저녁반, 3/8(목), 3/9(금) 오전반 , ■ 3/10(토), 3/11(일) 특별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 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납골당과 행자원을 갖춘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사찰화재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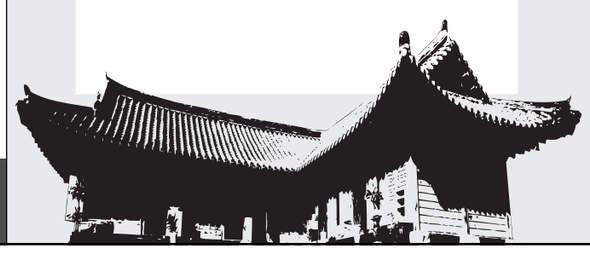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영남전통범음·범패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 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2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종송등
■ 예 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 삼보통청, 상단 • 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39위,104위),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김법운 스님, 월봉 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12년 3월 8일(목요일) 오전 11시
■ 개 강 : 2012년 3월 8일(목요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804-5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자혜불교대학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53)581-0232 / 053)581-0233
054)974-2605 / 011-544-26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2012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4기 수강생 모집안내문

스님!!!
사주명리학을 배우십시오.

명리학은 점술류가 아니며 학문입니다. 사찰을 운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들께만 무료로 6개월간에 특별한 비법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사주명리학을 완전히 터득하실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제1기 수강생은 전국에서 100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2기 수강생은 전국에서 160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3기 수강생은 전국에서 150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장소 : 제1장소 : 성지관음회 법당(매주 화요일 오후1시~5시까지)
제2장소 : 부산강의실(경상도 지역 스님들을 위한 교육장소)
(매주 토요일 오후1시30분~5시30분까지)
◎일시 및 기간 : 2012년 3월초 부터 6개월간
◎수 강 료 : 6개월간 무료
◎신 청 : 전화주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안내문을 읽어 보시고, 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신 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성 지 관 음 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3리 704-1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 팩스 768-8413

불자정보 26 | 876호 | 전면광고

2012년 2월 22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
- 부지 : 110평
- 가액 : 20억

- 위치 : 부산
- 법당 : 30평(목조)
- 요사 : 70평
- 부지 : 150평
- 가액 : 6억 8천

- 위치 : 경기
- 법당 : 18평
- 요사 : 43평
- 부지 : 440평
- 가액 : 4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온천장 사찰

- 대지: 310평
- 법당 30평, 요사채40평, 주지실 25평
- 부산의 주산 금정산 솔밭 자락
- 가액: 7억

토굴(부산 지하철 10분)

- 대지: 150평(국유지 70평 포함)
- 법당 (용왕당 물 철철) 17평,요사채, 방3칸
- 뒷산 공원 접, 주택 밀집지역
- 정남향, 사찰역사 38년
- 총가액 : 2억

※공양주 구함 (수수료 없음)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 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종 교 관 련 시 설 터

- 요양시설, 수련원, 선방, 포교원 등
- 서울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 자락)
- 평수 400평(대로에서 200m)
- 건물 : 약 40평 있음
- 특징 : 산 밑에 위치한 산세수려한 조용한 곳
- 가액 : 15억

011-372-7744

절 터 (급) 안 내

소백산 정취에 흠뻑 젖는 곳, 깨끗한 물,

명상쉼터, 절터, 별장지.

된장공장 적합 現 장뇌산삼 농원 시설 하우스

100평 전1600평

주인직접 010-9220-3385

사찰양도 및 부전스님 안내

- 사찰 또는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분
- 부전스님이 필요한스님 • 부전 생활이 필요한 스님
- 사찰만을 전문으로 안내하며 부전스님 안내드립니다.

♣ 부전생활에 필요한 덕목 및 사시예불. 목탁. 전문의식 단기교육

010-5511-7000 / 070-4128-8975

(부산푸른부동산) 혜화.보현 합장

임야(급)안내

- 위치: 행정수도 인접
- 공주시 유규읍(54,876㎡) 유구IC10분
- 용도: 사찰자리최고
- 정남향 명당터
- 포장도로접, 전면개울흐름
- 가액: 3억 6천만원

주인직 010-4174-204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하남시
- 평수 135평, 건평 95평
- 뒤 그린밸트와 앞 43번국도에서 보임
- 2층 목조법당
- 가액: 8억 5천만원

010-3117-660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48번지
- 4층건물중 2층
- 평수 : 32평 시설완벽
- 법당 : 장엄되어 있음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 (방2칸 시설비 : 2,000만원)
- 몸만들어오시면 됨

010-2565-7200

사 찰 안 내

- 위치 : 한번 가보고싶은 사찰
- 지리산 천왕봉 아래 위치 최고(목조건물)
- 아주 완벽한 전통사찰
- 대웅전 27평(토굴) 황토, 요사채 55평
- 법륜전 70평 6개 각방 욕실완벽
- 등산로 끝까지 도로 포장되어 있음
- 현공풍수학으로 (최고좌향)
- 가액 8억

010-9335-848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죽계리 907번지
- 대지 190평
- 법당 28평, 요사채 24평
- 가액: 2억 1천만원

010-2707-131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
- 3층 53평 전체
- 법당, 아미타불, 관음소불 50
-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 주방, 큰방3, 큰 대기실, 해우소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몸만 오시면 됨
- 스님 건강 관계로 급양도

010-4323-008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역 지하철 도보 3분거리)
- 7층 건물 3층, 지하주차장 有
- 총평수 83평, 법당 약 30평
- 석가모니불, 관세음, 지장, 삼존불 칠성, 신중, 영가단
- 방3개, 주방, 거실, 실내 화장실 도시가스,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5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없음

010-9376-5633

사 찰 안 내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48번지
- 4층건물중 2층
- 평수 : 32평 시설완벽
- 법당 : 장엄되어 있음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 (방2칸 시설비 : 2,000만원)
- 몸만들어오시면 됨

010-2565-7200

도심 속의 산중사찰

- 부산 동구 범일동
- 총대지 95평
- 건물 1층 70평 (법당 35평, 공양간등 8)
- 2층 35평(법당35평, 방2)
- 가액: 3억 5천만원(전세 절충)

010-2563-5550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천광리
- 천수천안관세음, 신중탱화,
- 후불탱화, 소불
- 방3, 공양간, 탈의실 별도
- 시설비 1800만원
- 전세 1000만원, 월 50만원

051)721-8350
010-9243-835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 3층건물의 3층, 평수 35평
- 옥탑방 포함, 옥상 사용가
- 시장입구
- 버스정류장 앞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5607-010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소재 (역에서 차편 약 20분)
- 대지: 도지 사용, 연 35만원
- 건물 : 1층 독채 약 28평 개인등기 필
- 내용 :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교통 좋은 요지
- 법당 넓고 생활 편리함, 현대식 시설
- 가액: 4천 5백만원(시설비포함)

010-7295-1259

포 교 원 안 내

- 대구 북구 읍내동 2층 50평
- 최고시설
- 법당1, 방3, 공양간 1, 창고방1, 화장실1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9199-7897

포 교 원 안 내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3동 494-40호
- 용호시장 우리은행 뒤
- 평수 28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 시설 : 삼존불, 소불 지장보살 108불, 관세음보살 108불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010-2914-353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 언양읍 남부리 소재
- 평수 : 독채 75평 중, 1층요사채 2층 법당
- 건평 45평 • 시설비 상담후 결정
- 구조: 삼존불외 산신및 각종 신불일체
- 1층 방 3개 주방 욕실 화장실 사내화장실 별도, 소각장 창고
- 보증금 2000만원 월세40만원 전세 가능합니다

010-4576-2281
052)291-337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대지 약 50여평
- 법당 2층건물, 요사1채
- 양도가액: 1억 4천만원
- 현재 운영중. 시내에 있음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양도

019-305-9138
051)466-045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양산시 명동산 3-1번지
- 평수 : 4천평 (대웅전, 산신각, 용왕당, 요사체 : 방 4칸)
- 대중공양 거실 큼, 좋고,물좋은 곳 마당까지 주차 100대 가능 (여름 피서객 많음)
- 가격 : 상담 후 가격절충

010- 3737-737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 시외터미널 부근
- 평수 15평, 2층
- 보증금 200만원 월 24만원
- 시설비 480만원

010-5042-100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강남구 청담동
- 평수 : 50평
- 시설: 법당1, 거실1, 방2, 부엌1 화장실2, 샤워실1
- 시설비 3000만원
- 보증금 3000만원, 월 130만원
- 건물 2층 건물의 2층

016-9433-068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전 중구 대흥동
- 도심 포교원 최적입지
- 대전역 도보 7분, 중앙시장 4분
- 건평 70평. 3층
- 법당 25평, 방사 4, 차실
- 제반시설완벽
- 전세보증금 1천만원, 월 42만원
- 시설비 3500만원

011-622-967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군 석보면
- 총 1587평. 전 1387평, 대지 200평
- 건물 2채, • 2차선 도로변
- 가액: 2억 3천만원
- 주인직접, 조절가능

010-4195-3878
010-9256-9747

토굴(급)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 대구 20분거리
- 대지 340평
- 건물 약 60평
- 가액: 2억 3천만원(조절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010-4366-795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 군포
- 면적 : 65평, 방9개
- 시설비최저가절충
- 즉시입주가능
- 보증금 천만원 월세 팔십

031)427-447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리
- 2차선 도로변 • 대지: 1천평
- 법당: 목조 40평(삼존불)
- 요사 : 목조 25평, 창고 1동
- 정원 : 정원수 많음
- 가액: 7억 5천만원

010-4547-0023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동구 구봉산 사찰
- 내용: 전망 좋은 도심 산자락
- 80년된 청정기도 도량
- 대지 50평, 국유.사유지 50평
- 1층 요사채 50평 (방4, 공양간1, 관음전)
- 2층 법당 35평 • 옥탑, 해수관음입상
- 공원이 조성되어 주변 환경이 좋으며, 공영주차장 100여대 완비되어 있음
- 3억 5천만원(절충가능)(대출1억 가능)

010-8660-5810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
- 부지 : 5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3억5천

- 위치 : 경기
- 부지 : 160평
- 법당 : 25평
- 요사 : 60평
- 가액 : 12억5천

※오랜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사찰양도양수전문,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납골공원 및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시내에서 10분거리
- 면적 2만평, 법당까지 도로포장
- 극락전 50평, 법당 45평, 요사채 50평 2동, 용궁100평
- 종각30평-산신각 10평(목조단청), 연못, 폭포수
- 상황버섯 재배, 표고버섯 재배, 장뇌산삼 10년근 약 100만주
- 사회복지 법인, 입불지장전 도량 약 300평, 농장 2천평. 백년송 소나무 경치좋음
- 가액: 55억, 꼭 하실분만 연락

011-1703-2770

포 교 원 안 내

- 위치:경남 창원시 도계동 도계주유소 인근 4층 건물중 2층 (53평)
- 법당1 ,방4 ,화장실2(실내외 화장실 각1개)
- 창고1,큰 주방 ,거실,
- 도시가스 ,각방 전기페널 설치
- 전세5천 월30, 시설비 답사후 결정
- 현대식 시설, 산사 이전관계로 양도

010-3869-7100

요양시설, 전원주택 절, 전통식품공장터

- 위치 : 경남 합천군(대구에서40분거리)
- 총평수 3,579평(계획관리지역) 합천호인접 계곡경관이 아주수려한 지역
- 경내자연동굴(총폭2미터,길이 300미터)
- 동력전기있고 진입로 폭4미터 포장되어있음
- 요양시설,펜션,전통식품공장,절 건축허가 가능
- 가액은 2억5천만원(답사후 절충조정가능)

011-848-2452

인연있는 스님을 찾습니다

- 위치: 전북 익산시 왕궁면 등용리 132-1 북심사
- 창건주 스님이 돌아가시어 사찰을 책임있게 스님의 원력유지를 받들어 운영할 스님을 찾습니다 혹은 양도를 원하시면 양도해드림

063)832-0763 / 010-3905-8764
010-9303-7556 / 휴대폰이 안되는 지역임

포 교 원 안 내

비구니스님, 법사님, 보살님 불자님께

- 전주 시내 중심
- 원룸 빌라 고급음식점 밀집지역
- 1층 25평 내 - 법당, 방1, 부엌, 욕실, 도시가스, 살림가능
-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350만원
- 철학하시는 분 환영

063)246-8481

암 자 안 내

- 위치 : 익산시 5분거리
- 종교부지 300평, 국유지600평
- 법당 25평, 요사31평, 산신각
- 문화재급약사석불
- 가액: 1억 8천만원

011-677-8525

사찰(급)안내

- 위치: 경기 포천시 송우리 근교
- 1층 50평, 위패단
- 2층 법당 35평
- 요사채, 공양실20평, 선방 6개
- 산신각, 휴게실 20평
- 가액: 14억(상담 후 절충)

010-7130-724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 시설: 삼존불, 신중단, 영단, 산신단
- 평수 : 20평
- 보증금+시설비 8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반값만 받습니다

010-8827-3133

서울근교사찰

- 서울30분 남양주시 오남 신도시
- 호수공원옆 남향 약수 풍부 도심속 정원, 방생시설
- 토지 500평, 법당 30평, 요사채 70평
- 별채 20평 (가건물) 거대산신암벽
- 땅욕심자 출입전화금지
- 양도 1억 (비구니스님환영)

010-6600-1377

사 찰 안 내

- 도심속 아담한 마당있는 5층사찰
- 위치: 안산 • 요사채 방4개, 실내화장실2개
- 주지실, 세면장화장실 딸린 별도
- 엘리베이트 옆 , 남녀 화장실
- 마당에 조립식 법당 약 15평
- 가액: 3억 3천 (융자1억 포함)
- 주인직접 거래
- 꼭 필요한분만 전화주세요

010-9767-4119

암 자 안 내

시골집 수리하여 관음지장 부처님 모셔져 있습니다.

- 위치 : 안성시 원곡면
- 평택에서 10분, 안성에서 10분 공도에서 5분
- 보증금 1500만원 월세 無
- 전기료 월 2만원

010-9327-57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중구 동인동
- 5층건물 3층
- 사용총평수 53평
- 법당 20평
- 석가삼존불,지장,칠성,신중
- 방2, 주방, 거실
- 보증금55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는 답사후 상담결정

010-2520-8263

도심 속의 산중사찰

- 부산 동구 범일동
- 총대지 95평
- 건물 1층 70평 (법당 35평, 공양간 등 8)
- 2층 35평(법당35평, 방2)
- 가액: 3억 5천만원(전세 절충)

010-2563-5550

저렴한 농가주택

경북 영양읍에 차로 5분거리

위치한 농가 건평 15평은 대지는

임대 방3칸 입식부엌 군불방

즉시 입주 가능함 문의 환영

가액: 800만원

010-8899-8899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 돌산 둔전리 여수시내에서 20분거리
- 땅 : 총 250평, 요사채 1동
-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동
- 양도가액 : 2억(절충가능)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11-9765-5302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경남 울주군 서생면 배송리
-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간절곳
- 평수 261평, 사용면적 100평
- 시설 심야보일러
- 전혀 불편함이 없는 현대식 단청
- 여건 부산 해운대 30분
- 울산 30분거리, 2차선 도로 근접
- 가액: 평당 250만원 답사후 절충 조정가능

010-4100-4173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
- 대지 36평
- 2층 건물 뉴타운지역
- 1층요사채 30평, 방3개, 화장실2
- 2층법당 18평, 주지실 4평
- 가액: 3억 3천만원
- 비구, 비구니스님 환영, 현재운영중

010-4940-0195
010-8995-019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중구 동인동
- 5층건물 3층
- 사용총평수 53평
- 법당 20평
- 석가삼존불,지장,칠성,신중
- 방2, 주방, 거실
- 보증금55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는 답사후 상담결정

010-2520-8263

명상 8주 프로그램

집중하면서 식사…사소한 일이 깨달음으로

잭 콘필드의 명상 레슨 ⑦ – 먹기 명상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시간을 장을 보고, 채소를 가꾸고, 저장하고 나르고, 썰고 양념을 해서 요리를 하고, 손님을 대접하거나 친구들과 나눠먹고 설거지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면서 보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에 서너 번 습관적으로 먹습니다. 멋진 식당에서 대화를 나누며 좋은 요리와 술로 근사한 식사를 하는데도 끝날 때는 여전히 배가 고프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야기를 나누고 재미있는 시간을 즐기느라 음식을 음미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활동과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는 일도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요리를 준비하는 게 번거롭다면 건포도 몇 알로도 명상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명상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천천히 준비하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접시에 건포도를 담아 준비하고 편안한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감사 기도를 올리거나 음식에 축복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이 자신에게 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햇살과 비, 농부, 대지, 그리고 생각나는 모든 것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땅을 비옥하게 한 지렁이와 꽃가루를 날라 열매를 맺게 한 벌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꽃가루받이를 하는 벌이 없다면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지렁이에게도 많이 의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지 위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끝나면 1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건포도가 담긴 접시를 지켜봅니다. 가만히 앉아서 침묵합니다.

아마도 배고픔이 느껴질 것입니다. 음식을 보고 배고픔을 느끼면서 세상의 많은 부분이 끊임없는 배고픔과 갈망의 상태임을 깨달으십시오.

겨우 60초이지만 배고픈 상태로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난생 처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가 고프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다른 느낌도 들 수 있는데 어떤 느낌이든 알아차립니다. 만약 당신이 평소 건포도를 싫어했다면 싫어하는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느낌을 '싫어함'이라고 부르면서 이 순간에는 건포도를 싫어하는 감정을 한껏 음미합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호흡이나 몸의 느낌을 지켜볼 때처럼 집중하면서 천천히 먹기 시작합니다. 먼저 건포도를 손에 쥐고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 것을 건포도로 여기지 말고 바라봅니다.

건포도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건포도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포도나무의 열매로 맺혀져서 잘 익은 포도가 되었습니다. 수확된 다음 얼마간 햇빛에 말려졌습니다. 그런 다음 봉지에 포장돼 차에 실려 상점 진열대 위에 오른 것을 당신이 샀고 이제 먹으려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온 대지를 포함한 공간보다 큰 전체의 일부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동물이고 건포도는 대지에서 자랐습니다. 이제 당신은 건포도를 당신의 생명을 유지할 에너지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손가락으로 건포도를 만져봅니다. 그냥 '건포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능한 모든 감각을 경험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몸을 살펴봅니다. 침이 고이는 게 느껴지나요? 배가 고프다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이 어떻게 자동적으로 침이 분비되는지 관찰합니다.

식사전 60초 동안 음식 주시
배고픔과 갈망 느껴보세요
씹고 삼키는 순간 지켜 보면
쾌락에 집착함을 알아 차려

준비가 됐다면 건포도를 입으로 가져갑니다. 손에 건포도를 들어 입으로 가져가는 사이에 일어나는 감각을 놓치지 않도록 팔을 천천히 움직입니다. 천천히 입을 열고 그 느낌이 어떤지 살피십시오. 건포도를 혀 위에 두자마자 바로 씹지 말고 기다립니다.

먼저 혀 위의 느낌을 관찰하고 천천히 입을 다물고 팔을 내립니다. 그제야 눈을 감고 천천히 씹어 봅니다. 맛을 주의 깊게 느끼고 삼킵니다. 모두 삼킨 후 그대로 고요히 머무십시오.

건포도가 목을 지나 식도를 따라 위장으로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나요? 자, 이제 천천히 눈을 뜹니다.

이렇게 집중하면서 음식을 먹어보면 식사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소한 일이 큰 깨달음으로 연결됩니다. 건포도 두 알에도 많은 것이 존재함을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명상을 '위빠사나 식사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의 유일한 규칙은 음식을 먹을 때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건포도를 먹어보면 건포도의 향이 오래가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건포도를 얼마 씹지 않아서 향이 사라집니다. 건포도를 계속 씹어보면 결국에는 향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이때가 바로 사람들이 건포도를 좀 더 먹으려는 순간입니다. 씹고 삼키기 전에 향은 사라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몇 알 더 먹으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달콤한 향기가 기분을 좋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무엇을 경험할까요? 욕망과 갈망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원하게 되고 마지막 것을 삼키기도 전에 더 먹으려고 합니다. 건포도를 입에 가득 넣은 채 당신은 알게 됩니다.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건포도를 먹는 명상을 하게 되면, 당신은 습관적으로 쾌락에 집착하고 불쾌함은 회피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은 달콤함을 느끼지만 또한 그 달콤함이 항상 그대로 있지 않고 결국 사라져버리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한 무상함을 자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는 모든 것과 함께 존재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명상의 핵심입니다.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에서 발췌

정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명상유도문

건포도 세 알을 갖고 한 번에 한 알씩 씹으면서 순간순간 행하는 일과 체험에 대해 주의를 집중합니다.

먼저 건포도를 하나씩 살펴보는 데 주의를 집중합니다.

마치 과거에는 건포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주의 깊게 그것을 관찰하고, 손가락으로 잡았을 때 먼저 촉감을 느끼고 색깔과 표면의 상태에 관해 살펴봅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건포도에 대한 다른 생각이나 그밖에 일반적인 음식물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 건포도의 냄새를 맡아봅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집어 정확하게 입에 넣습니다.

이때 몸과 마음은 건포도가 먹을 것임을 미리 알기에 먹을 것을 예측해 침을 분비시킵니다.

건포도를 입 속에 집어넣고 천천히 씹어 넘길 때 목구멍에 넘어가는 감촉을 확인하며 삼키는 행위를 의식적으로 체험합니다.

건포도 알을 넘기고 나면 내 몸이 건포도 한 알을 먹은 것만큼 더 무거워졌다는 상상을 하거나 실제로 더 무거워진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걱정할 일이 있거나 기분이 저조할 때 기분을 전환시키기 위해 먹기도 합니다.

한 알의 포도알을 채 씹어 삼키기도 전에 자신도 모르게 다른 한 알을 먹으려고 자동적으로 손을 뻗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음식을 먹었던 자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방법을 연습해가면 당신과 사물과의 관계가 바뀌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물을 이전보다 더 깊게 관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사물과의 본질적인 연결 즉, 마음속에 일어나는 충동과 몸의 관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과식하고 있다거나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무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평상시 우리는 사물에 대해 충분하게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계적으로 보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음을 기울여 음식을 먹게 되면 마음이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음식 자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음식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보게 되며, 참맛을 알게 됩니다.

정확도 효과성 제일

아래 각 활용서 및 CD프로그램에는 작사귀 / 병귀 / 부정빌미 / 산소탈 및 해소방법을 정확하고 효과 크게 적시함

◆ 육임 학습서 ◆
· 효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학습용) · 하(임상용) 권 45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기존사주초월) 5만원
· 효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간추린 육임 형이상법) 5만원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련본 1권 5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 육임 및 각 오행술 분개 CD프로그램 ◆
· 효사활인천역집2011완결최종판 정가350만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120만원
· 효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효사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효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련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련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 꿈해몽 5만원

◆ 기 타 ◆
· 효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통1권 / 순별6권, B4 / 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효사비결 CD 프로그램 육임일생사/당면판단사완성 (각띠별 확정) 정가650만원
· 군자수첩 육임정수모음 · 저렴한 가격대 정가103만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농 협 301-0071-8027-01/ 육임나라㈜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가능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특강안내

수정기공 Soojung Touch Therapy
대한민국 인증대상(기공부문)
신지식 서비스기업 대상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강 의 : 매월 첫주 시작 4회 완성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전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 043-647-2378, 011-467-1472

'현우경' 이야기 (8)

옷을 입고 태어난 아이

한 벌 뿐인 옷을 벗어 부처님께 공양 올리니…

옛날 인도 슈라바스티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부자에게서 딸이 태어났는데, 얼굴이 매우 예쁘고 몸에는 비단 옷을 걸치고 있었다. 부자는 이를 이상하게 여겨 관상가를 불러 물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 옷에 몸을 두르고 태어났소. 어떤 징조인거 같소."

"아마 이 아이는 장차 큰 복을 받게 될 것이옵니다."

딸이 성인이 되자, 도성 안팎의 남자들은 서로 다투며 청혼을 해왔다. 하지만 정작 그의 딸은 결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딸은 아버지에게 찾아가 청했다.

"아버님 저는 결혼할 마음이 없습니다. 대신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고민 끝에 딸을 부처님께 데려갔다. 부처님은 딸을 보고는 "잘 왔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딸의 머리카락이 저절로 없어지고 입고 있던 옷은 법복으로 변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은 큰 도를 이루게 됐다. 이를 지켜본 아라한이 부처님께 물었다.

"어째서 저 여인은 부잣집의 딸로 어여쁜 외모와 옷을 입고 태어났으며, 출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도를 이루게 된 것입니까?"

아주 먼 옛날 어느 나라에 다니가라는 여자가 살았다. 그녀는 너무 가난한 나머지 자신의 남편과 옷 한 벌을 번갈아 입으며 생활했다. 어느 날 다니가는 남편 대신 동냥을 하러 집을 나섰다.

다니가는 우연히 길에서 한 스님을 만나게 됐다. 스님은 다니가에게 말했다.

"이 나라에는 5년에 한 번씩 보시대회가 열리는데, 지금 보시를 하게 되면 큰 공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니가는 스님의 얘기를 듣고 크게 기뻐하며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삽화 · 강병호

"지금 부처님께 보시를 하면 큰 복을 짓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전생에 보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후생을 위해서라도 우리도 지금 보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소."

남편은 다니가의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설마 나 몰래 숨겨놓은 재산이 따로 있는 것인가.'

다니가 역시 고민에 빠지긴 마찬가지였다. 보시를 하자니 자신에게는 입고 있는 옷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다니가는 고민 끝에 남편에 다시 청했다.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보시하고 싶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오? 지금 이 옷마저 보시한다면 우리는 밖에 나갈 수도 없소."

"어차피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는 법입니다. 저는 지금 죽더라도 이생에서는 꼭 복을 짓고 죽고 싶습니다."

결국 남편은 다니가의 굳은 의지에 감동받아 보시를 허락했다. 다니가는 그 길로 집을 나가 스님을 찾아가 말했다.

"잠시 저희 집으로 같이 가 주십시오."

스님은 다니가를 따라 집으로 갔다. 다니가는 스님에게 문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청했다. 잠시 후, 다니가는 자신의 옷을 벗어 문밖으로 스님에게 옷을 전해줬다. 다니가가 말했다.

"지금 저에게 있는 것은 이 옷뿐입니다. 미천한 옷이라고 괜찮다면 부처님께 공양으로 올리고 싶습니다."

스님은 알겠다고 답한 뒤, 옷을 받아 들고 부처님을 찾아갔다. 부처님 앞에는 온갖 귀한 보석들과 음식들이 공양물이 놓여 져 있었다. 스님이 부처님 앞에 다니가의 옷을 꺼내 놓자 사람들은 경악하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더러운 옷을 부처님께 공양으로 올린단 말입니까?"

그때 부처님은 이 사실을 모두 알아차리시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지금 이 대회에서 가장 훌륭한 보시는 바로 이 옷이다. 다니가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어떠한 보시보다 가장 청정하고 위대한 보시다."

대중들은 이 사실에 크게 감동하며 자신의 옷을 벗어 다니가 부부에게 전해줬다.

부처님이 아라한에게 말했다.

"다니가는 지금 비구니가 된 여인이니라. 그때의 보시로 억 겁의 시간동안 항상 옷을 입고 모자람 없이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법을 듣고 해탈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정진하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구성=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사주학의 새 지평을 연
사주대학 상,하
석삼정 스님은 고대 근대 명리 사주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수세기만에 명리학 역사상 처음으로 100% 적중하는 명리학의 핵심인 체와 의식이분법의 원리를 정립하여 명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명리학계의 찬사와 돌풍을 일으킨 책이다.
체와 의식 이분법으로 전생업보론, 성격독심술, 원근법 등을 사주와 이치를 소상히 기술하여 초보도 독학이 가능하다.


판매처 : 인터넷 서점 yes24, 인터파크, 교보문고 등 전국유명서점
인터넷 서점은 10% 할인 됨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약藥 초草 차茶 (藥을 茶처럼)

소나물 넝쿨

자귀나무
소나무 넝쿨, 자귀나무 藥茶의 효능
양지가 잘 들고 청정지역에서만 자라며 약성이 다양하고 효과가 빠르다.
관절염, 근육통, 류머티스 관절염, 풍습병, 어혈, 편두통, 당뇨 혈당저하 중풍예방(피를 맑게 함), 고혈압, 신경통, 각종 암이나 종양치료에도 쓰일만큼 효능이 뛰어나다.
남성의 양기 부족, 전립선염, 여성의 냉, 대하증, 기침, 가래에도 효능이 좋다. 수도승들이 즐겨 마시던 차이기도 하며 시험,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효능을 발휘한다.
복 용 법
• 물처럼 자주 마신다. (커피 음료수 대신 꾸준히 마신다)
• 가려야 할 음식이 없다.
• 차게 드셔도 되고 따뜻하게 드셔도 됩니다.
상 담 환 영
주문 및 문의 : 055)271-9141
직통전화 : 010-9468-9141 / 010-3456-8851
계 좌 : 농협 352-0165-8680-53 (예금주 신선연)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옳고 그름 따진다면 자유권을 얻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설법을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설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먼저 알아야겠다는 그 마음이, 강렬한 그 마음이 참으로 갸륵하게 있으니까 내 말도 순수하게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때는 감격스럽습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이니까요.

여러분은 놓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성인들이 "우주의 근본과 태양의 근본, 천지의 근본도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알고 보니 너무나 절감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놓고 가기 어렵다는 거, 놓는다는 그 자체가 지금 말로 하자면은 보림(保任)을 하고 한데 뭉친다는 뜻입니다. 뭉쳐놓는다. 한군데로 나고 한군데로 든다는 그것이 바로 놓는 공부며, 모든 업을 무너뜨리는 공부며, 항복을 받는 공부며, 나를 깨닫는 공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로부터 믿고, 나로부터 나오는 거를, 나로부터 들고 나는 거를 누구의 원망도 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고 남한테 따귀를 맞더라도 바로 내 주인공(主人空)에 의해서 그쪽을 움죽거리게 해서 나의 따귀를 때리려니 생각을 하고 오히려 스승으로 아는 것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참다운 공부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말을 해놓고 넘어가야겠기에 말을 합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전체는 지수화풍이 근본이 되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서로 주고 받고 공식하는 것도, 또는 질량이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고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도 그 원천지는 바로 지수화풍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우주가 우리의 지수화풍으로 된 집이라고 해도 되고, 혹성을 집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 몸뚱이를 집이라고 해도 됩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집입니다. 그 집이 아니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고 우리는 움죽거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시쳇말로 하자면 원자와 전자 양개체가, 양자가 한데 합쳐져서 중성자가 됩니다. 그 중성자는 바로 우리가 법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왕 · 자유인 · 권도(權道)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인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권도법(權道法)을, 중용으로써 용도에 따라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저는 십 년이고 이십 년이고 삼십 년이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잘 아신다면 양자가 한데 합쳐지면 중성자가 된다. 그래서 양면을 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맡겨놔라. 아무리 넣어도 두드러지는 법도 없고, 아무리 내놔도 줄어드는 법이 없다. 그런데 묘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양자가 다 중성자가 된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두 전체가, 태양계도 그렇고 달세계도 그렇고, 혹성이든지 은하계든지 다 그렇습니다. 나로부터 상세히 알아라 이겁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알지 못하는 것을 그저 남의 소리나 듣고서 한마디 내놓는다면 그것은 한데 떨어지기가 쉽다 이겁니다.


그림 · 최주현

부처님이 사십구 년을 설하여 주신 그 뜻을 우리가 올바로 거름으로 삼아서 그 속을 빼 볼 수 있고, 내 속과 그 속이 둘이 아님을 알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 주인공에 놓아야 합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내 주인공밖에 없다.' 하고 돌려 놓고 또 좋은 것은 '주인공, 감사하구나.' 하고 놓아야 됩니다. 남한테 일러줄 때 그 말만 일러주면 되는 거지 더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몸을 혹성이라고 한다면, 또 집이라면,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집 안에 중생들이 선업이든지 악업이든지 천차만별로 자기가 한 것만치 인연이 돼서 한데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苦) 하나만 없애면 전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고집멸도(苦集滅道)의 사제법(四諦法)에 고 하나만 없앤다면, 그것을 녹일 수만 있다면, 그것을 놓고 돌아간다면 다 없어지는 거죠. 집도, 멸도, 도도 말입니다, 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나오실 때 물주머니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것은 과거 수십 억년 전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없이 알리기 위한 선언입니다. 물에도 지수화풍이라는 근원에 의해 바로 생명들이 살고 있고 지수화풍이라는 그것도 생명이 있는 거고 흙이나 산도 그렇고 모두가, 안개도 이 물에서 올라가서 전부 우주간 법계(宇宙間法界)로 통신을 합니다. 그러나 그뿐입니까? 물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것들도 전부 올라갑니다. 흙과 물과 같이 올라갑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일년에 세 번씩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물이 세 번씩이나 갈라졌다 오무라졌다 하는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것이 화(化)해서 안개가 되고 구름이 되고, 구름이 되면은 안개는 우주간 법계의 통신망이 되는가 하면 우리 생명들에게도 전부, 즉 말하자면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후각적으로 모든 것을 충만히 차원대로 연락이 통하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수화풍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전력, 광력, 자력이 충분히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구름은 구름대로 이 세상에 냉기가 돌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원력으로 화(化)하게 되고, 뜨겁게 할 수 있는 원력으로도 화하게 되고, 또는 멸할 수도 있고 승화시킬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고, 이러한 능력들을 그 큰 구름덩어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큰 구름덩어리뿐만 아니라 조그만 것도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수화풍이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허무하다고 그러지만 그 물질이 아니라면 그러한 진화력과 그런 통신력과 그 자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도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너무도 많아서 하나도 가질 게 없어야 하나도 버릴 게 없고, 버릴 게 없어야 하나도 가질 게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발이다. 아니 딛는 데가 없노라."라고 하셨습니다. 발이 정말 평평하게 생겨서가 아니라, 아니 딛는 데가 없고 손이 아니 닿는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나 아님이 없느니라!" 요 말을 잘 들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태양에도 해당이 되고 은하계의 별성에도 해당이 되고 달세계도 해당이 되고 온갖 혹성에도 다 해당이 되면서, 우리 인간에게도 해당이 되고 벌레에도 해당이 되고 물에도 해당이 되고 어디고 이 삼라만상 대천세계에 아니 닿는 데가 없이 다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 중성자로 인해서 비서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즉 말하자면은 원자와 전자가 한데 합쳐서 중성자가 되면 중성자라는 그 비서는 항상 조절을 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자유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

☞ 30면으로 계속

영남 범음범패 전문 교육

전통사찰 안정사 영산재 교육원 불교의식 (범음, 범패) 학인모집

1)초급반 : 사물(요령,목탁,태징,법고)다루는 법.
도량석,쇳송,각단예불,의식

2)중급반 : 상주권공, 신중작법, 대령관욕, 천도재(49재), 각종의식

3)작법반 : 오공양작법, 다게작법, 요잡작법,
천수바라, 요잡바라, 관욕바라, 사다라니바라

4)고급반 : 운심게, 삼귀의작법(초급,중급 수료자에 한함,)

▣ 개강일시 : 2012년 2월 7일 (화요일). 매주 화,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6시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사진2장 (상시 모집)

* 본원은 종파를 초월한 교육도량으로써 수료증 수여, 승려후보생도 수강 할 수 있으며 승려수계득도, 포교원 지도편의도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전통의식을 수강 할 수있습니다.

전통사찰 안정사 강원

(사)안정사 영산재 보존회 영남범음범패 교육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954-3 055)649-6711
팩스 055) 649-6712 HP : 011-874-6775

금강경 강의

홍법스님과 함께하는 쉽고 재미있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금강경 기도와
관음기도로 그 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은
저의 눈높이 만큼 금강경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1.일 시 : 2012년 3월 8일(목)
오전 10:00~12:00 1회
오후 19:00~21:00 2회

준비품 : 금강경 책자와 필기구

대 상 : 누구나 공부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누구나

동참금 : 월 5만

* 설법 내용으로도 좋습니다.

2. 氣 명상 수련반 모집
3. 매일 금강경 기도와 관음기도
4. 빙의 현상, 현대 불치, 난치병 치료
5. 자기 원불과 기도방법 알려 드립니다.
6. 생활, 인생상담 및 제반사항 상담
7. 각종불공, 천도재, 바라춤, 오공양 작법, 태평소 대행

부산 진구 부암 3동 458-141
참회 관음기도도량 홍법사
향림 홍법 합장
문의 : 010-2570-8512

제1회 한국불교 홍익범패단 학인 모집 (서울범패)

소승은 한국불교 범음범패 및 불교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10여년을 연구하고 공부해 온 염불승으로서 한국불교 홍익범패단 창단을 꿈꾸고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께서는 직접 오셔서 일차로 청강하시고 뜻을 함께 하실분은 연락바랍니다.

강 의 내 용

1. 기초 : 삼위의, 사홍서원, 거불, 도량석, 종송, 조석예불, 사시불공, 요령, 목탁, 태징,북 등 사물 다루는 법.
2. 중급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청, 상용영반, 관음시식, 고혼소, 봉청(짓소리), 39위, 복청게, 고혼청, 헌좌게, 진령게, 칠언사구성, 가영, 향화청, 고아일심귀명정례, 긴소리, 짧은소리
범패 – 요잡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도량게, 다게, 법고춤, 호적
3. 상급 : 시다림, 다비, 일반장례, 산신제, 용왕제, 방생, 생전예수재, 수륙재, 종사이운, 괘불이운, 종사영반 화청, 공덕게

■ 개강일시 : 2012년 3월 27일(화요일) 오후2시 ~ 6시까지
■ 접수기간 : 수시모집
■ 회 비 : 월10만원, 6개월 50만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장
■ 장 소 : 김해사암연합회 불교문화원 3층 법당
■ 주 소 : 김해시 홍동 7-5번지
■ 전 화 : 055)322-0088 / 055)332-1675
■ 강 주 : 민지효 010-4466-3575

창 종 5 주 년 기념 대법회 공고

본 종단에서는 창종 5주년 맞아 충남 금산에서 결식노인 및 불우 중증장애인 돕기, 국태민안 및 경제 살리기 영산대재를 불기 2556년(서기 2012년)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불교계의 모든 종단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모든 동참 신도님 조상 무료천도) 동참하시는 모든 종단 대덕스님과 사찰의 주지스님께는 감사패를 수여하고 버스도 무료로 보내드리겠으며 참가 신도님들께는 본 종단의 선물도 증정하겠습니다.

행사의 준비 및 원만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문의하셔서 상의 바랍니다.
(동참금은 결식노인 및 장애인의 무료급식을 위해 쓰겠습니다)

불기 2556년 2월 15일

사단법인 대한불교연합조계종 총무원장 혜일 합장
공익법인 함께 잘사는 장애인 운동본부 대표 김성술

직통 HP 010-2383-5533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 주인공에 놓아야 합니다.

☞ 29면에서 계속

분도 운전수가 몸뚱이를 끌고다닌다면 그 기름은 자동적으로, 아무 고정 관념이 없이 술술술술, 24시간 살아나가는 데도 자꾸자꾸 화(化)해서 찰나찰나 이렇게 살죠? 내가 항상 말씀드려서 아시겠죠, 그거는.

물론 은하계에 속해 있는 태양도 있는가 하면 태양의 도움을 받고 있는 지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다면은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데 아는 것을 왜 얘기하나 그러겠지만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체가 인간의 마음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도리를 알면.

또 그보다 더 묘하고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냐. 모든 생명들의 이 껍데기는, 집은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 껍데기 짧거나 길거나 수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도 먹고 먹히고, 쫓고 쫓기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런 우주세계에도 별성과 별성이 서로 쫓고 쫓기고, 먹고 먹히고 또 혹성들도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으면 작은 것대로 차원에 따라서 먹히고 또는 먹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성자의 문제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거고, 이 우주의 근본의 원리도 다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중성자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빛을 내서 여러분이나 과학자들한테 알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보여야 책정을 해서 연구를 할 텐데 보이지 않습니다, 중성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때에 조그마한 것들이 잡혀먹힐는지, 어느 때에 폭발이 될지, 우리 사는 데에도 그렇듯이 그런 문제들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우리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가, 진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공부를 아니 하면은 아니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평발이요, 평손이요, 둘이 아니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상세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은하계에서도 물론 별이 크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빛깔도 엷고 붉고 이렇게 서로 다른 문제들이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에도 차원이 있듯이 그것도 차원에 따라서 강렬하게 빛을 내는 것이 있고 희미하게 빛을 내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별이 차원입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 것은 힘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빛이 없어지면, 늙은 것이 돼서 껍데기를 세 껍데기만 벗으면은 다시 별성이 강렬해지고 다시금 태어나는 것입니다. 별성 하나가 여섯 개를 만들 수도 있고, 아홉 개를 만들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바로 구십 개를 만들 수도 있고, 별성은 이렇게 많은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은하계의 별성만이 그런 게 아니라 태양도 강렬하게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적게 축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크게 승화를 시킬 수 있는가 하면 미신으로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자기'입니다. 지금 상반되는 걸 비교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계에서도 그렇게, 즉 말하자면 한 원자가 즉, 중성자에 관한 건이 있으면 이 원점이 그걸 조절을 해서 비서 노릇을 잘합니다. 이건 인간과 같습니다. 모두가 같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깨달으면 전체를 안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다면 또 구름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구름, 가스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수만 가지 지금 과학적으로 이름을 따지고 본다면 수소니 탄소니 이산화탄소니 하는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동일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름이 다르더라도. 우리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눈, 귀, 코 이름이 다릅니다. 입도 또 다릅니다. 그렇지만 다섯 가지가 다 포함돼서 돌아간다 이겁니다. 조금씩은 다르지요. 듣는 거 다르고, 보는 거 다르고, 냄새 맡는 거 다르고, 말하고 맛을 아는 거 다르지만 그러나 한군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마음을 조절한다면 그거는 바로 둘이 아닌 까닭에 역할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도리를 몰라서 조절을 못한다면 수십억 년 후에는 어떨지,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나갈지, 이런 문제들이 빨리 닥칠지 늦게 닥칠지는 아무도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언제 죽느냐. 나이가 들어서 죽느냐, 젊어서 죽느냐 책정할 수 없듯이. 또 그것도 그거지마는 크게 팽창을 하느냐 적게 축소가 되느냐는 것도 그 가스의 탓이요, 중성자의 탓이란 얘깁니다. 그러면 모든 것, 즉 구름, 가스가 천체의 활력이 크다는 거, 안개와 구름이 활력이 크다는 거. 즉 말하자면 은하계에서도 지금 시쳇말로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진 물과 같은 안개라고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그걸 수소라고 이름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가스가 한 가지 두 가지만 아니라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아홉 가지까지 화(化)해서 진화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그 태양의 뜨거운 걸 조절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생명체가 땅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수화풍 속에서 우리 인간의 생명이 나왔고, 지수화풍이 길러주기도 하고…, 생명을 낳게 해가지고 길러주기도 하고 이끌어주기도 하는 건 전체 지수화풍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도 지수화풍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사는 것도 지수화풍입니다. 바람과 더불어 전체가 화해서 공기가 되는데 만약에 공기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각각 따져놓고 본다면 물이 없어도 우린 살 수가 없고 불이 없어도 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수화풍이 안에도 있지만 바깥에도 있어. 지금 안에도 공장장이 많고 공장이 많아. 위 공장이니 장 공장이니 방광 공장이니 췌장 공장이니, 이자 공장이니 하는 그 공장을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그런데 그것을 이끌어가지고 나가는 회장이, 선장이 바로 운전수나 마찬가집니다. 우리 몸을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자동차를 이끌어가는 운전수 말입니다.

지금 구름이나 가스나 물이나 올려주면 내려오고 내려주면 올라가면서 그렇게 묘법이 수없이 천만 가지로 나고, 내려올 때에 천만 가지로 그렇게 통신이 되고, 사람들을 길러주고 생명을 낳게 합니다. 그 차원대로 말입니다. 그렇게 묘한 법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다면은 조절을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고장마다 닿지 않는 데가 없고, 딛지 않는 데가 없고, 내 몸 아닌 데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체험을 해보니까 부처님 말씀의 뜻이 내가 태양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여기서 저기를 육안으로 봐서 보는 게 아니라 태양이 곧 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멸하거나 터지지 않게 심안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비유하자면 아주 큰 하마 같은 입이 조그마한 혹성과 별들을 집어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절을 하는 거, 이런 것도 모두가 태양이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태양이 될 수 있고, 내가 다른 은하계가 될 수 있고 그 천체 한마음이 내 마음의 근본이 될 수가 있고, 내 근본이 바로 저 은하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아님이 없는 것이요, 내 자리 아님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몸 아닌 것이 없고 모두가 둘이 아니니라. 그래서 색(色)이 공(空)이요, 공이 색이니라. 양자가 합쳐진다면 바로 그게 주장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의 불성이라는 문제입니다. 불성은 기다랗게 작대기도 됐다가, 똥그렇게도 됐다가, 아주 유연하게, 대가리만 탁 들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재권. 자재권을 가졌기 때문에 삼천대천세계의 어느 거든지 내가 아니 되는 게 없다 이겁니다. 꽃 한 송이, 저런 나무 한 그루, 어떠한 식물이나 동물이나, 여러 가지로 말해서 일체 생물이 다 될 수 있는 거. 그러니 살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죽은 세상에도 내 자리 아님이 없는 것이 유(有)·무(無)를 한데 합쳐서 한자리라 이거야, 한 자리. 그래서 바리때의 공양을 한 그릇을 잡숫고, 앉으셨다 이거지.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에 이 도리를 공부를 안 하신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닥쳐 있는 것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苦) 하나만 없애면 된다 이런 것은 고 하나만 없애면 전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천상 인간에도 머무르지 말라고 그랬거늘 선(善)으로 나간다 악으로 나간다, 이건 잘못된 거고 저건 잘된 거다 하는 것을 배운다면 여러분은 이 공부 못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은 옳은 일이고, 이것은 그른 일이다 이렇게 배우신다면 이 공부는 영 못 합니다. 자유권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그른 것으로만 끝이 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잘되는 걸로만 끝이 나는 것도 아니라, 잘되는 걸 취하다 보면은 어딘가가 잘못되는 수가 있고, 잘못되는 걸로 취하다 보면 잘되는 수도 있어. 양면을 다 놔야만이, 양 개체를 다 놔야만이 참 나를 발견한다는 얘기죠.

지금 내가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여러분은 업식으로써 뭉쳐진 인연 때문에 눈이 안 보여. 이 의식만 가지고서 죽어서 돌아다니다가 새 둥우리로 안 들어가나, 개구리 둥우리로 안 들어가나, 뱀 소굴로 안 들어가나, 소로 안 들어가나. 보질 못하니깐 짝짓기를 하는데 사람이 그러는지 새가 그러는지 몰라. 뱀이 그러는지 짐승이 그러는지 그걸 분간을 못하니까 그냥 그리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한 철만 나고 달리 화(化)한다면 좋은데 거기에 물이 들어서 의식이 물질로만 보고 물질로 사는 법만 알아서 내가 먹고 살아야 하고, 쫓아야 하고, 먹어야 하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그 모습에서 세세생생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 그 새끼로 태어나서 어미가 되고 어미로 태어나서 또 그 새끼가 되고, 벗어날 수가 없으니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어렵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서 그 도리를 모르면 죽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간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무엇이 인간으로 그 애를 쓰고 나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이 또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른다면 그건 헛겁니다, 헛거!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름을 갖고 나온 인간이, 수십억 년을 거쳐서 모습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어려운 진화를 해서 인간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갈 순 없지 않습니까? 응? 세상에 어찌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도리를 알고서야 어찌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태양계도 그렇게 커질 수 있고 별성도 커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악으로 커지면 큰 일이고 선으로 커진다면 그것은 좀 낫지. 응?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뚱이 속에도 수십억 마리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별성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내 선장 한마음에 의해 그 수십억 마리가 보살로 화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천백억 보살이 화해서 전자로서 원자를 끼고, 원체를 끼고 바깥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용도에 따라서, 누가 이 보살을 청하면 이 보살로 화하고, 저 보살을 청하면 저 보살로 화하고, 지장을 찾는다면 지장으로 화하고…. 그러니 지장이 따로 있고, 관세음이 따로 있고, 신장이 따로 있고, 독성이 따로 있고, 용왕이 따로 있고, 지신이 따로 있고, 조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마음에서 바로 모두가 화해서, 그 별성이 전부 보살로 화해가지고 들고 나면서 멀다 하지 않고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놓는다는 것은 지금 말로 하자면 보림을 하고 한데 뭉쳐놓는다는 뜻입니다.
한군데로 뭉쳐놓는다.
그것이 바로 모든 업을 무너뜨리는 공부며 나를 깨닫는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 믿고
나로부터 들고 나기에 누구의 원망도 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고
남한테 따귀를 맞더라도
바로 내 주인공에 의해서 상대를 움죽거리게 해서 나의 따귀를 때리려니 생각을 하고
오히려 스승으로 안다면 그것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참다운 공부입니다.

※위 법문은 1989년 3월 19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국제붓다자비봉사단)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불자 세상보기

공직자의 거짓말과 막말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일반 국민들이 사회지도층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 사람의 출중한 능력 못지않게 도덕적인 자질도 훌륭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소박한 바람은 대부분 실망과 분노로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 지난 몇 달 동안 시중에는 국회의장의 속보이는 거짓말과 일부 판사들의 거리낌 없는 막말이 두루 회자됐다.

결국 국회의장은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했고, 논란의 중심에 섰던 판사들은 반드시 그 이유만은 아니라고 하나 결과적으로 징계나 인사의 불이익을 통보받았다고 전해진다. 이 두 사건을 두고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이 고작 이 정도의 의식 수준을 보여줄 수밖에 없단 말인가라는 자괴감이 들었다면, 일종의 도덕적 강박관념 환자일까.

개인적인 시각 차이는 있겠지만 금방 드러나게 될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해대는 국회의장과 SNS에 '가카의 빅엿'이라거나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글을 올리는 판사 등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람직한 공직자 모습은 아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면서 판사의 중립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치적 탄압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아직은 우리사회의 정서상 대통령을 그렇게까지 희화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국회의장의 거짓말은 파렴치한 짓이 분명하고, 판사들의 막말은 최소한 품위 있는 행동은 아니라는 지적에 대체로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고 있듯이 말을 제 때, 잘 가려서, 올바르게 하기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모순적인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깨우쳐 주신 여덟 가지 바른 길, 즉 팔정도 가운데서 바른 언어생활에 해당하는 '정어(正語)'의 가르침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 글자 그대로 옮기면 '올바른 말'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지만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도덕적 뉘앙스는 자못 의미심장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業)'에는 이른바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종류의 업이 있지만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짓고 있는 업의 대부분은 이른바 '구업(口業)'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말은 행동에 앞서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내뱉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리라.

누구나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를 모면하기 위해 일단 말을 둘러대기 쉽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불쑥 험한 말이 튀어나오게 마련이다. 열려 있는 입을 제대로 단속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입이 무거운 사람을 가리켜 생각이 깊고 신중한 사람으로 높이 평가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부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친절하게도 우리와 같은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 입으로 지을 수 있는 네 가지 악행을 자세하게 일러주신 바 있다. 이른바 망어(妄語)와 악구(惡口)와 양설(兩舌)과 기어(綺語)의 가르침이 곧 그것이다. 이를 현대적인 용법으로 바꾸면 각각 거짓말과 욕설 또는 막말, 그리고 이간질하는 말과 의도적으로 꾸며서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람들은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며 때로는 본의 아니게 오해를 낳는 말도 하고 또 그럴듯하게 말을 포장하기도 하면서 산다는 사실이다. 그 자체를 두고 왈가왈부하면 우리들의 삶이 어쩌면 너무 무미건조해 질지도 모를 일이다. 다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시비의 대상으로 삼고자 할 따름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의 잡아떼기 식 거짓말과 사안의 옳고 그름을 엄정하게 판단해야 할 판사들의 가벼운 입을 못마땅해 하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어의 참뜻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것도 참된 불자의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현 듯 스쳐 지나갔다.

사부대중 칼럼

그래도 아프지 않은 유년의 기억



김윤희
월간 맑은소리맑은나라 발행인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초등학교에는 지금도 플라타너스 무성한 자태로 유년시절의 동화 같은 이야기를 머금고 있다. 지금이야 분교로 전락해버려 교사(校舍)의 한 곳에서는 유치원이 들어서 있고 아이가 귀한 시대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마음 속 푸른 나무는 지금도 여전하다.

그 솜털 같기만 했던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때, 난 학교가 뒤집힐 정도의 대사건의 주인공 아닌 주인공이었다. 키 높은 담장을 훌쩍 넘나들던 그네 타기는 그 시절 가장 신명나는 운동장의 놀이기구 가운데 하나였다. 순서를 기다려 돌아가며 타던 그네는 사건이 있던 그날, 내게는 흉기에 되어 날아든 비수가 분명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신나게 발을 굴러 그네를 탔고, 여느 때처럼 주변에는 삼삼오오 또래의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거나 높이 나는 그네의 움직임을 따라 까만 눈동자를 아래로 위로 굴리던 친구들이 있었다. 그렇게 최고라는 평점을 얻으며 그네를 운전했고, 5교시가 시작되기 전 학급의 수업준비를 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평소의 시간보다 빨리 그네에서 몸을 내렸다.

순간, 옆에서 관망 정도의 시선을 보내오던 같은 동네의 남자 녀석이 다른 녀석에게 " 때려!" 라는 말을 했고, 그 녀석은 이내 내가 내린 그네의 쇠발판을 들어 내 얼굴로 던졌다. 순간, " 쟤봐, 어떡해! " " 아악! 피 좀봐!" 라는 소리가 들렸으며 나는 그 길로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떠 보니 병원의 네모가 반듯한 하얀 천장이 눈앞에 있었고, 부모님은 너무도 경직된 모습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계셨다.

병원에서 하루쯤 있었던 것 같고, 어린 나의 눈술 위에는 손바닥만 한 크기의 하얀 거즈가 턱 하니 붙여져 있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난 그런 모습으로 일주일 정도 집에 머물렀고, 교육대학을 갓 졸업하고 학교로 부임해 온 담임선생님과 같은 반 친구들의 병문안이 줄을 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가을날의 빨간 홍시를 입에 떠 넣어주시던 엄마, 하얀색 우유를 사 오신 선생님. 그러나 상처를 입은 연약한 입술은 그 작은 스트로우를 빨아들이지 못했다.

일주일 여를 보내고 학교에 가니,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위로가 답지했고, 가해자와 옆에서 가해를 불러일으킨 최초 공범인 녀석은 얼마나 많은 꾸중을 듣고 벌을 섰는지 기가 모두 빠져나간 듯, 교실의 한 구석에서 중역 죄인의 모습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 뿐이 아니었다. 직접 가해를 입힌 녀석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친구 아들이었기에 제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와서 무릎을 꿇었고, 시킨 녀석의 엄마는 마치 나를 당신의 혈육인 양 안으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이 지어졌고, 다행히도 읍사무소 옆에 있던 작은 의원의 의사선생님은 감쪽같이 내 입술을 본래대로 만들어 주셨다. 5학년이 되며 난 고향에서 가까운 대도시로 전학을 했고 고향을 찾을 때마다 그 의원의 간판을 감사의 마음으로 지그시 바라보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녀석들의 가해 이유는 명확치도 않아 지금도 내게는 숙제로 남아 있다.

허나, 나는 알고 있다. 학급의 반장이라는 이유로 알게 모르게 녀석들에게 얼마나 실력행사를 했기에 벼르고 벼르다 못한 녀석들이 분노에 차 불쑥 일을 저지른 것이었을까를 말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저지를 리 만무하다는 나대로의 결론이 있어 난 성인이 되고도 지천명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조금도 녀석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도 더욱 감사한 것은 여자애의 얼굴에 그것도 가장 민감한 입술에 상처를 입혔음에도 나의 부모님은 가해 학생의 부모와 담임선생님, 학교 측에 대고 한 마디의 분노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며 병원비 또한 운운하지 않으셨다는 거다.

세상의 이치는 언제나 인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라도 하듯 부모님의 자량(慈量)은 너무도 탁월하셨다. 더욱이 사내 녀석으로서 힘의 논리를 쓴다는 것이 감당 못할 일로 일파만파가 되자, 근신과 반성으로 지내며 내 앞에서는 얼굴도 못 들고 살아가는 나와 똑같은 지천명을 바라보는 시대의 주역들인 친구 녀석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빙그레 미소가 번진다.

인과법, 혹은 연기법으로 귀결되는 우주의 이치를 또렷이 이해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는 일도, 자녀들이 또래들과 어울리는 일도 지금처럼의 무질서로만 횡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도록 정신을 리드하는 절에서부터 인식을 심어줌이 선결되어야 하고, 그를 불교인이 앞장서서 일구는 세상이 도래하기를 푸르른 내 유년처럼 되돌리고 싶다.

社說

룸비니 동산에 내린 꽃비

석가모니 부처님은 2500여 년전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났다. 인도 쿠시나가르에서 열반을 하고,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방방곡곡으로 나뉘어 모셔졌다. 정작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동산에는 사리가 봉안되지 못했다. 사리가 곧 부처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처님오신곳에 부처님이 안계셨던 셈이다.

이런 가운데 도선사108산사순례회가 2월 15일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에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기념비와 탄생불을 조성한 것에 불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한국불교계의 원력으로 탄생지 룸비니 동산에 진신사리를 모셨다는 점도 의의지만 그보다 네팔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양국 불교우의를 증진했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자타불이(自他不二) 세계일화(世界一華)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모르고 살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네팔 그리고 사리를 기증한 인도 불자들이 부처님 제자라는 형제의식을 갖고 친교를 더한 인연의 자리인 것이다.

행사장에서 네팔 정부는 한국 불교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헬기를 동원해 하늘에서 꽃비를 뿌리기도 했다고 한다.

룸비니동산에 한국과 네팔 불자들이 세운 평화와 상생의 서원이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제안하고 조계종과 유네스코와 함께 하기로 한 룸비니 복원사업의 성공적인 회향으로 이뤄지길 기원한다. 먼 한국까지 와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네팔 등 이주민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역시 내리던 꽃비처럼 아름답게 변화하기를 바란다.

유물기증, 종단의 제도화 필요

문화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때, 불교중앙박물관이 유물기증 운동을 시작한다.

유물기증운동은 근현대 고승대덕스님의 소장유물을 수집하는 사업이다. 유물 기증 대상은 종정스님 등 조계종 고승대덕스님들이다. 총무원장스님 등 중앙교역직 스님들도 대상이다.

수집대상 유물은 스님들이 평소 사용하던 염주 가사 발우 주장자 장삼 불자 죽비 도자기와 평소 모시던 원불 등이다.

문화유산인 성보는 개인소유물이 아니다. 조계종 스님들의 사유재산도 사후에는 종단귀속을 통해 무소유를 실천하지 않는가.

불자들은 안다. 큰스님들이 삼보정재로 마련돼 출가사문답게 위의를 갖추게 한 염주 가사 발우 주장자 등에 집착할 리는 없다는 것을.

그러나 문중에 기증해 각 사찰 성보박물관 등에 보관할 것인지, 종단에 기증해 불교중앙박물관에 소장시킬 것인지의 문제는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종단이 유물기증운동에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종법 · 종령 제정을 통해 유언장 작성처럼 제도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IMF당시 서민들만금을 내다팔고 정작 많이 가진 사람은 오히려 사들였던 것과 같은 한심한 광경이 박물관에서 되풀이될지도 모른다.

대덕 큰스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불교중앙박물관이 성보로 넘쳐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화제의 신간
궁합 사주명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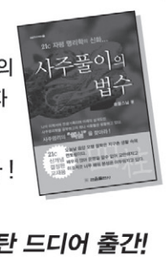
「天地陰陽의 兩氣는
春夏秋冬에 降하여 그 時에
生을 주어 有用한 것은 吉이 되고,
無用한 것은 凶이 된다!」
진짜 궁합 내 인생을 바꾼다.

하늘은 이미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各各 命을 지니고 있다.
天理에 의하여 生하였으니 天理에서 벗어날 수 없다.
人事 뿐 아니라, 萬物은 모두
天地의 氣에 의하여 生生化育되는 것이다.

■ 眞性 임동균 著 / 신국판 / 양장본 / 656쪽 / 정가 45,000원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四柱 사주풀이의 법수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전국 서점 판매중!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新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50,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4×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子平眞詮精解 우명 서상덕 역 · 저/신국판/4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옻가네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피를 맑게, 아침을 생기있게…"참옻 덕 봤죠"

옻은 만성설사 · 변비 · 소화불량 · 위무력증 · 위하수증세 · 위염 · 위궤양 · 위암 · 수족냉증 · 자궁근종 · 생리불순 · 당뇨병 · 관절염 · 신경통 · 만성피로 해소와 정력 강화, 어혈제거, 혈액순환 등의 효과가 있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옻의 산 성분이 강한 항암 · 항산화 및 항균활성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됐고, 아토피와 당뇨에도 좋다고 조사됐다. 다슬기는 칼륨 · 나트륨 · 아연 · 망간 등 성분이 들어 있어 간에 좋은 작용을 한다. 조상들은 예부터 시름시름 기운을 못차리면 다슬기를 달여 간의 조직 원료가 되는 청색소를 공급해줘 간기능을 회복시켰다.



토종 참옻을 이용해 국내 최초로 상품화에 성공한 지용우 옻가네 대표

피로 회복 · 혈액 순환에 좋은 참옻 옻가네, 식품의약안전청 승인 받아 믿고 먹는 현대인의 건강 지킴이

옻추출물은 류머티즘관절염 치료뿐만 아니라 피를 맑게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희대 척추관절센터팀은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 하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류머티즘관절염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옻의 효능을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경희대 한방병원은 "한방치료는 순환기능을 개선해 어혈을 제거한다"며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 하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해 치료한다"고 설명했다. 여성에게 많은 류머티즘관절염도 옻을 이용하면 어혈 제거를 통해서 염증이 자연스레 소멸된다.

· 참옻다슬기진액

옻가네에서는 옻이 오르는 것을 극복하여 옻오름 염려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참옻제품을 선보였다. 국내에서 옻오르는 성분을 제거하고 옻의 유효성분만 그대로 유지되도록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옻가네가 유일하다.

몸에 좋은 참옻과 다슬기의 영양을 더한 옻가네의 '참옻다슬기진액'은 해독작용, 간기능 회복, 피로회복, 혈액순환, 노폐물 제거 등 다양한 기능으로 피로에 지친 현대인들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옻가네에서는 옻나무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순수 국내산 참옻만을 사용하여 '참옻 발효진액' 등을 판매하고 있다.

· 참옻발효진액

옻나무는 세계적으로 600여 종 존재하는데 이중 한국 · 중국 · 일본 등 아시아에서 자라는 나무들만이 약재로 사용된다.

한국의 옻나무 수액은 우루시올 함량이 60%로 다른 나라에서 자라는 옻나무에 비해 함량이 10%정도 많고 약효도 뛰어나다. 특히 강원도에서 나는 옻이 유명하다.

· 홍삼참옻 위간보

옻의 효능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이 바로 옻가네의 홍삼참옻 위간보다. 위간보는 만성적인 속병을 다스리는데 효험이 뛰어난 참옻진액에 발기부전 치료효과가 있는 마카 성분과 유황오리를 함께 달여낸 고농축액으로 휴대용으로 간편한 파우치 포장제품으로 만들었다.

위간보의 주성분 옻은 만성 속병(만성설사 · 변비 · 소화불량 · 위염 · 위궤양 · 위암) · 수족냉증 · 부인병(자궁근종 · 생리통 · 냉증) · 당뇨병 · 관절염 · 신경통 · 만성피로에 좋고 정력강화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속이 아프거나 숙취가 심한 경우, 멍이 잘 들고 뼈속이 시리다고 느끼는 경우, 입냄새, 생리불순, 생리통이 심한 사람, 소변량이 적고 잔뇨감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 더욱 좋다.

옻 산성분이 항암 · 항산화 · 항균활성이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도 있다. 옻나무의 수피 및 목질부에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 및 전이를 억제하고 정상 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한다. 아토피 치료, 당뇨수치를 낮추는데도 효과가 좋다.

또 옻은 노폐물, 나쁜 피를 삭히는 살균작용으로 혈액 · 체액 순환을 돕고, 몸 안팎의 상처 · 염증이나 장부 · 혈관의 만성 질병을 낫게 한다. 여성 갱년기 증상 자궁건강에 좋고, 어혈을 풀고 강장효과가 있어 임산부들의 산후 관절시림 증상을 치료하는데도 많은 효과를 보았다.

· 식품의약청에서도 인정한 옻가네

옻가네 제품은 특허청의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미국 FDA의 승인은 물론 최근에는 옻 안타는 참옻개발로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 대통령포장을 수상했기에 믿을 수 있다. 휴대용으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파우치 제품으로 출시돼 더욱 편리해졌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우르시올에서 추출한 MU2성분이 혈액암과 폐암, 위암세포 등에 강한 억제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하기도 했다. MU2성분은 항산화 기능도 있어 치매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산 옻나무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후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 형성을 억제함으로써 암세포의 증식이나 전이를 방지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옻은 어혈을 제거하고 피를 맑게 하는 효능이 있고, 만성위염과 지방간 등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법인 옻가네는 참옻을 이용해 옻닭 조리용, 한의원 치료용,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농업법인이다. 대부분의 제품을 식약청 안전성 인증을 받았고 지적재산권 9건을 확보했다.

· 옻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

우루시올(옻의 주성분)은 대부분 옻나무껍질 주변에서 생성된다. 따라서 옻의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반드시 수피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일부 제품은 물이 아닌 고형분 함량이 낮은 경우도 있다. 옻 제품을 구입할 때는 고형분 함량이 높은 지, 수피가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참옻진액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옻을 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자주 먹는 것도 위험하다.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독성을 제거한 옻의 경우는 간에도 좋은 약이 된다. FDA승인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은 옻가네의 제품은 독을 제거하면서도 약효는 그대로 지니고 있어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산 토종 참옻나무

소비자들이 옻가네 참옻제품을 신뢰하는 이유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

2011년 10월 13일

옻이 안타는 토종참옻 개발로 최고의 영예 대통령포장 수상했습니다

2011년 10월13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에서 최고 대상(산업포장)은 농업법인옻가네 지용우 대표가 영예를 받았습니다. 옻가네는 옻안타는 참옻을 국내최초로 상품화 하였으며 발효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로 국민 건강은 물론 농촌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로 영예의 대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옻가네 토종참옻, 15년 역사 이래 꾸준히 국민의 사랑과 신뢰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 수상 / 사단법인 한국대학발명협회 하이브리드기업 확인서 / 2010 대한민국식품대전 최우수상 수상 · 식약청장상 수상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 · 은상 수상 / ISO 9001 인증서 /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 FDA 인증서

국내에서는 식약청 (KFDA)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 미국식품안전청 FCS/SID제조업체등록, 공정과정등록 / 특허청

- KBS 아침마당 냉증, 가볍게 보지 마라 김달래 경희대 한의과 교수 2011.7.14
- MBC PD수첩 ○기적의 암○○제인가? 2011.6.7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몸을 바꾸는 건강법- 체온건강법 2011.1.7
- MBC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6시 내고향 2010.2.16
- SBS 출발 모닝와이드 2009.10.2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환경 스페셜 악이 되는 독 2006.11.22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폐경 10년만에 생리가 다시 시작 박○○ 1949년생 1월생 61세

저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살고있는 61세 여성 입니다. 2010년 초봄 경인에 지인으로부터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참옻진액 제품을 구입하여 복용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소화기능이 약해서 잘 체하고 고기나 멸가루 음식과 찬음식도 잘먹지 못하고 손발과 아랫배도 차거워 변비가 심했고 신경이 예민해서 깊은잠을 이루지 못하여 신경외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약 10년동안 약을먹고 잠을 잤은 점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3일정도 복용 했을때 아랫배가 빵빵해 지더니 2일째 부터 변이 정상적으로 많은양이 나오더니 속이 후련한 점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되고 속이 아주 편안해지고 입맛또한 좋아지고 나니까 뱃속에 항상 체했던 증상이 사라지고 아프던 허리가 좋아지고 3일정도 복용 했을때 폐경된지 10년만에 생리를 5일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0봉은 다먹고 나니까 10년동안 꺽인 수면제도 먹지않고 깊은잠을 잘수있고 이제는 고기나 멸가루 음식을 아무데로 가리지 않고 먹을수 있고 소화도 잘되고 변도 매일 잘볼수 있고 혈도 확 좋아져서 몸이 아주 가벼워 진것 같습니다. 또다시 60봉을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는중입니다. 이와 좋은 제품은 만나기 힘들어 모든 건강이 다 좋아져서 정말 진심으로 옻가네 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전신에 어혈이 돌아 무척 고생했었으나 김○○ 55세/주부

저는 동네이장님에서 어혈이 잘 풀린다는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2010년 8월 7일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7년전 대형교통사고와 4년전, 1년전 심하게 넘어져 왼쪽 옆구리 갈비뼈와 엉치에 큰 타박상을 입어 전신에 어혈이 돌아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옻가네 참옻제품을 먹으면서 운동이 서서히게 땀이 돌고 서서히 쑤시고 저리고 아파서 병원에 가게 진통주사까지 맞았지만 효과가 없었는데 꾸준히 한달을 복용한 결과 거짓말처럼 나았습니다.

아직 정액에 있어 좋은 정액이 튀어 나왔고 심폐기능이 소생하게 되었는데 10일 정도 복용하면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필요하시면 궁금한 분들에게 직접 확인해 드릴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참옻 상품화 성공 옻가네, 대통령 산업포장 수상

농업법인 옻가네는 지난 11월13일 제 14회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 유공자 시상식에서 대상인 산업포장을 받았다.

지용우 대표는 옻 안타는 참옻을 국내최초로 상품화했으며 발효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 및 옻을 이용한 옻된장, 옻고추장 등의 개발과 옻순채취, 옻나무 재배보급으로 농촌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대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옻나무추출물은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해주는데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류마티스관절염 예방 및 치료 등에 효능을 밝힌 연구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특히 여성에게 많은 류마티스관절염 등의 염증성질환에 옻을 이용하면 어혈제거를 통해서 염증도 자연스레 소멸된다. 이밖에 농업법인옻가네는 지난해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하며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공식지정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콩을 발효시켜서 청국장 이나 된장으로 먹으면 훨씬 더 몸에 좋듯이 토종 참옻도 발효시키면 몸에 훨씬 더 이롭다. 옻을 식품에 첨가하면 독특한 효과가 있다.

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지방을 녹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고기맛을 더욱 좋게 한다.

국내에서는 식약청(KFDA)에서 안전성을 인정한 검증받은 제품을 창업전문컨설팅 회사와 손을 잡아 전 제품을 무점포 50곳(중 · 소형 마트, 편의점, 건강식품판매점, 음식점 등)에 오픈하여 사업주 분들은 부담없는 금액으로 많은 시간의 투자없이 부업 및 투잡으로 최고의 사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독성만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참옻식품의 **원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인증받은 절대 **옻 안타는** 제품입니다.

무색소
무방부제 / 무과당
100% 국내산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1.5ℓ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다슬기진액(고급형)
참옻다슬기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98,000원

고급형 구입시 선착순 500분 사은품 증정

참옻, 민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6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16 16th Anniversary 옻가네16주년기념



토종환 별도구입시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거기에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토종참옻환은 온가족이 간편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토종참옻에 신진대사 활성화, 면역에 도움을 주는 민들레에 항균 작용이 뛰어나 민간요법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인진쑥을 더해 만들어진 토종참옻丸을 옻가네 16주년 기념 사은품으로 하루 선착순 500분에 한하여 드립니다.

옻가네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 080-810-81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